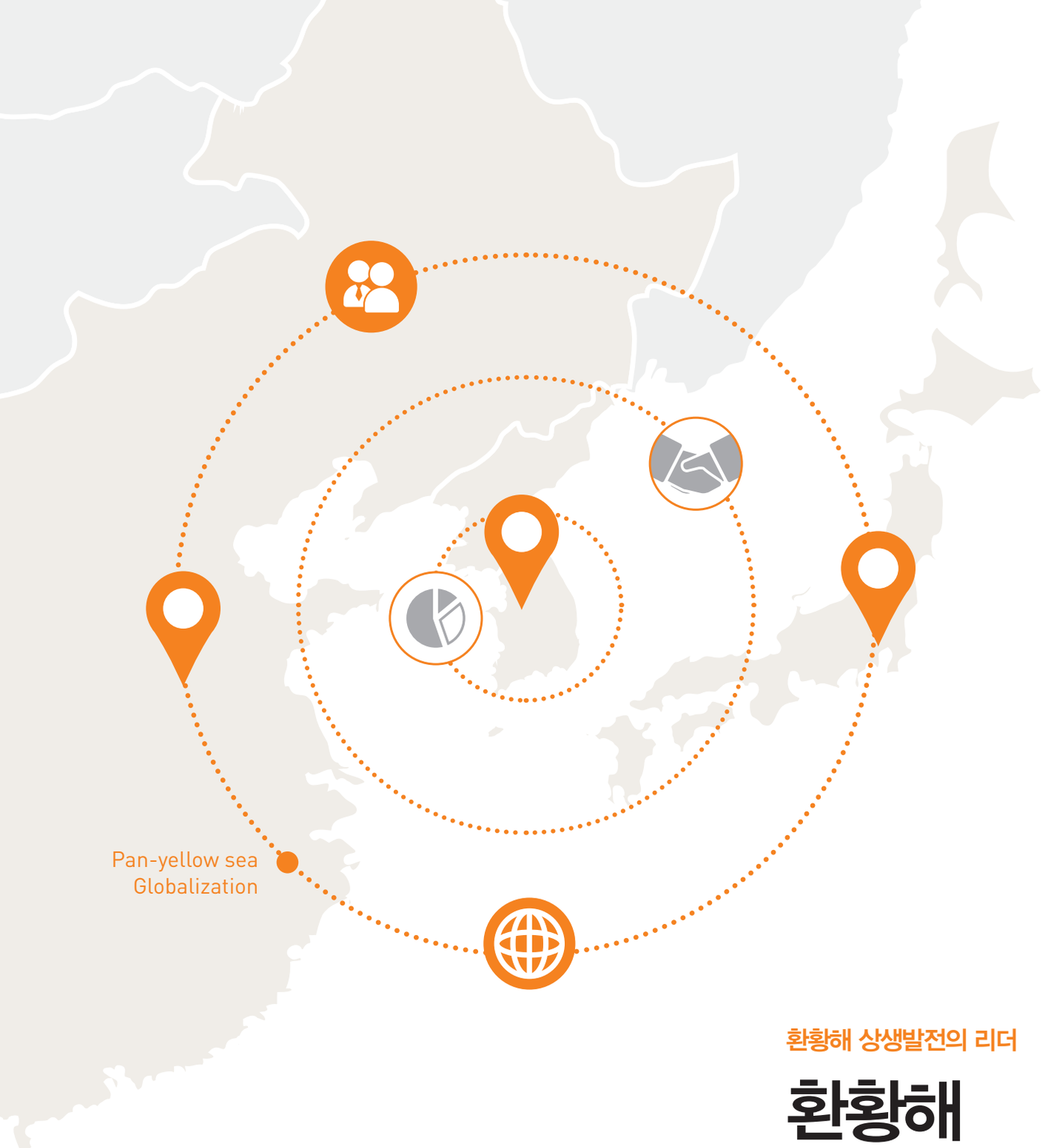


환황해 상생발전의 리더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2040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2018. 12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성과품을 제출합니다.

2018. 12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원 장 윤 황

차 례

I. 과업 수행 개요

1. 과업의 배경과 목표 ····· 3
2. 과업의 범위 ····· 5
3. 과업의 성격과 특징 ····· 7
4. 과업 추진 방법 ····· 8
5. 과업의 기대효과 ····· 14

II. 환황해 이니셔티브 여건 분석

1. 환황해권에서 충남의 지위 ····· 17
   1) 전형적인 위성형 신산업지구 ····· 17
   2) 소규모 개방 지역 ····· 19
   3)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 경제 ····· 20
   4) 수도권 배후지 ····· 23
   5) 낮은 문화 다양성 ····· 25
   6) 환황해 시대 도래와 충남의 변화 ····· 27
2. 환황해권 교류협력 동향 ····· 35
   1) 환황해권 교류협력 현황 ····· 35
   2) 한중일 지방정부의 환황해권 소속감 인식 ····· 38
   3)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중점분야의 차이 ····· 40
3. 충남 지방외교 성과와 한계 ····· 41
   1) 충남 지방외교의 변천 및 현황 ····· 41
   2) 충남 국제교류협력의 한계 및 과제 ····· 44
   3) 충남의 중장기계획 및 관련연구 검토 ····· 45
   4) 국내외 지방외교 사례 ····· 49
4. 거시 환경 변화 분석 ····· 54
   1) 지방외교 패러다임 변화 ····· 54
   2) 환황해 시대의 새로운 단계 ····· 55
   3) 한반도 신경제 구상 ····· 56
5. 환황해권 미래 트렌드 ····· 58
   1) 환황해권 인구변화 ····· 58
   2) 환황해권 환경 악화 예상 ····· 59
   3)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가속화 ····· 61
   4) 초국경 교통네트워크의 형성과 결합 ····· 62
6.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 ····· 64
7. 충남의 SWOT 분석 ····· 72

차 례

III. 환황해 이니셔티브 기본 구상

1. 비전 수립의 착안점 ····· 77
2.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비전체계 ····· 79
   1)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 ····· 79
   2) 환황해 이니셔티브 목표 ····· 79
   3) 실현전략 및 정책사업의 준거 ····· 80
   4) 이니셔티브 목표 지표 설정 ····· 81
   5) 비전체계 도해 ····· 82
   6) 실현 전략별 사업 ····· 84
3. 2040 이니셔티브의 미래상 ····· 90
   1) 시행계획의 지리적 범역 ····· 90
   2) 2040년 충남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미래상 ····· 91
   3) 충남 초국경 교통망의 미래 ····· 91
   4) 충남의 국제 교역 거점 ····· 93

IV. 환황해 이니셔티브 정책 및 세부사업

1. 친환경 경제 구축 ····· 98
2. 초국경 지역공간 조성 ····· 123
3.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 141

V. 중점 추진 선도사업

1. 선도사업의 선정 ····· 165
2. 목표별 선도사업 개요 ····· 170
3. 선도사업 개요 ····· 173

VI. 집행관리계획

1. 시행사업 재원 조달 ····· 197
2. 시행계획 추진체계 ····· 198
3. 시행계획 평가체계 ····· 199
4. 사업집행계획 ····· 200

부록

1. 환황해 이니셔티브 후보 사업군 목록 ····· 197
2. 시행사업 검토 설문조사 결과 ····· 210
3. 전문가워크숍 개최결과 ····· 216
4. 도민 아이디어 제안서 ····· 225
5. 충남도 및 시군 국제교류 담당자 워크숍 개최결과 ····· 229
6. 해외파트너 기관방문 결과보고서 ····· 233

표 목 차

〈표 2-1〉 GDP 대비 무역규모 비중 ····· 20
〈표 2-2〉 국내 주요시도의 에너지 집약도 비교 ····· 20
〈표 2-3〉 우리나라 부문별 취업유발계수의 변화(2010-2016) ····· 21
〈표 2-4〉 한중일 종족·문화다양성 지수 ····· 25
〈표 2-5〉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지역별) ····· 25
〈표 2-6〉 우리나라 무역교역국 순위비교 ····· 29
〈표 2-7〉 지역별 항공편수 비교(2007년, 2017년 각년도) ····· 29
〈표 2-8〉 주요 항구별 물동량 변화 추이(2012-2016) ····· 30
〈표 2-9〉 환황해권 지역 차원 다자간 협의체 현황 ····· 36
〈표 2-10〉 한중일 지방정부의 환황해권 소속감·인식·중점 교류지역 ····· 39
〈표 2-11〉 충남 지방외교의 시기별 변천 ····· 41
〈표 2-12〉 환황해 시대 발전단계 ····· 56
〈표 2-13〉 한중일 인구증가 예측 ····· 58
〈표 2-14〉 한중FTA 지방협력 시범구 및 한중산업단지 조성 현황 ····· 62
〈표 4-1〉 목표·전략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 개요 ····· 97
〈표 6-1〉 기간별 사업 투자계획 ····· 200
〈표 6-2〉 목표1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 201
〈표 6-3〉 목표2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 201
〈표 6-4〉 목표3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 202
〈표 6-5〉 선도사업 투자계획 ····· 202

그 림 목 차

[그림1-1] 협의의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 ····· 5
[그림1-2] 본 계획의 성격 ····· 7
[그림1-3] 연구 프로세스 ····· 8
[그림1-4] 충남도 기존 중장기계획 검토 ····· 9
[그림1-5] 조사연구 절차 ····· 9
[그림1-6] 시행계획 수립 방법 ····· 10
[그림1-7] 사업안 도출과정 ····· 13
[그림1-8] 선도사업 발굴 및 선정 프로세스 ····· 13
[그림 2-1]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의 충남의 발전모델 ····· 18
[그림 2-2] 한중일지방정부 도시화율-일인당GRDP상 위치 ····· 19
[그림 2-3] 에너지 집약도 상위 국가 ····· 20
[그림 2-4] 충남의 OECD 웰빙지표 ····· 22
[그림 2-5] 경부,호남 KTX 개통으로 인한 서울에서 교통거리 ····· 23
[그림 2-6] 충남 SOC 분야별 현황 수준 검토 및 시사점 ····· 24
[그림 2-7] 충남경제활동별 GRDP 변화(1985-2017) ····· 27
[그림 2-8] 충남의 총수출액, 대중국 수출액, 중국수출 비중(2000-2014) ····· 28
[그림 2-9] 충남 산업구조 변화 ····· 28
[그림 2-10] 환황해권 교역 항구노선 ····· 30
[그림 2-11] 전국 각 시도별 경제성장률 및 경제규모 도해(2000-2013년 평균) ····· 31
[그림 2-12] 1990년대 이후 국토 성장축의 이동 도해 ····· 31
[그림 2-13] 충남의 시군별 외국인주민 분포(2015년) ····· 33
[그림 2-14] 우리나라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이 ····· 34
[그림 2-15] 충남 외국인관광객 변화 추이 ····· 34
[그림 2-16] 환황해권 범위 ····· 38
[그림 2-17] 충남도, 시 · 시군 국제교류 현황(2017년 12월 기준) ····· 42
[그림 2-18] 한중일 지방정부 자매결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 42
[그림 2-19] 한 · 중 · 일 지방정부 자매결연 네트워크 ····· 43
[그림 2-20] 환황해 관련 주요 중장기 계획 ····· 46
[그림 2-21] 환황해 관련 주요 선행연구 ····· 48
[그림 2-22] 충칭 경기비즈니스센터 개소식(2017.8.1) ····· 49
[그림 2-23] ICLEI동아시아본부개소식(2012.10.19) ····· 50

[그림 2-24] 2018 제주포럼 현장사진 (2018.6.27) ····· 50
[그림 2-25] 2016 NEAR 국제포럼 현장사진 (2016.11.27) ····· 51
[그림 2-26] 후쿠오카 수소스테이션 (2016.9.29.) ····· 52
[그림 2-27] 산동성 남색경제구 계획도 ····· 52
[그림 2-28] 공공외교 기본계획 비전 체계 ····· 55
[그림 2-29]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57
[그림 2-30] 중국의 도시화율 예측(2012-40년) ····· 58
[그림 2-31] 동아시아 중산층 수와 자산 규모(2015) ····· 59
[그림 2-32] 2012-2040 전세계 CO2 배출량 예측 ····· 59
[그림 2-33] 주요국가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에너지소비 ····· 60
[그림 2-34] 한중일 관련 FTA 구상 관계도 ····· 61
[그림 2-35] 한중일 FTA와 타 FTA경제통합규모 비교 ····· 61
[그림 2-36] 중몽러경제회랑과 한반도 서부축 연계 ····· 63
[그림 2-37] 동북아 초국경 연결망 구상 ····· 63
[그림 2-38]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1 ····· 65
[그림 2-39]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2 ····· 66
[그림 2-40]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3 ····· 68
[그림 2-41]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4 ····· 69
[그림 2-42]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5 ····· 71
[그림 2-43] 충남 교류협력의 SWOT 분석 ····· 73
[그림 3-1]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의 요건 도해 ····· 78
[그림 3-2] 환황해이니셔티브 3대 목표 도해 ····· 80
[그림 3-3]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체계 도해 ····· 82
[그림 3-4] 시행계획의 지리적 범역 ····· 90
[그림 3-5] 충남의 초국경 인프라 구축 도해 ····· 92
[그림 3-6] 충남의 2040년 국제교역 거점 도해 ····· 93
[그림 5-1] 선도사업 선정 절차 ····· 169
[그림 5-2] 환황해 이니셔티브 선도사업 ····· 170

I.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2040 수립개요

1. 과업의 배경과 목표

1) 충남의 새로운 발전 모델 필요성 인식

▸ 수도권 확장 및 기능 분산에 기댄 성장모델 한계 봉착

- 대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른 충남 경제의 취약한 구조와 불안한 향후 전망

▸ 경제성장 및 충남의 사회수준에 상응한 글로벌 위상 제고 필요

- 충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필요성 인식
  - 경제성장률 전국 1위 충남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걸맞은 위상 제고
  - 미래 충남 발전과 연계한 위상 제고
-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환황해권으로 이동, 따라서 휜황해권 경제성장과 충남의 미래 발전 연결의 필요성 인식
  - 환황해 국가의 경제비중 상승 및 환황해 국가 간 경제교역 증가
  - 환황해권 주요 국가인 중국이 제조국에서 소비국으로 변화

2)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전략 필요

▸ 한중일 FTA, 초국경 인프라 건설 등 환황해시대의 새로운 단계 진입

- 중국의 신상태, 동남아 경제성장, 남북경협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상향평준화 진행
  - 기술 혁신 가속화, 중국의 뉴노멀화 진행, 세계화 확대 등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필요
  -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확대와 FTA · TPP 등의 세계경제의 다변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
- 국내 전반적 수출증가세와 함께 충남의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구조 개선에 따른 전략 수립 필요

-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7년 9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연속 수출증가율을 보여 사드여파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회복단계에 진입
- 그러나 최근 소재분야에서 중국 자체생산에 따른 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으로 충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은 2016년 16.8%에서 2017년에 23.4%로 상승

•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대응하는 충남의 전략 수립 필요

-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충남도 차원에서 남북경협 등을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필요
- 북한의 핵 포기 및 개혁개방은 황해권을 평화지역으로 정착시킴에 따라 이에 따른 위상 정립 필요

>> 새로운 환경은 충남 미래발전의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

3) 충남 특성에 맞는 이니셔티브 전략 긴요

▸ 충남의 경제, 공간, 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이니셔티브 전략 도출

• 충남의 사회, 경제, 자연 여건에 부합하는 국제 이니셔티브 전략 도출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는 이점을 이용하는 환황해권 국제교류 전략 수립 필요

• 국제사회는 기존 미국중심의 일극체계에서 G2시대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인 점을 이용하여 중국 교류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

▸ 거대한 변화에 대응한 담대한 구상과 효과적인 실천계획 제시

• 충남 수출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특징이 있는데 최근 소재분야에서 중국의 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확대

• 충남의 공공외교를 선도하고, 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의 자원을 극대화하는 시군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환황해권 공동번영을 위한 환경·경제 협력을 구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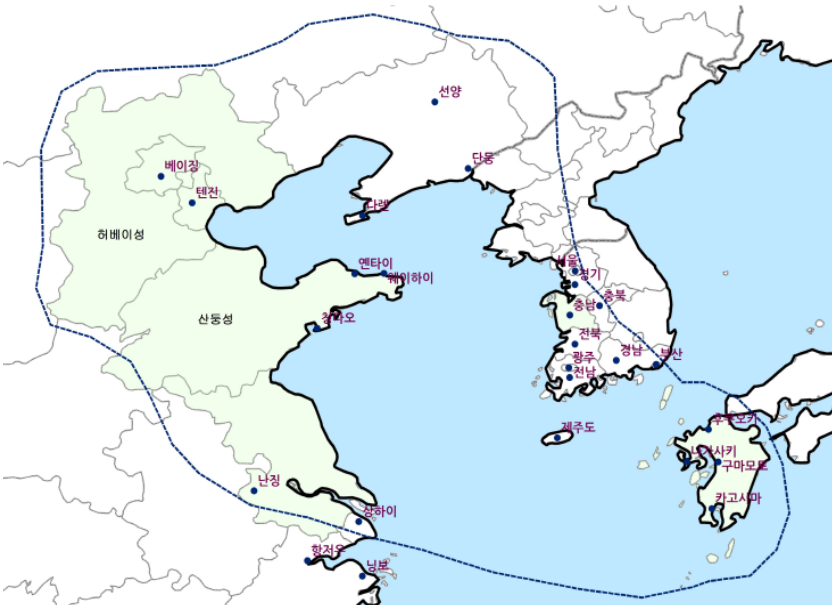
• 환황해권의 중심거점 구현을 위한 초국경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 과업의 범위는 협의적 범위와 광의적 범위로 구분

- 협의의 환황해권은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중국 발해만 지역과 황해 연해지역, 일본 큐슈지역 포함
- 광의의 환황해권은 협의적 범위에 동남아시아 지역 포괄



[그림1-1] 협의의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8년~2040년

– 기준년도 : 2018년
– 계획년도 : 2018년~2040년(23개년).

1단계	2단계	3단계
2019-2023년 단기계획	2019-2030년 중기계획	2019-2040년 장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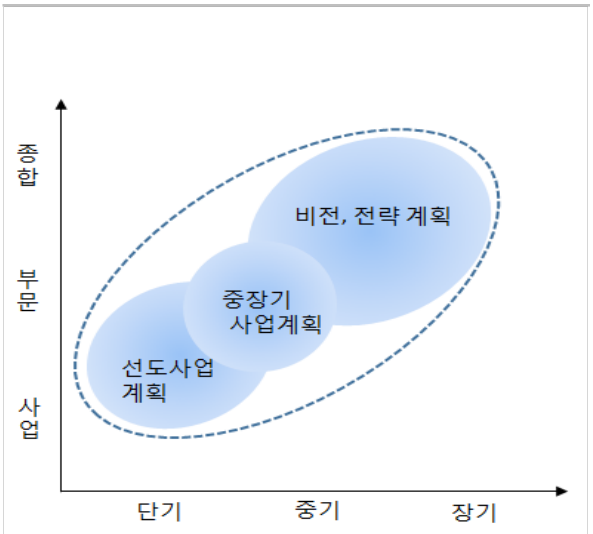
3) 내용적 범위

- 환황해 이니셔티브 여건 분석
- 환황해 이니셔티브 기본 구상
- 부문별 시행계획
- 선도사업 추진계획
- 집행관리계획

3. 과업의 성격과 특징

1) 본 과업은 "비법정계획, 장기계획" 임

- 비법정계획으로서 도의 정책의지를 담은 선도적 계획
- 지방외교, 국제화 전략을 담은 부문 계획
- 2040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장기계획



[그림1-2] 본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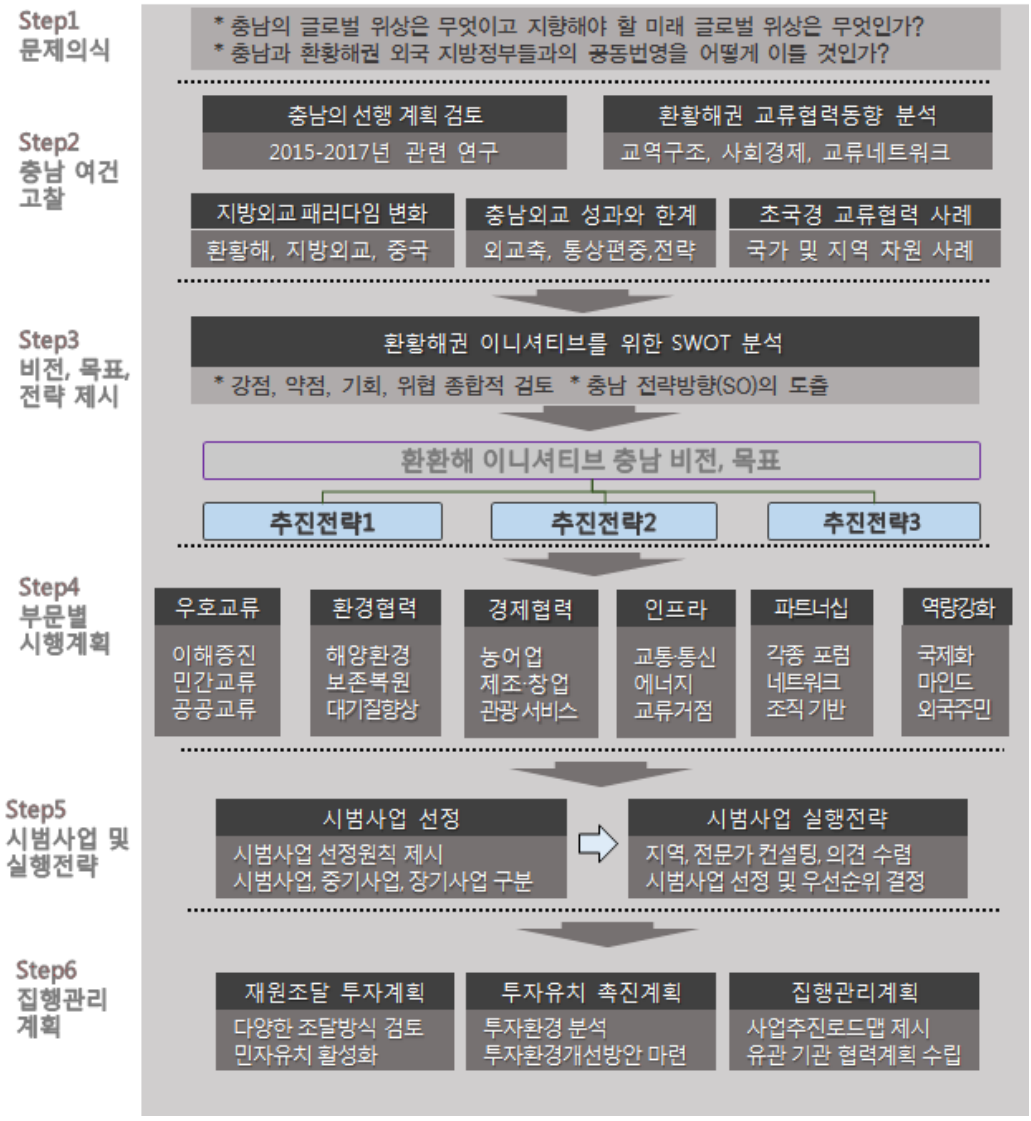
2) 복합성을 갖는 계획

- 상위계획(충남 글로벌 비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립
- 비전 및 전략계획을 포함한 선도사업(시범사업)을 수립하는 실천지향적 계획
- 파트너가 있는 시행계획

4. 과업 추진 방법

1) 연구추진 프로세스

▸ 비전체계–부문별사업계획–선도사업계획–집행관리계획 순으로 진행



[그림1-3] 연구 프로세스

2) 조사·연구 방법

▸ 기성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수행

- 기존 계획들이 제시한 전략, 사업(275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재정리 수행

	제안 과제 수	전략 카테고리
충남서해안 비전	35	해양환경, 레저 · 관광, 수산자원, 신산업, 물류 · 항만, 교통망
해양수산발전계획	100	연안환경, 해양 안전, 관광 랜드마크, 관광 포트폴리오, 해양레저 거점, 관광객 유치, 해양 문화, 도서 자원화, 어촌 · 어항, 수산양식, 수산물, 신산업, 에너지, 중소기업
충남경제비전2030	80	인재, 자리, 성장산업, 기업지원, 정주환경, 문화관광, 공동체, 균형발전, 투자유치, 하늘길 · 바닷길
내포광역도시계획	23	해양문화관광, 교통 기반, 교역 거점, 산업 · 물류 허브
환황해미래전략	7	한중일 해저터널, 4차산업혁명, 지식재산 허브
환황해글로벌전략	30	공공외교, 민간교류, 환경협력, 경제협력, 파트너십,

[그림1-4] 충남도 기존 중장기계획 검토

▸ 문헌조사, 현장조사, 국외출장협의, 전문가 컨설팅 등 연구내용의 적실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연관 계획 검토
- 경제비전 2030
- 서해안비전
- 해양수산발전계획
- 내포광역도시계획
- 지방외교3.0전략 연구
- 환황해미래전략 연구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지방외교 패러다임 변화
- 환황해권과 중국의 부상
- 지방정부 국제무대 등장
- 소프트파워의 중시

충남외교의 성과와 한계
- 외교축의 다변화
- 통상외교 편중의 한계
- 전략적 관점의 미약
- 외교역량 격차 현저

초국경 교류협력 사례
- 국가 차원 사례
- 지방 차원 사례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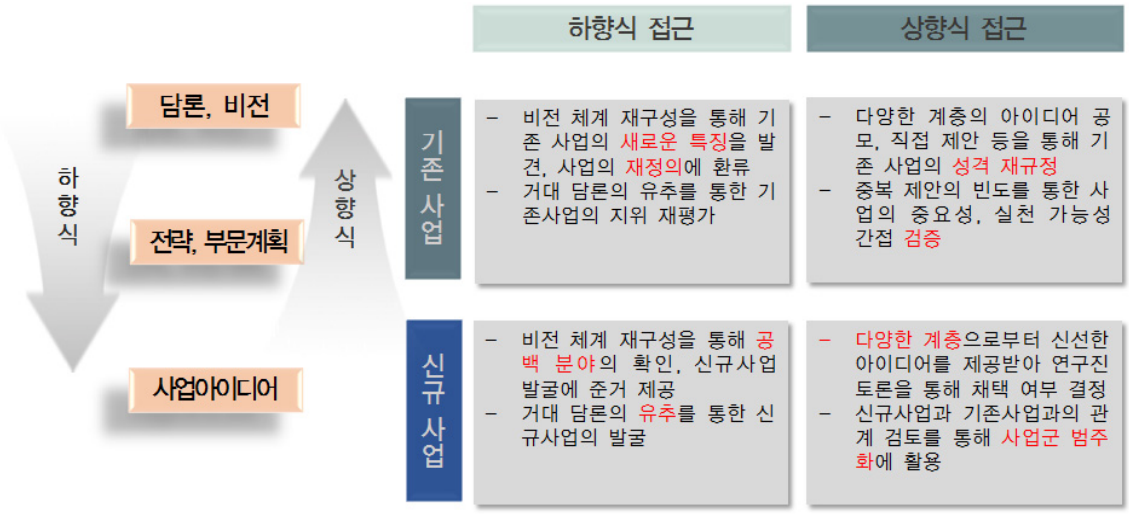
환황해 교류 동향분석
- 한중일 무역구조 변화
- 지방정부 사회경제구조
- 지방정부 교류협력현황
- 초국경인프라현황

동아시아 거대 구상 검토
- 아시안하이웨이
- 중국 일대일로
- 신경제지도 구상
- 아시아 에너지그리드

[그림1-5] 조사연구 절차

▸ 도민·전문가·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형 시행계획 수립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수렴
- 신규사업아이디어를 위한 하향식 및 상향식 접근방법 병행



[그림1-6] 시행계획 수립 방법

3) 연구 추진경과

▸ (5.17) 착수보고회

- 교류협력보다 산업, 관광, 인프라에 중점 요망
- 30개 사업 발굴 제시 및 선도사업 도출 필요

▸ 기존 제안 사업 선별(총 90개 최종 압축)

- (6.10~6.21) 제1차 선별작업(275 → 128개): 연관성 평균 이하 제외
- (6.22~7.12) 제2차 선별작업(128개 → 90개): 중복성, 연관성 고려

▸ 신규아이디어발굴(총 46개)

- (6.22)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군 공무원 워크숍
- (7. 05)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차: 경제, 농어업, 역사, 관광분야)
- (7.12)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2차: 교통인프라, 교류협력 분야)
- (6.22.-7.10) 신규 아이디어 발굴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

▸ 국내파트너 협력 관련 현장조사

- (7.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관방문
  - 충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및 본 과제 연계사업 등 검토, '환황해수도 충남' 제안, 해양분야 국제협력사업 검토
- (7.11) 동아시아바다공동체(OSEAN) 기관방문
  - 국내 해양쓰레기 조사 및 연구분야의 유일한 기관으로 환황해 이니셔티브 주도성 확보를 위한 환경분야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협력사업 조사
- (7.25) 동북아시아지역지자체연합(NEAR) 기관방문
  - 비영리기관으로 2004년 경상북도 출연기관으로 운영 중. 현재 6개국 77개 지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 환황해이니셔티브 시행사업 연계 및 협력방안 가능성 조사
- (8.7) 당진에어시티 컨소시엄 관련자 인터뷰
  - 동아시아경비행장허브조성 사업 관련, 당진시 비행장 건설사업 현황조사 실시, 항공교육, 훈련용 비행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 중

▸ (10.16) 중간보고회

- 환황해 이니셔티브 기본구상(안) 및 전략별 사업안 제안

▸ 국제파트너 협력 관련 현장조사

- (8.1~8.4) 일본 1차 국외출장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청, 큐슈대학, 나가사키현청, 경제조사협회 방문
  - 한중일 3국 지방정부 대외교류협력 중점 상이: 중국은 투자유치, 일본은 농수산물 수출, 관광, 재생에너지(후쿠오카현에 한정)
  - 국 지방정부의 경제 분야 공통분모는 농수산물(특산물) 수출과 관광에 있음
  - 대외교류협력 중점 지역이 상이: 중국은 한국, 일본 전역, 일본 큐슈는 아세안지역임
    –> 충남은 중국 산동이북과 일본큐슈를 연결하는 역할 검토 필요
  - 황해 해양환경보호를 표방하는 민간 NGO는 각 국별로 활동
    –> 민간, 정부차원을 two track으로 추진
- (8.28~8.31) 중국 1차 국외출장 산동성: 산동성 사회과학원, 웨이하이 한중지방협력자유무역시범구, 환황해발전연구센터, 산동성 교통과학원 방문
  - 산동성 정부의 지방차원 교류협력에 관한 시행가능성 조사, 전략적 시범사업 협력 가능성 모색
  - 한중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의 협력가능성 모색, 한중 초국경 연결망(한중해저터널, 열차페리) 구축가능성 모색 및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 (11.20~11.23) 일본 2차 국외출장 후쿠오카시, 구마모토시: 큐슈경제조사협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후쿠오카 창업지원센터 방문
  - 제시된 세부사업에 대한 일본지방정부간 협력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일본 후쿠오카시, 구마모토현과의 협력교류 사업 실행계획 수립, 창업지원사업 사례 수집 및 창업관련 한일 교류 추진방안 논의, Growth Next센터 방문
  - 현지세미나 개최: 환황해이니셔티브 연구에서 도출된 사업안에 대하여 일본 내 국제교류

전문가들로 부터 실현 가능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 및 자문

- (11.27~11.30) 중국 2차 국외출장 장수성: 장수성 사회과학원, 장쑤성 미래성, 상하이 환경NGO 렌두, 청년창업공간 youth space 기관방문
  - 렌두는 중국 유일의 해양쓰레기 NGO단체로서 기업협력,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양환경교육, 해양환경보호 등 업무를 추진 중으로 향후 충남 환경협력사업 협력가능성 모색
  - 청년창업공간 방문을 통한 중국청년창업지원 사례 검토 및 협력사업 가능성 모색
  - 장수성 지방정부의 환황해 인식 및 지방협력 가능성 모색

▸ 정책사업안 도출 및 세부사업 검토

- (10.19~11.7) 내부연구진, 충남도 환황해특별위원회, 분야별 외부전문가, 실과별 세부사업 검토 진행
  - 분야별 책임연구진, 환황해 특위, 30여명의 외부전문가, 14개 실과별 60여개 사업의 적합성(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사업타당성(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검토 진행
- (11.26~11.30) 선도사업 도출 및 세부사업 검토의견 수렴을 위한 충남도민 설문조사 진행
  - 3대 목표 및 60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 및 도민의견 수렴 진행
- (11.26) 정책사업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수렴
  - 공무원 워크숍 진행을 통한 사업안 발표 및 시군의견 수렴

4) 사업(안) 도출 과정

구분		사업명
농수산	1	수산연구기반 및 미래해양수산전문인력 육성
	2	수산물 수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3	수산식품산업육성을위한인프라강화
	4	국제수산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5	농업6차산업안테나숍개설
	6	쌀 문화 페스티벌
	7	동아시아 실버푸드 박람회
	8	해양수산 IoT 클러스터 조성
	9	해삼융복합양식클러스터구축
에너지	10	친환경 에너지산업 벨트 조성
	11	미래에너지 충남수소경제사회 구현기반구축
	12	수소에너지 자립항구 시범사업
	13	신재생바이오에너지산업육성전략
환경	14	갯벌어장 복원
	15	황해 갯벌 지방정부 네트워크
	16	서해안연안환경보전'관리체계구축
	17	연안습지환경개선및생태가치제고
	18	연안·하구 정밀조사 및 생태복원
	19	유무인도서의해양생태환경관리및보전
	20	태안국제 환경상 제정
	21	환황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22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진화
투자창업산업	23	창업및중소기업아시아시장개척지원
	24	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25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26	아시아연합 지식재산청 설립
	27	아산만권아시아투자산업지역조성
	28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조성
	29	해양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조성
	30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산업 육성
	31	4차산업혁명실증테스트베드구축
대외인프라	32	한중 천연가스관라인 선점
	33	격렬비열도의 전략자원화

구분		사업명
대내인프라	34	당진항·대산항·보령신항 대특화항만조성
	35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36	크루즈 항만 개발
	37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38	내륙산단물동량및교통망을연계한항만네트워크구축
	39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확충
	40	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대내관광	41	충남 해양관광브랜드 구축
	42	해양헬스케어(관광의료)시범단지조성
	43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44	서해안금강Y자형생태휴양관광벨트조성
	45	안면도 관광지 개발
	46	내포문화·해안관광을통한체류형관광유도
대외관광	47	특화 항만연합 결성
	48	대산항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외국인 수용태세 정비
	49	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50	(천안)바이오/문화/K뷰티테마파크조성
	51	동아시아 낚시인 친선대회
	52	여행플래너 상호 파견
역사교류	53	동아시아 문명교류길 조성
	54	환황해 유교로드 구축
	55	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56	전통문양국제공모전
	57	귀화성씨 박물관 건립
	58	안흥스토리텔링형중국역사자원발굴
국제교류-민간	59	무장애 도시 상호 모니터링 교류
	60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남'
	61	대학 간 교과과정 학점 및 인증
	62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국제교류-공공	63	대북 교류협력 시범사업 추진
	64	환황해연구원 설립
	65	환황해포럼 진화
	66	국제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67	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표] 기존사업 재정리 – 6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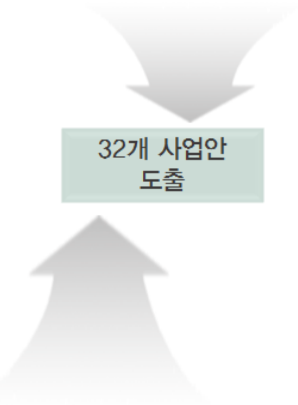
(경제비전2030, 서해안비전, 해양수산발전계획, 환황해글로벌화전략, 환황해미래전략연구, 내포광역도시계획)

구분		사업명
1	국제교류	환황해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구축사업
2		중국 대학생/대학원생 유치 사업
3		국제발전대학 유치사업
4		한중일 장애인 행복나라 교류촉진
5		국제협력 관련 도내 인력양성
6		충청남도 국제화 역량강화 기초 조사
7		환황해 역사기반 민간 교류 진흥사업
8		백제 축제를 활용한 환황해 네트워크 구축
9		한국어(중국어) 말하기 대회
10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11		동아시아 문명 교류길 조성
12		환황해연구원 설립
13		공공민간 인적교류 분야 국제화역량 강화
14		공공행정 인적교류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15		꿈나무들의 희망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모여라 충남으로
16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17	환경협력	충남과 강소성의 환경협력사업
18		한중 국제 미세먼지 연구소 유치
19		대기 및 수질오염 공동연구 및 실증단지
20		한중일 환경포럼
21		환황해권 연계 탄소배출권 확보 구축사업
22		환황해권 어족자원 고갈방지 정책 공유방안
23		환황해권 해양쓰레기 처치 정책 공유방안
24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공동체 형성
25	경제협력	4차산업에 맞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26		도시간 FTA 충남 거점 육성·추진
27		FTA확대가 충남경제및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28		환황해 지역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방안
29		한중일 수산식품 교류활성화 사업
30		충남 중소기업 수출홍보관 설립
31		한중일 와글와글 지방엑스포 개최
32		충남 농축산물의 가공유통의 비단길
33	역사문화관광	백제유민 고고유적 조사사업
34		환황해 KCI 인력 양성사업
35		환황해 플랫폼 개발
36		중국과 청소년 체육교류
37		충남 스토리텔링 발굴
38		충남 힐링의료 단지 조성
39		체험형 충남 펌투어
40		신라방 역사재현사업
46		마음으로 보는 한중일 전시회
41	인프라	동아시아경비행장허브로서해미공항활성화
42		환황해 내륙화물기지 구축(IoT기반)
43		타분야 사업을 고려한 패키지사업(개발사업+배후종합교통망) 구상
44		원스톱 국제복합센터 조성
45		외국인 친화적 교통안내시스템 구축

[표] 신규 아이디어(상향식) – 45개

구분	사업명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2	연료전지 지게차
3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도립공원 지정
4	수입 자동차 콤플렉스 조성
5	중국산 수입차량 물류센터
6	첨단 자동차 콤플렉스
7	동아시아 그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8	태안반도-인천공항 해저터널
9	충남-산동성간 철도 페리
10	온천 건강검진 ⺷ 패키지
11	2030년 충청아시안게임 유치
12	청년 교육 농장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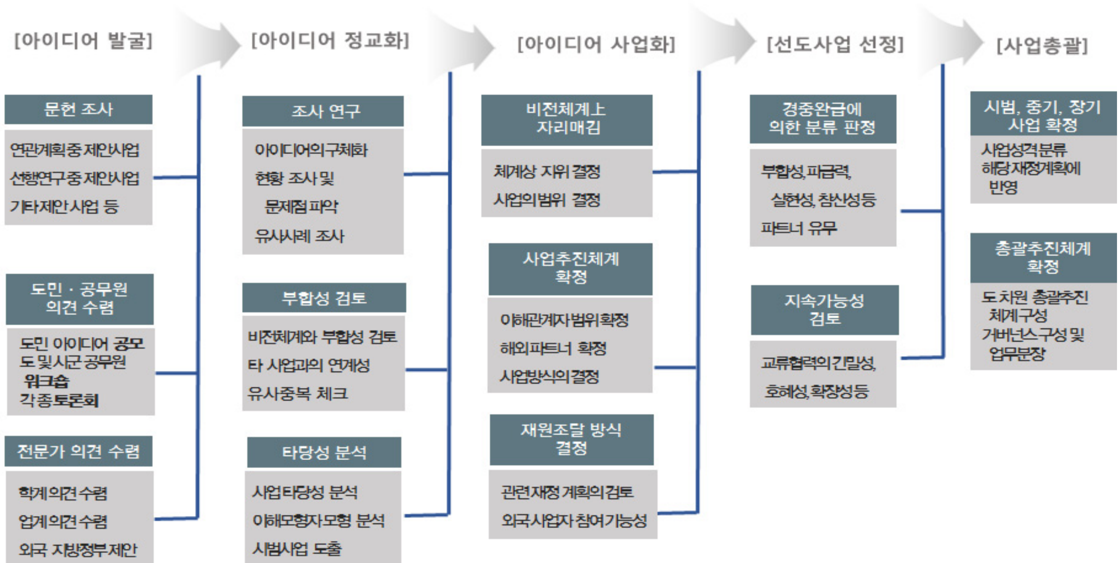
[표] 신규 아이디어(하향식)



[그림1-7] 사업안 도출과정

▸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프로세스

- 선도사업선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충남도민 설문조사 진행을 통한 선사업안 검토



[그림1-8] 선도사업 발굴 및 선정 프로세스

5. 과업의 기대효과

1) 도의 정책의지를 담은 실현가능성 있는 시행계획 제시

- 기존의 수동적인 국제교류를 탈피,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이니셔티브 구현 전략을 마련하여 충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충남의 경제규모와 지정학적 특성을 발판으로 개방과 연계를 핵심으로 환황해권의 경제성장과 연계한 충남의 발전 방안 마련

2) 환황해권에서 충남의 주도성 구현 방안 제공

- 충남 미래사회발전과 환황해권 성장 연계 발판 마련
- 충남의 자원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 문화 측면에서 충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충남의 미래발전 방향과 환황해권 이니셔티브를 유기적으로 결합, 시너지 효과 창출

II. 환황해 이니셔티브 여건 분석

1. 환황해권에서 충남의 지위

1) 전형적인 위성형 신산업지구

(1)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의 충남

- 충남은 전형적인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 경제중심지의 산업적, 기능적 분산에 의하여 외생적으로 발전
- 충남은 1980년대까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어 현재와 같은 도농지역으로 변모
- 대기업 주도의 수출 제조업을 매개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반면, 현지의 농업, 서비스업과의 연계는 미약한 전형적인 위성형 신산업지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위성형 신산업지구란?]

○ “위성형(Satellite) 신산업지구"는 선진국 주변지역이나 개도국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산업지구로서. 국지적 네트워크는 공급자연계든 고객연계든 매우 미약하고 비국지적 공급자연계와 고객연계가 강한 특징을 가짐
○ 입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지역 또는 다국적 기업의 분공장이기 때문에 장거리 또는 국경을 넘어서 네트워크가 발달하며 대량생산체계가 중심을 이룸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조정기능이 존재하지만 지구 내에 입지한 업체들 간에는 상호 협력관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 파생되는 환경문제, 정체된 지역의 농업과 서비스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되고 있음

(출처: 박삼옥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의 형성: 이론과 사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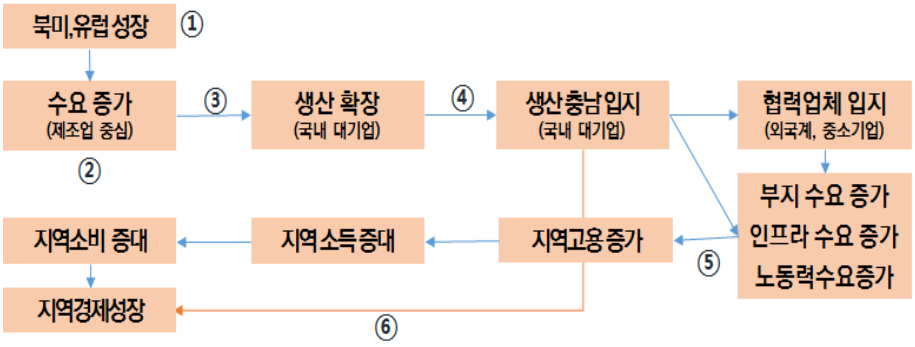
(2)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

▸ **충남의 기존 성장 모델은 소비중심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생산 증가로 인한 소득, 소비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방식**

- 북미, 유럽 등 소비중심지의 수요 증가를 국내대기업이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장할 때 그 시설이 충남에 입지하게 됨
- 대기업의 생산시설 주위로 협력업체들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부지, 인프라개발,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며 생산 확장에 따라 소득, 소비가 증가함

▸ **기존 성장 모델은 그 자체로 자본집약성과 에너지다소비성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 생산요소인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생산증가를 이루므로 "고용없는 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이 집중되어 효율성 저하, 환경 문제 등을 유발, 삶터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림



[그림 2-1] 위성형 신산업지구로서의 충남의 발전모델

▸ **그러나 충남은 기존 성장 모델 메커니즘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노출**

① 중국 중산층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 다극화

② 수요가 제조업에만 국한되어 농축어업이나 서비스업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음

③ 신흥국과의 경쟁 가열로, 제조업 우위가 흔들리는 상황

④ 국내 대기업은 충남이 아니라 외국, 수도권 등에 생산 투자 확대

⑤ 생산은 증가하나 고용 증가는 미미한 "고용 없는 성장", 자본집약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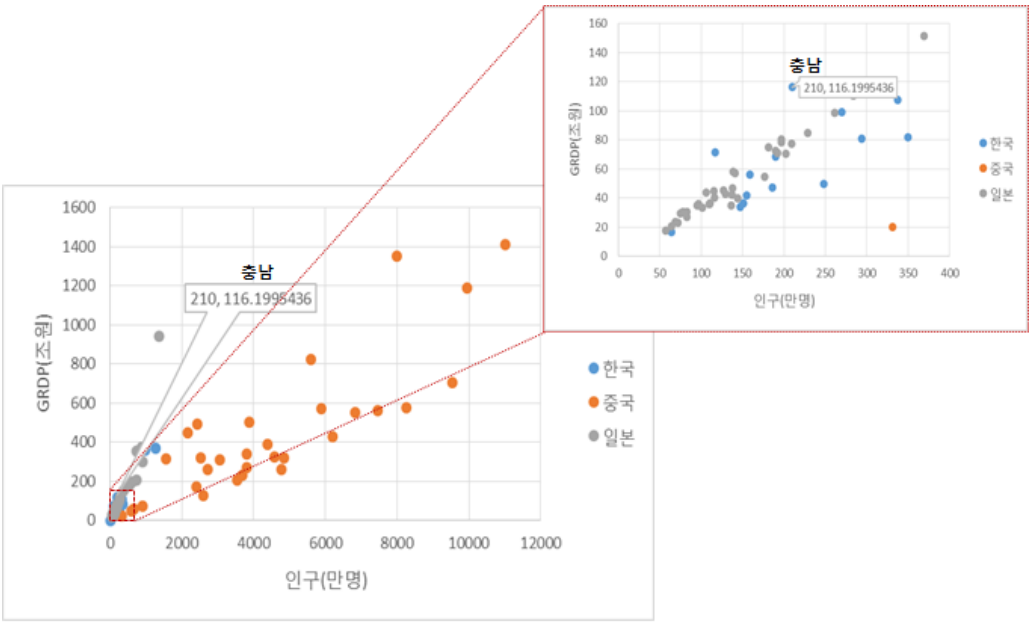
⑥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입지로 인한 환경 악화, 도민의 삶의 질 저하

2) 소규모 개방 지역

(1) 충남의 경제구조 : 소규모 개방경제

▸ **한, 중, 일 지방정부 중 충남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경제구조**

- 인구규모와 지역총생산(GRDP) 분포로 한·중·일 3국 지방정부를 살펴보면 충남은 매우 작은 시도로 분류됨
- 중국을 제외하고 한·일 양국의 지역을 보면 그다지 작은 지역은 아니나, 충남이 주로 상대해야 하는 파트너가 주로 중국 지방정부임을 감안하면 충남은 매우 작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2] 한중일지방정부 도시화율-일인당GRDP상 위치

▸ **충남은 중국, 일본의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국가 차원의 비교를 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무역의존도(전체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65.19%로 중국의 12.93%, 일본의 17.73%에 비해 월등히 높음
- 국내 차원에서는 충남은 수출액 규모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크므로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와 비교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역임
- 이외에 한국은 여러 외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정보, 물자, 사람, 자본, 금융 등의 흐름이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음

<표 2-1> GDP 대비 무역규모 비중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구분	1995년			2005년			2015년		
	GDP	TRADE	대외교역 비중	GDP	TRADE	대외교역 비중	GDP	TRADE	대외교역 비중
중 국	1,479,027	241,565	16.33%	3,569,853	1,244,678	34.87%	8,908,301	1,151,627	12.93%
일 본	5,063,810	725,733	14.33%	5,672,311	977,915	17.24%	5,996,414	1,063,075	17.73%
한 국	543,606	220,164	40.50%	894,708	458,603	51.26%	1,268,781	827,138	65.19%

출처: UNCOMTRADE

3)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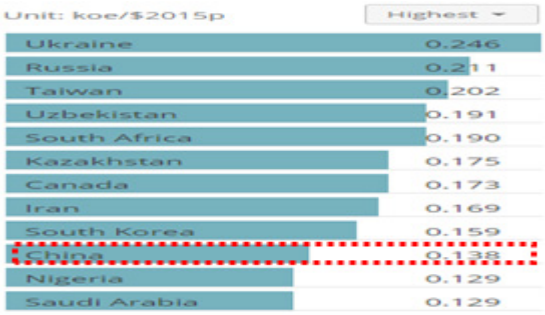
(1) 에너지 다소비형 자본집약 경제

▸ **석유화학, 철강, 대규모 조립가공시설 등 밀집으로 에너지다소비성을 보임**

- 한국의 에너지집약도 0.159로 중국 0.138보다 높은 상황(일본은 0.081)

  ※ 에너지 집약도=최종에너지소비/GRDP

- 충남은 국내 시도 차원에서도 에너지집약도가 3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집약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함



[그림 2-3] 에너지 집약도 상위 국가

출처: https://yearbook.enerdata.net

<표 2-2>국내 주요시도의 에너지 집약도 비교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울산	전남	경남	충남
에너지 집약도	0.166	0.055	0.107	0.353	0.627	0.098	0.305
국내순위		16	11	2	1	13	3

출처: 최병두(2013), "대구의 도시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자립"(한국경제학회지 제16권 제4호)

▸ **자본집약형은 높은 일인당 GRDP, 낮은 일인당 소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곧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

- 자본집약성(capital intensity)이라 함은 지역총생산함수의 투입요소인 자본, 노동력 중 자본요소 투입을 통해 지역총생산 증가를 달성하는 방식을 의미함. 혹은 동일한 양의 생산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을 투입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또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력 투입을 대체하는 효과를 낳게 됨

※ 최근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를 통한 생산증가 대신 기술력을 통한 생산증가가 바람직한 생산증대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입장에서 자본집약성(capital intensity)은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6년 기준 8.8로서, 서비스업의 17.3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표 2-3> 우리나라 부문별 취업유발계수의 변화(2010-2016)

구분		2010년	2016년
전 산업		13.9	12.9
	제조업	9.4	8.8
	서비스업	18.3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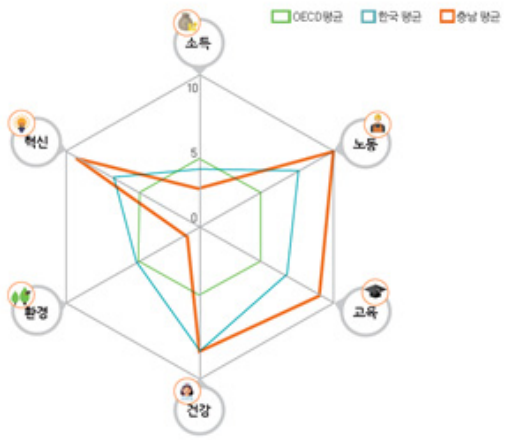
출처:혜정(2017),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일자리창출 효과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 도민의 삶의 질 요구 증가에 따라 기존 성장 모델 지속여부 불투명

▸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 경제는 내부로부터 도민의 삶의질 개선요구에 직면해 있음**

- 환경오염, 생산기능의 과잉과 생활기능의 열악 등으로 인해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경제를 갖고 있는 지역은 쾌적한 삶터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으며, 충남도 예외가 아님

- OECD웰빙지수(2015년)를 보면, 충남은 환경, 소득 측면에서 OECD평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등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경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



[그림 2-4] 충남의 OECD 웰빙지표
출처: 충남의 미래 2040(2016), 충남연구원

▸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 경제는 외부적으로 신흥국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경제의 우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음.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신흥국 또는 지역은 충남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음

※ 충남의 주력산업인 기초소재산업(석유화학, 철강)과 조립가공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확보하고자 하는 중화학공업과 전기·전자, 기계산업을 대표하는 업종임

- 기후변화 등 환경악화 요인으로 인해 지구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비해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4) 수도권 배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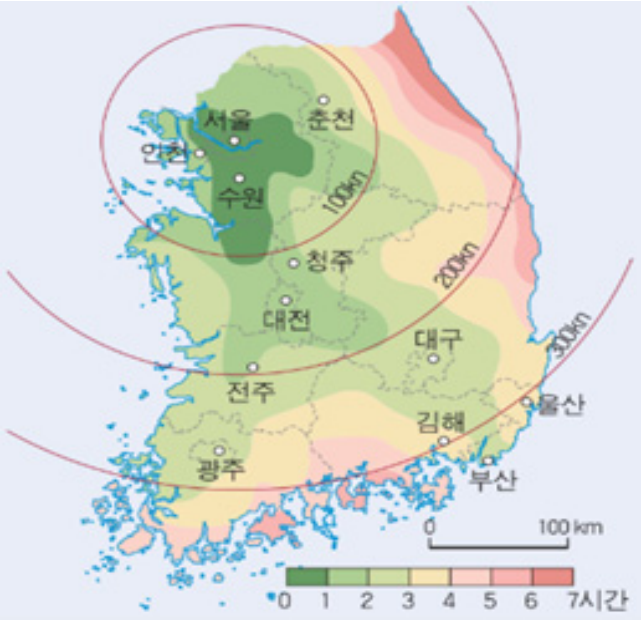
(1) 수도권과의 도로 교통망 발달

▸ **수도권의 배후지로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망이 비교적 발달**

- 충남은 경제중심지인 서울수도권과 대전권의 배후지로서 경상, 전라를 잇는 길목에 위치
- 충남의 교통망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도로교통망을 위주로 발달해 있으며, 철도교통은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최근 국제교통망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KTX 고속철도망은 충남의 동쪽인 천안아산과 대전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어 충남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임**

- KTX교통망이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을 기준으로 충남 서해안지역의 접근성은 부산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수도권 인접'이라는 도로교통망의 우위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



[그림 2-5] 경부, 호남 KTX 개통으로 인한 서울에서 교통거리

출처: study.wik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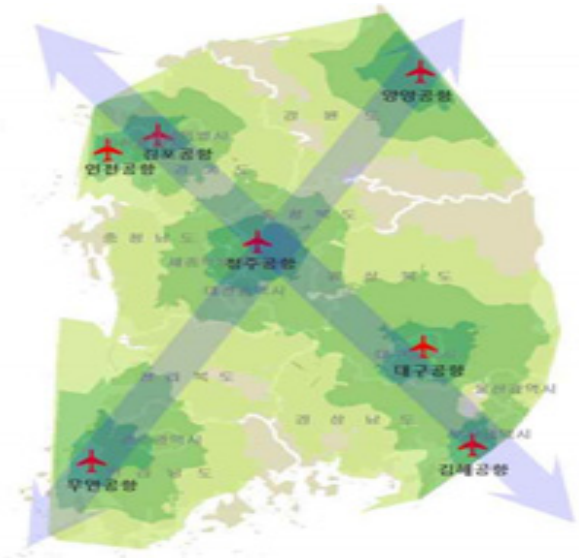
(2) 국제 교통 네트워크에서 말단의 지위

▸ 국제 교통 네트워크에서 충남은 말단 지위를 가지고 있음

- 대표적 국제교통 관문인 국제공항이 충남 역내에는 없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또는 청주공항을 통해서 국외로 나갈 수 있음
- 충남은 현재 자체 국제여객항이 없으며, 평택·당진항, 인천항, 군산항을 통해서만 배를 이용하여 해외로 나갈 수 있음

▸ 국제 교통망에서의 말단 지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충남은 현재 자체의 국제 교통망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 교통망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임
- 충남이 국외로 수출하는 물동량이나 국외 여행객 수요는 이미 기존의 경로를 통해서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자체의 항구 또는 공항을 개설할 경우에라도 지역 수요가 신규 관문을 반드시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음
- 정부가 항만에서는 부산항,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투포트(two port) 전략을 펴고 있어 신설 항구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받기 어려운 여건이며, 공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집중 육성하는 허브공항 전략을 펴고 있어 신규 개통 지방공항도 정부 정책지원을 받기 어려운 여건임



[그림 2-6] 충남 SOC 분야별 현황 수준 검토 및 시사점
출처: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5) 낮은 문화 다양성

(1) 한국의 문화 다양성은 최하위 수준

▸ **한중일은 공통적으로 문화다양성이 높지 않으나, 그 중 한국이 가장 심한 상황**

- 한중일 종족·문화다양성 지수 조사에서 총 159개 국가 중 158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157위, 중국은 138위를 기록
- 한중일 3국은 전체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낮은 국가들이며, 이중 한국이 가장 낮은 상황임

<표 2-4> 한중일 종족·문화다양성 지수

나라	순위	Ethnic Fractionalization Index	Cultural Diversity Index
중국	138	0.154	0.154
일본	157	0.000	0.012
한국	158	0.010	0.004

출처: http://chartsbin.com/view/41545

▸ **충남은 국내 차원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중간 수준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실태 조사보고서(2018)에 의하면, 충청권의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정도는 전국 평균 3.88과 같은 수준을 기록. 이 수치는 영남권보다는 높으나 타 권역보다는 낮은 수치임
- 충청권 내에서 충남은 도농지역임을 감안하면 대전시, 세종시보다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추측됨

<표 2-5>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지역별)

구분	사례수(명)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100	0.5	2.2	21.2	60.9	15.3	3.88
서울	418	0.7	2.9	20.6	57.4	18.4	3.9
경기/인천	644	0.5	1.7	21.6	62.0	14.3	3.88
부산/울산/경남	325	0.3	2.2	24.9	58.8	13.8	3.84
대구/경북	207	0.5	1.0	21.3	69.1	8.2	3.84
광주/전북/전남	201	0.0	4.0	19.9	58.2	17.9	3.90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0.9	2.9	19.6	62.6	14.6	3.88
강원/제주	86	0.0	1.2	14.0	59.3	25.6	4.09

출처: 문화다양성실태조사보고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전국 2,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 **충남의 외국인주민 비중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황으로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2015년 기준, 전국 외국인주민수는 17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중 3.3%를 차지
-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83,524명으로 충남 주민 대비 외국인 비중은 전국2위 수준으로 이는 경기도 다음임.

(2) 충남의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한 방향 설정이 시급

▸ **문화 다양성은 사회혁신을 위한 양호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문화적 다양성은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자양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도시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이질적인 가치, 문화 등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는 혁신 모델이 각광받으면서 문화다양성은 도시정책에서 그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도농지역인 충남은 문화 다양성보다는 문화 개방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 필요함**

- 인종적 다양성을 촉진하여 충남을 더욱 다문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음. 물론 충남에 외국인주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려움
- 인종적 다양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문화 다양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개방성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접근이 필요. 문화 다양성은 상이한 문화를 체현하는 주체 즉 도민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문화 개방성은 도민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이해

▸ **문화 개방성이나 문화 다양성의 공통분모는 보편적 인권, 안전이므로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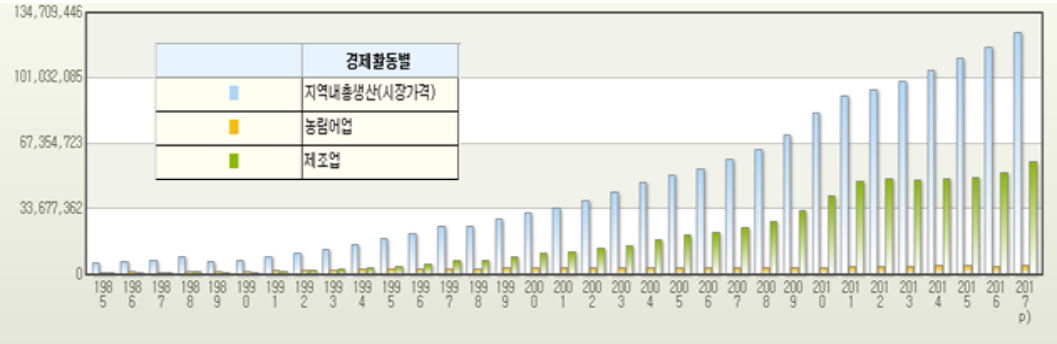
- 인종, 종교, 성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것은 개방성이나 다양성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임
- 보편적 인권, 보편적 안전은 차별받지 않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문화적 다양성이나 개방성의 수단이자 목표이기도 함

6) 환황해 시대 도래와 충남의 변화

(1) 제조업 중심의 충남경제 발전

▸ **충남 제조업의 약진**

- 충남은 1980년대 말까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음
- 1990년대 초 이래 제조업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 구가, 2009~2012년 기간 중국 내수 시장 수요 급증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
- 2017년 현재 제조업 비중은 약 46.9%로, 전국 평균 30.4%를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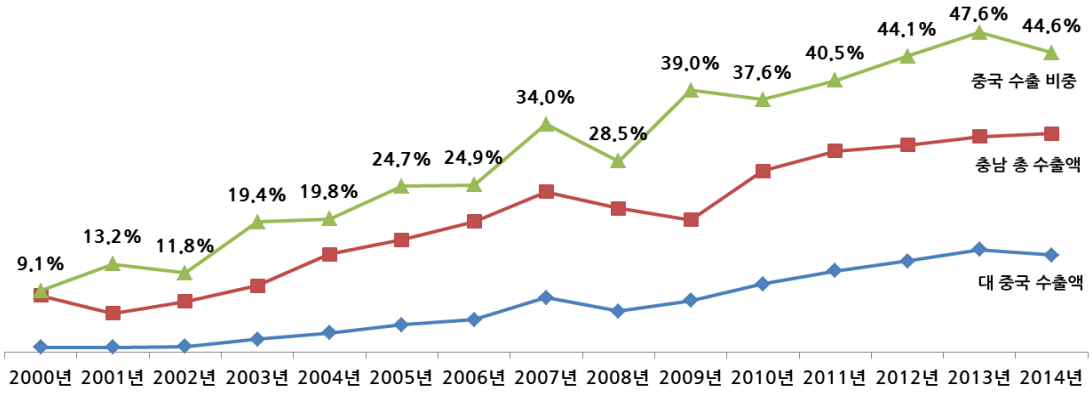


[그림 2-7] 충남경제활동별 GRDP 변화(1985-2017)

출처: 통계청 지역 소득

▸ **수출의 중국 의존도 급상승**

-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0년 9.1%에서 2013년 47.6%로 급상승함
-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중간재, 자본재임
- 2014년 이후 중국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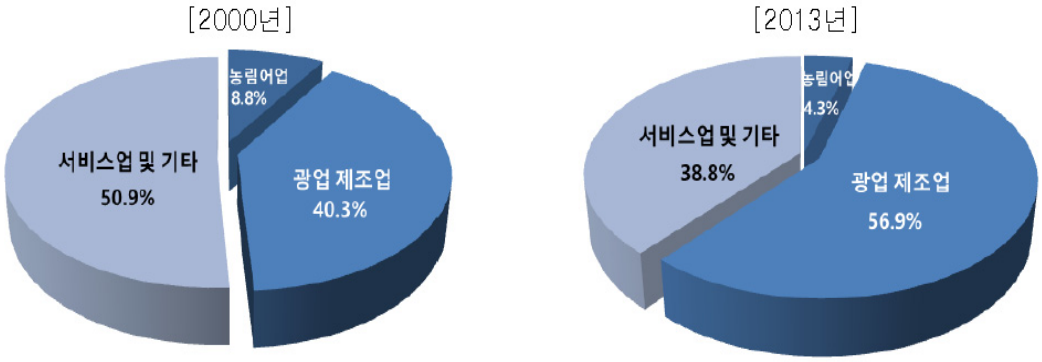


[그림 2-8] 충남의 총수출액, 대중국 수출액, 중국수출 비중(2000-2014)

출처: 충남경제비전2030

▸ 농림어업의 침체와 서비스업의 미흡

- 충남 산업구조는 2000년 제조업 비중이 40.3%에서 2012년 56.9%로 급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은 침체, 서비스업 성장은 둔화
- 제조업 중 가공조립형 제조업(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이 78.0% 점유, 생활형 제조업은 3.7%에 불과
- 제조업 비중은 울산이 70.4%로 가장 높고 충남이 56.9%로 전국 2위임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그림 2-9] 충남 산업구조 변화

(2) 중단(中短)거리 교역으로 중심 이동

▸ 우리나라 무역교역국이 북미에서 중국으로 이동

- 1995년에는 미국이 교역국 1위였으나 2018년에는 중국이 1위
- 2010년대에는 베트남이 주요 무역국으로 급부상함

<표 2-6> 우리나라 무역교역국 순위비교

무역교역국 순위	1995년	2005년	2015년	2018년
1	미국(19.3)	중국(21.8)	중국(26.0)	중국(27.0)
2	일본(13.6)	미국(14.5)	미국(13.3)	미국(11.9)
3	홍콩(8.5)	일본(8.4)	홍콩(5.8)	베트남(8.0)
4	중국(7.3)	홍콩(5.5)	베트남(5.3)	홍콩(7.7)
5	싱가폴(5.3)	대만(3.8)	일본(4.9)	일본(5.1)

* ( )는 무역비중

▸ 항공편수도 원거리 교통보다 중단거리 교통이 상대적 급증

- 2007~2017년 기간 미주, 유럽 노선편수의 증가율은 일본, 중국, 동남아 증가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 특히 운행편수에 있어서는 동남아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7> 지역별 항공편수 비교(2007년, 2017년 각년도)

연도	2007년			2017년		
지역	도착편수	출발편수	총계	도착편수	출발편수	총계
일본	24,598	24,564	49,162	56,419	56,439	112,858
중국	41,111	41,482	82,593	53,128	53,545	106,673 (135,515)*
동남아	23,318	23,287	46,605	56,941	57,008	113,949
미주	14,516	14,779	29,295	17,123	16,344	33,467
유럽	9,379	9,152	18,531	14,378	14,319	28,697

*주: ( )는 2016년 수치임. 2017년 수치는 사드 영향에 의한 교란 있음

▸ 항구별 물동량 변화에 있어서도 서해안 항구의 성장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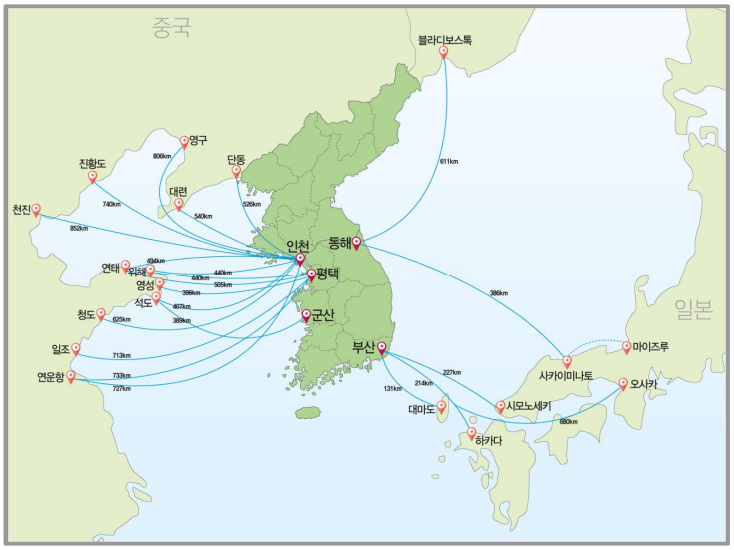
- 2012-2016년 기간 국가급 항만인 부산항, 광양항을 제외하면 서해안의 항구들의 물동량 증가가 매우 높음. 목포항, 대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의 증가율은 울산, 포항, 동해묵호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서해안 항구 중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음
- 충남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당진항, 대산항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2-8> 주요 항구별 물동량 변화 추이(2012-2016)

구분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대비	2012년대비 증가율
합 계	순위	1,339	1,359	1,416	1,463	1,502	(%)	(%)
부 산	1	312	325	347	360	363	24	16
광 양	2	237	240	253	272	277	18	17
울 산	3	197	191	192	191	198	13	0
인 천	4	143	146	150	158	161	11	12
평택·당진	5	101	109	117	112	113	8	12
대산	6	70	69	73	79	86	6	22
포항	7	62	62	65	62	62	4	0
동해·묵호	8	31	32	33	31	32	2	4
목포	9	16	20	23	22	23	2	41
군산	10	19	19	19	18	20	1	5

출처: 한국해양수산통계연보(각 년도)

- 중국 항구와의 교역노선은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등 서해안의 항구들이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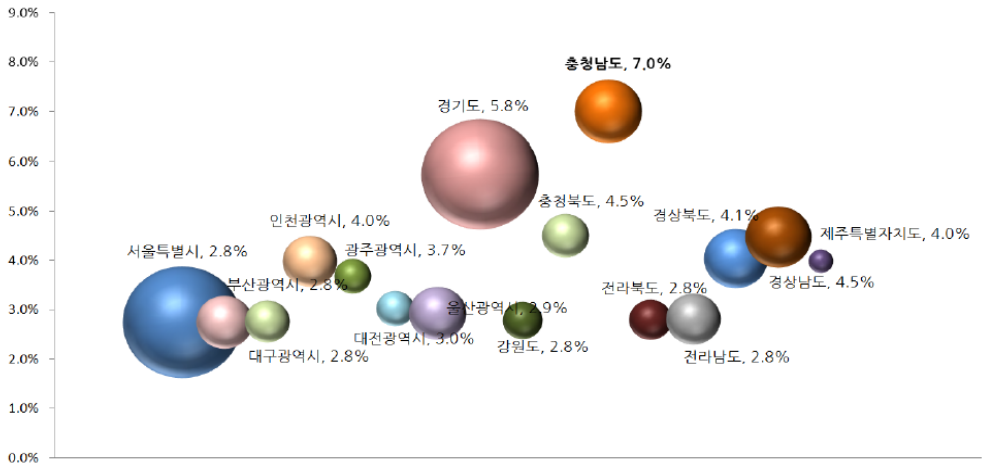


[그림 2-10] 환황해권 교역 항구노선

(3) 충남의 성장축 변화

▸ 중국과의 교역증가로 인한 국토 성장축의 서북향 이동

- 서해안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동해안 지역을 상회하고 있으며, 남쪽 지역(호남, 영남)보다 수도권, 충청권 등 북부권의 발전이 더 빠름



[그림 2-11] 전국 각 시도별 경제성장률 및 경제규모 도해(2000-2013년 평균)
출처: 충남경제비전2030

- 2000-2013년 기간 경기도, 충남, 충북이 타 광역시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구가

※ 한편 역대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지역혁신도시정책은 이러한 성장축의 서북향화에 대해 동남향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2-12] 1990년대 이후 국토 성장축의 이동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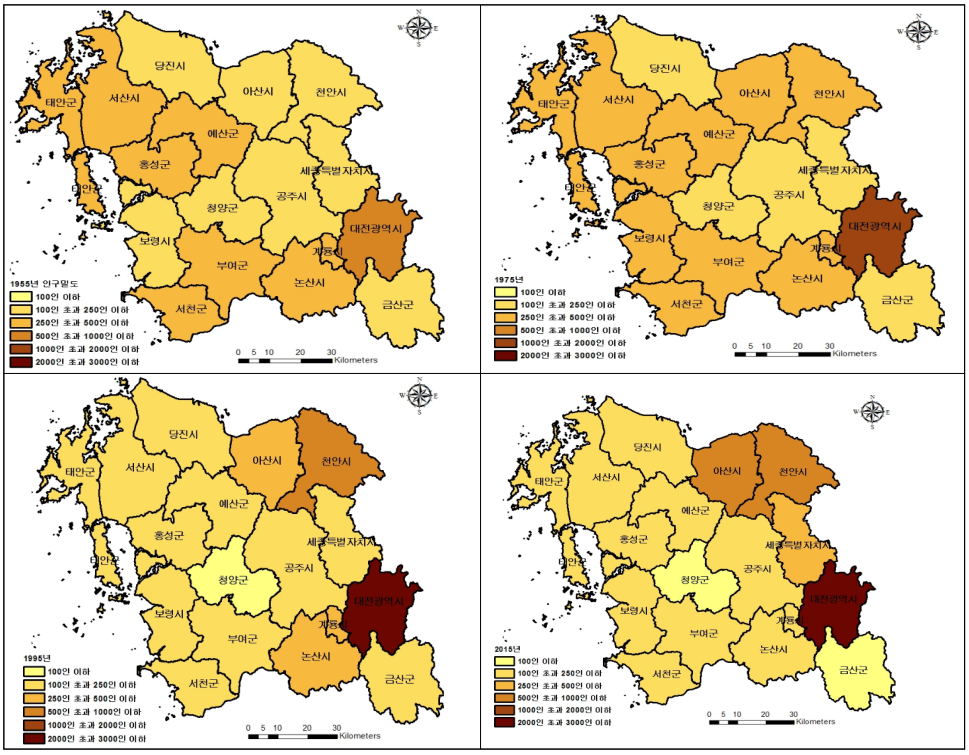
▸ 충남 내부의 성장축은 “1”자에서 “ㄱ"자로 변화

- 1980년대 까지 충남의 성장축은 대전-천안을 축으로 하는 경부축이 발전의 중심을 형성하였음
- 1990년대 이후 아산만권의 집중 개발에 따라 천안-아산-당진-서산을 잇는 북부권이 발전, “ㄱ”자 발전축 형성
- 향후 서해안을 관통하는 남북교통의 발달에 따라 대전-천안-서산-보령을 잇는 “ㅁ”자형 교통축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충남 시군별 인구밀도를 통해 본 충남의 성장 축 변천(1955~2015)]

1955년 인구밀도분포를 보면 충남의 인구는 주로 해안과 금강 유역을 따라 분포하는 “ㄴ"자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1995년에 이르면 대전과 천안이 중심이 되는 ”ㅣ"자 구조를 보였고, 2015년에 이르면 기존의 경부 축에 더해 아산, 당진으로 이어지는 “ㄱ”자 구조를 보인다. 1955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정반대의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는 1955년에는 해안과 강 유역의 옥토를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하는 지역에 도민이 밀집하여 거주했음을 의미한다. 즉 부존자원형 인구밀집을 보였다. 또한 해안과 강을 이용한 교통이 제법 큰 역할을 차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1995년에 이르면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 등 경부축과 그 인근 지역의 인구밀도가 커졌으며 이는 발달축이 부존자원형이 아니라 대도시로의 접근성 중심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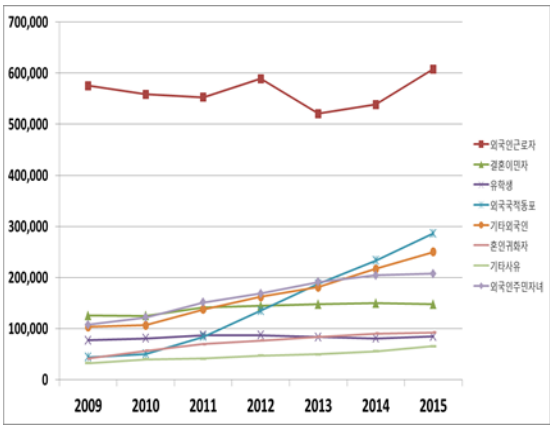
그러면 향후에 충남의 성장축은 어떻게 진화할까? 서해안복선전철(경기 고양~충남 홍성), 제2서해안고속도로(경기 평택~충남 부여) 등의 개통을 주요 계기로 당진, 예산, 홍성, 보령을 관통하는 서해안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남의 발전축은 기존의 경부축, 북부축과 서해안축이 이어져 “ㅁ” 자 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충남의 미래 2040: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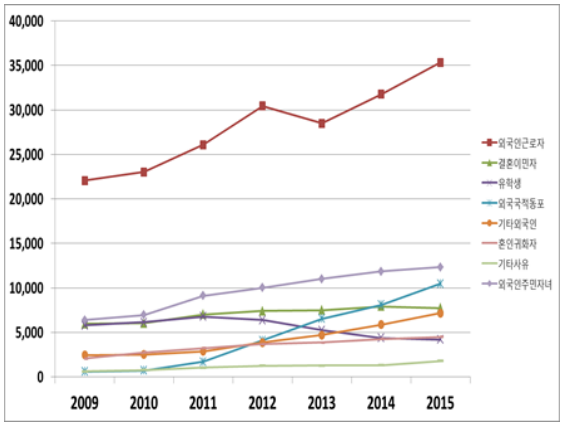
(4) 외국인 주민, 관광객 급증

▸ 2000년 기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 급증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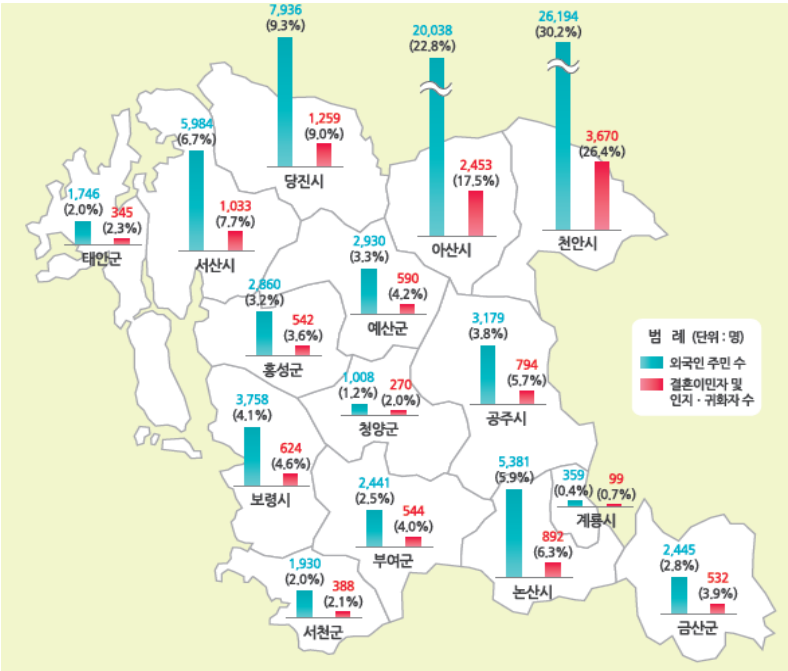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전국 외국인주민 비중은 3.39%, 충남은 4.05%
- 주민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경기도에 이어 충남이 2위를 기록
-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아산시, 천안시 등 공업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음



한국의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2009-2015)



충남의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2009-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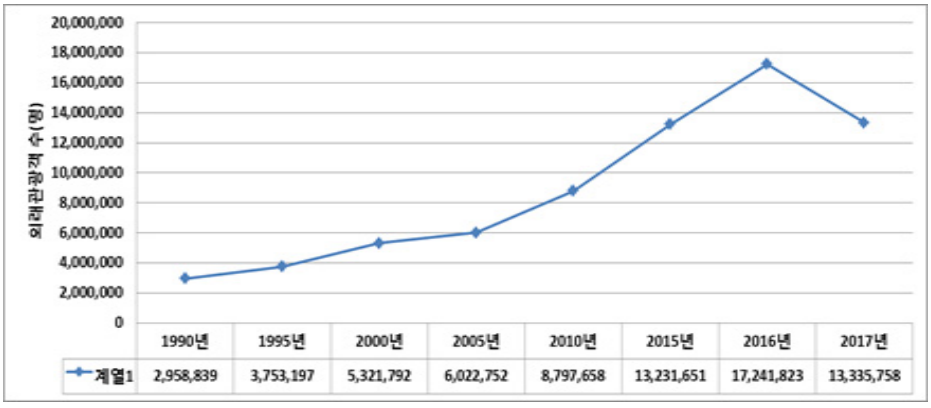
[그림 2-13] 충남의 시군별 외국인주민 분포(2015년)

출처: 충남연구원 인포그래픽(2017.11.13.)

▸ 전국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폭증하나 충남은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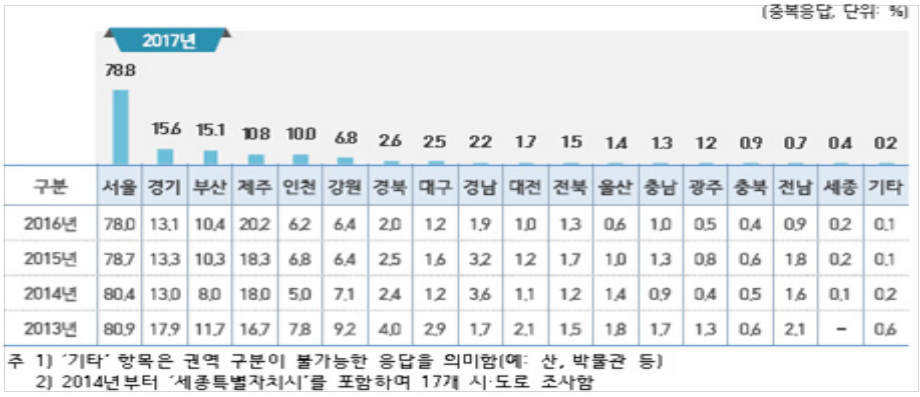
-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은 1990년에 300만 명 수준에서 2016년 1,73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가장 큰 증가요인이며, 일본, 동남아 순임
- 충남은 2017년 현재 전체 외국인관광객의 1.3%만이 충남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국 13위에 해당함

※ 내국인관광객수는 충남이 전국 3위 수준이나, 외국인관광객은 전국 최하위 3위 수준으로 내국인관광객과 외국인관광객 규모의 비대칭이 두드러짐



[그림 2-14] 우리나라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이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2-15]] 충남 외국인관광객 변화 추이

출처: 2017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환황해권 교류협력 동향

1) 환황해권 교류협력 현황

- 환황해권에서 지역 차원에서 1990년대 이래로 다양한 교류협력을 위한 모임과 조직이 구성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모임과 조직은 크게 다자간 협의체와 양자 간 협의체로 구분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리적 인접성 또는 지리적 공유성을 갖고 있음

(1) 지역 차원 다자간 협의체 현황

▸ 지역 차원 다자간 협의체는 주로 시도 수준 자치단체장의 회합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한국의 광역시도, 중국의 성, 일본의 도도부현 차원에서 다자간 협의체가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한일해협 시도현지사협의회, 동북아시아지방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한일해협 시도현지사협의회는 한일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한국과 일본 지자체, 동북아시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원칙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속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동아시아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는 주로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협의체임

▸ 지역 차원 다자간 협의체는 자치단체장의 회합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이들 협의체는 총회, 포럼 등 행사 위주로 진행되며 실질적 협력은 부족한 편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지방자치단체연합의 경우에도 사무국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분과활동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됨
- 이에 따라 모임을 주도하는 지방정부 수장의 의지에 따라 활성화와 침체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9> 환황해권 지역 차원 다자간 협의체 현황

구분	한일해협시도현지사협의회	동북아시아지방자치단체연합	환동해권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 (현 동아시아지방정부지사성장회의)
설립년도	1993년	1996년	1994년
설립목적	•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상호교류를 위해 매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간 교류활성화 및 결속강화,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 환동해권 관광과 무역의 운송 네트워크 구축
회원구성	• 한국: 부산, 경남, 전남도, 제주 • 일본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의 77개 광역자치단체 회원, 5개 옵서버 자치단체, 3개 국제지역협력기구(AER, R20, ICLEI), 지역의 전문연구소	• 한국 : 강원도 • 중국 : 길림성 • 일본 : 돗토리현 • 러시아 : 연해주 • 몽골 : 중앙동
주요활동	• 지사교류회의, 수산, 경제교류, 관광사업 • 공동연, 지역진흥단체 교류지원사업, 방재, 과기, 친환경농업 • 청소년교류, 주민친선 이벤트, 지역전통공예 교류	• 경제인문교류, 교육문화교류, 환경분과, 방재분과, 변경협력분과, 과학기술분과, 관광분과 등 12개 분과	• 관광촉진협의회 • 경제협의회

(2) 지역 차원 양자 간 교류협력

▸ **지역 차원의 양자간 교류협력은 전통적 자매결연 방식을 주를 이루고 있음**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자매결연, 우호협력 지역을 두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관례로 정착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자매결연,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다만, 자매결연의 실효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최근에는 전통적 자매결연 이외에 FTA지방 협력이 힘을 얻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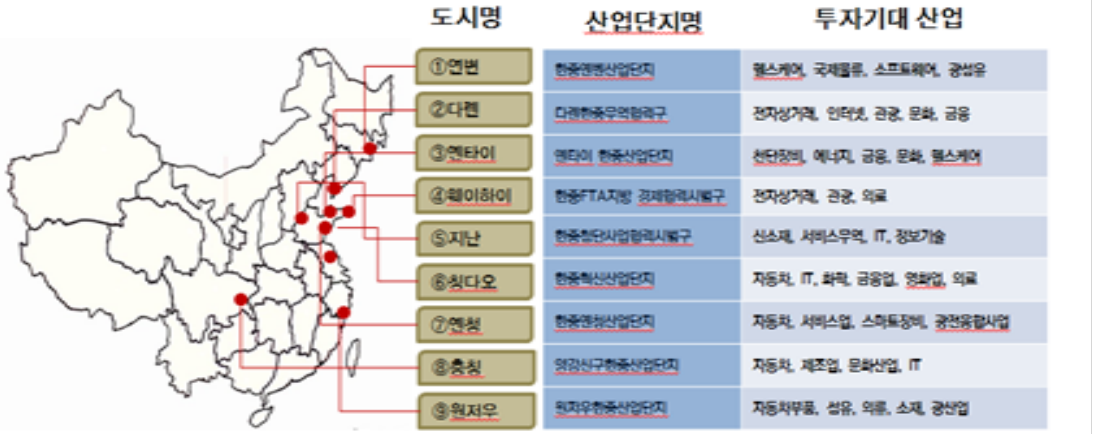
- 산업 협력은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정부 관여가 불가피함
- FTA는 정부 차원에서 체결하는 것인바,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FTA지방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는 주로 자유경제구역(인천, 새만금)이 지방협력 주체임

[한중 FTA에 따른 도시 간 협력 강화]

▸ 한중 FTA지방협력시범구 및 한중산업단지 추진 현황

구분	체결 주체	체결연도	주요 협력산업 분야
한중FTA지방협력 시범구	인천FEZ- 산동성웨이하이	2016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한중산업단지	산동성 옌타이	미정	첨단장비, 에너지, 금융, 문화, 헬스케어
	쟝수성 옌청	미정	자동차, IT,화학, 금융,영화, 의료
	광둥성 후이저우	미정	자동차부품, 섬유, 의료, 소재, 광산

▸ 중국 내 한중협력산업단지 추진 현황도



자료: 중국언론종합, 아주경제(2015), 재구성

2) 한중일 지방정부의 환황해권 소속감 인식

(1)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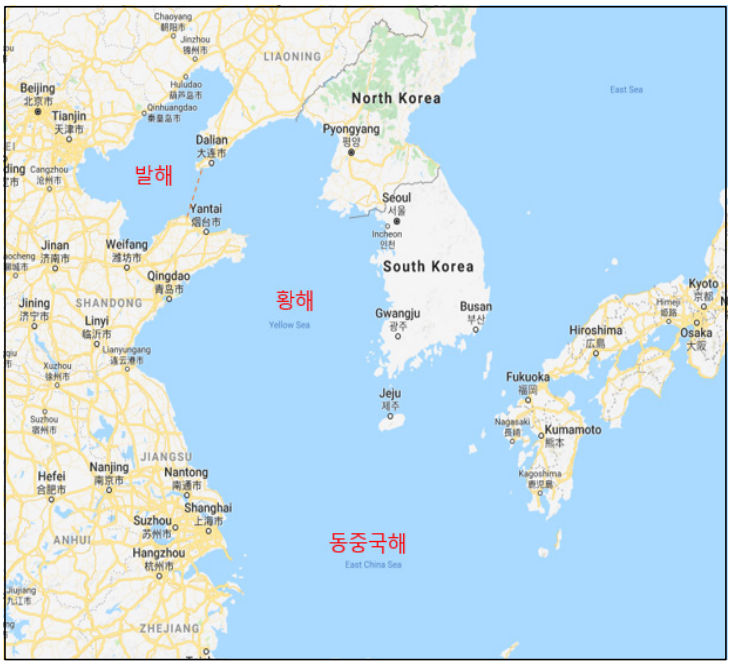
▸ **중국 지방정부는 발해를 황해와 구분하고 있으며, 발해를 내해로 인식**

- 중국 지방정부는 발해와 황해가 이어져 있기는 하나 엄격히 구분되는 바다로 인식하고 있음. 즉 중국 지방정부는 발해를 황해와 별도로 인식하고 있음

※중국인은 발해와 황해의 구분선은 랴오닝성 따롄에서 산둥성 평라이를 잇는 선이며, 안쪽을 발해, 바깥쪽을 황해로 인식함. 이에 따라 발해권에 위치해 있는 톈진, 베이징, 허베이성은 자신이 환황해권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큼

▸ **일본 큐슈 지방정부는 황해와 동중국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환황해권에 속하는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음**

- 일본은 큐슈 협의체 수준은 자신이 환황해권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강하게 보이나, 현 수준에서는 보통 수준임
- 현 정부 수준에서는 황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구분도 분명하지 않음. 오히려 한일해협을 두고 한국의 지방정부와 마주하고 있다는 인식은 강함



[그림 2-16] 환황해권 범위

▸ **대다수 한국의 지방정부는 발해를 황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환황해와 동중국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상황임**

(2) 단계별 접근전략 수립 필요

▸ **현재 환황해권 관련 한중일 지방정부의 정체성이 약한 상황임**

- 환황해권 지리적 범위, 소속감에서 한중일 3국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황해라는 바다를 공통분모로 하는 환황해권의 설정을 위한 공감대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0> 한중일 지방정부의 환황해권 소속감·인식·중점 교류지역

구분	중국 지방정부 (허베이,산동)	한국 지방정부 (충남)	일본 지방정부 (후쿠오카, 나가사키)
'황해' 범위 인식	• 황해와 발해를 구분 • 발해를 내해로 인식	• 황해와 발해를 포함	• 황해와 발해 구분 불명
환황해 소속감	• 허베이 약함 • 산동 강함	• 강함	• 큐슈협의체 수준에서 강함 • 각 현 수준에서보통
중점 교류지역	• 한국 서해안 지역 • 일본 지역은 약함	• 중국 해안지역 • 일본 약함	• 중국 홍콩, 상하이 지역 • 한국 한일해협 지역

▸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전략 수립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을 요함**

- 환황해권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충남이 환황해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가령, 충남이 장기적으로 일본 큐슈와 산동 이북을 연결하는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의 항구, 항만 노선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환황해권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긴요. 가령, 고령화, 청년실업해소, 해양 환경오염 등이 있음

3)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중점분야의 차이

(1) 국가별로 지방 교류협력 중점 분야 상이

- ▸ 중국 지방정부는 교류협력에 있어서 투자유치가 가장 큰 관심사임
- ▸ 일본 지방정부는 관광객 유치, 특산물 수출, 환경협력 등을 강조함
- ▸ 한국 지방정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투자유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2) 중점 분야 차이의 주요인

- ▸ 중점 분야의 차이는 발전단계 및 지방분권 정도에서 비롯됨
  - 발전 단계에 있어서, 경제 및 사회 전반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으며, 중국이 가장 뒤쳐져 있고 한국이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은 1990년대 이전부터 자본순수출국이 되었고, 한국은 2000년대, 중국은 2015년부터 자본순수출국이 됨
  - 한중일 3국 모두 핵심 산업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취약한 상황으로, 제도적 자원은 정부가, 의사결정권은 민간기업이 보유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에 한계가 있음

※ 중국이 최근 지방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3) 수소에너지와 같은 환경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 ▸ 최근 큐슈지역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로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것임
  - 일본정부의 수소사회 진입 전략에 발맞추어 지역 정책 추진 중
  - 환황해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확산 중이며 이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됨
- ▸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관련 국가 차원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중임
  - 미세먼지는 현재 한중 양국의 공통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음
  - 현재 공동표준에 의한 공동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지방정부의 참여 가능성이 있음

3. 충남 지방외교 성과와 한계

1) 충남 지방외교의 변천 및 현황

(1) 충남 지방외교의 변천

▸ 1991년 이래 충남의 지방외교는 3단계를 거치고 있음

- 지방 국제교류의 주체 및 국제교류관계 형성(90년대 초반), 통상 중심 교류(90년대 후반-2010년대 중반)를 거쳐 국제무대에서 충남의 존재감을 드러낸 현재 단계에 이름

<표 2-11> 충남 지방외교의 시기별 변천

시기	1991-1997년	1998-2014년	2015-현재
특징	지방 국제교류의 주체 형성 및 국제교류관계 형성	외국인투자유치, 관광객유치 등 통상 중심의 국제교류 수행	충남의 상황을 기초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냄
주요 사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정	2015년 제1회 환황해포럼 개최

▸ 일상적 국제교류협력과 환황해포럼 등 포럼 외교를 두 축으로 함

▸ 1991년 이래 충남도 국제교류협력은 친선, 통상지원 등을 위주로 이루어 짐

- 1990년대 초중반의 친선 중심의 외교로 시작하여 97년 IMF, 98년 외국인통상촉진법 제정 이후 통상 중심의 외교로 전환
- 지방외교의 주무부서가 협력실에서 통상실(과)로 이동
- 현재 충남도의 통상외교는 기업통상교류과가 수행 중이며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국제교류 등을 주요 업무로 함

▸ 통상적 국제교류와는 별도로 포럼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한 포럼 외교가 활발함

- 2015년을 기점으로 '환황해 포럼', '동아시아3농포럼'을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환황해권 도지사협의회가 침체한 상황에서 돌파구 역할을 수행
- 단, 이러한 포럼이 글로벌화 전략에 의한 수행보다는 각 부서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

(2) 충남 지방외교 현황

- 도는 13개국 28개 지역, 시·군은 17개국 88개 지역과 우호·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비중 큰 편
- 우호·자매결연 관계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남은 우호·자매결연 수 많아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크나, 교류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교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

[그림 2-17] 충남도, 시·시군 국제교류 현황(2017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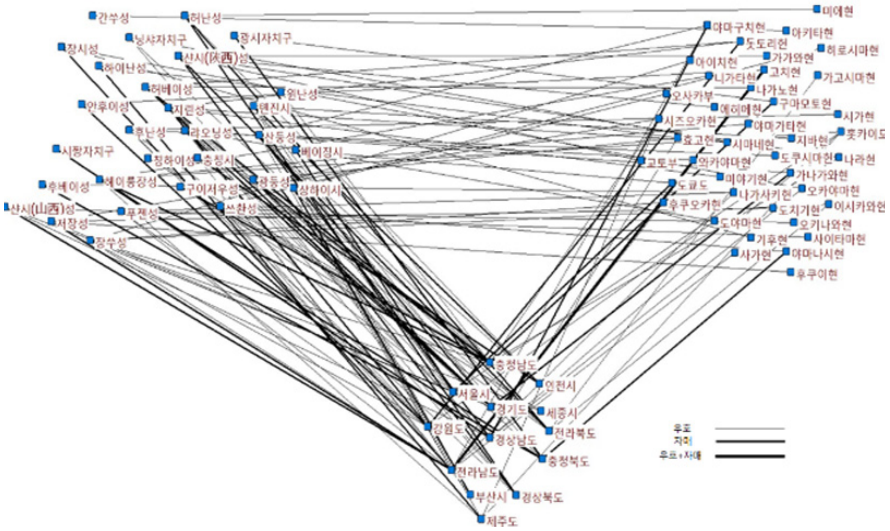
출처: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순위	1	2	3	3	5	5	7	8	9	10
지역(한국)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서울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중심성	0.057143	0.054286	0.037143		0.03429		0.028571	0.025714	0.02	0.017143

순위	1	1	3	4	4	6	6	8	8	10
지역(중국)	산둥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후베이성	상하이시	라오닝성	톈진시	허베이성	허난성
중심성	0.031429		0.025714	0.022857		0.02		0.017143		

순위	1	1	1	1	5	5	5	5	5	5
지역(일본)	고치현	도쿠시마현	야마구치현	홋카이도	시즈오카현	도쿄도	나가사키현	야마나시현	효고현	구마모토현
중심성	0.011429				0.008571					

[그림 2-18] 한중일 지방정부 자매결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2017년 12월말, 광역지자체 기준)



[그림 2-19] 한·중·일 지방정부 자매결연 네트워크
(2017년 12월말, 광역지자체 기준)

(3) 충남 국제교류협력 기반: 공공외교 체계의 형성

▸ **도와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점차 심화**

- 도 국제교류협력 전담부서의 안정화가 이뤄지고 관련 경험이 축적되고 있으며, 시군의 국제교류협력 전담 인력도 증가 추세임

▸ **환황해포럼, 3농포럼,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탈석탄 포럼 등 포럼 외교 본격화**

- 인적교류가 콘텐츠 교류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됨
- 상기 포럼들이 충남의 대외 인지도 제고에 상당 부문 기여

▸ **교류협력 지역이 증가**

- 교류 초기 구미 중심에서 중국, 일본으로 집중되는 현상 발생
- 향후 북한,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확대 가능성 농후

(4) 충남 국제교류협력 기반: 산업경제 및 대외교역 인프라

▸ **농수산업, 소비재 경공업, 관광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 중간재, 자본재 편중 수출 구조의 한계를 인식
- 중국 등 중산층 증가로 인한 친환경 식품, 음식료산업, 관광수요 증가가 주는 기회를 포착할 필요

▸ **충남 관광산업의 비대칭 문제 인식 확산**

- 내국인관광객 전국3위이나 외국인 관광객은 하위 3위, 이미지는 백제이나 여행지는 서해안, 공공부문 절박성 높으나 민간부문은 낮음 이라는 3대 비대칭 문제 해결 필요
- 충남관광진흥전문기구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충남 관광업의 도약을 위한 분위기 성숙해짐

▸ **대산항, 해미공항 등 충남의 대외 관문 개통 초읽기**

- 대산항과 산동성 롱엔항의 여객선 운항 준비 중
- 해미공항 민항기 취항, 당진 경비행장 조성을 계획 중

2) 충남 국제교류협력의 한계 및 과제

▸ **글로벌 및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뒤쳐진 상황**

- 글로벌 외교, 중앙정부의 외교는 소프트파워 외교로 전환 중이며 공공외교는 정책외교로 전환 중
- 정부가 이미 국제무대에서 학생에서 선생으로 역할을 탈바꿈 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충남은 여전히 하드파워 외교, 통상외교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국제무대에서 충남의 참여는 타 지자체에 비해 미약한 수준**

- 2014년 기준 충남이 가입한 국제기구·회의는 2건에 불과하며 이는 광역시도 최저 수준
-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수출, 경북의 NEAR 사무국 유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 강원도의 지방외교 강화 노력과 대조적
- 환황해포럼이 탄생된 배경에는 충남 주도의 국제 파트너십이 없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였음

▸ **각종 중장기 계획의 국제협력에 대한 전략적 사고 미비**

- 수출 제조업으로 성장한 지역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남은 국제협력 마인드 취약한 편
- 국제교류협력 사업 구상에서 타국 지방정부와의 공통 이해관계 고려가 부족

▸ **기존의 외교전략 수립 시도는 전략과 실천과의 유기적 연계 미흡**

- 장기 전략 미비로 외교방향이 수장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상시 제기
- 논의된 전략도 단계별 실천과제 제시로 나아가지 못하며 표류

▸ 공공과 민간의 국제교류 역량 격차 현저

-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 부문은 자립 기반이 취약
- 특히 대학과 정부 지원 분야(스포츠, 종교 등)를 제외하면 인적, 조직적 역량 취약

3) 충남의 중장기계획 및 관련연구 검토

(1) 충남의 중장기 계획

▸ 환황해 전략 관련 중장기 계획으로는 충남경제비전 2030(2016), 충남 해양수산 발전계획(2015), 서해안 비전(2014),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2015) 등이 있음

- 이들 계획은 그 연구 대상의 지리적, 시간적 범위가 충남의 환황해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특히 충남의 내포권이 환황해 전략의 지리적 거점임을 고려하여 상기 계획들을 검토함

▸ 충남경제비전2030은 충남경제의 종합계획으로서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

-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촉진,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바닷길 조성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으로는 동아시아 문명교류길 조성, 이동철새 및 갯벌관광허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K뷰티 테마파크, 창업 및 중소기업 아시아시장 개척지원,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 등 제시

▸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은 '해양건도 충남'의 기치를 이어받아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를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함

-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국제물류·항만 거점 조성, 항만수산분야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추진과제로는 북격렬비도 어업전지기지 개발,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확충,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관광·사업 교통망 확충 등 제시

▸ 서해안비전은 '해양건도 충남'을 기치로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을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함

- '환황해권 경제권의 중심 거점'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국제물류의 거점 지대 조성,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추진과제로는 국제항 물류기반 확충, 국제항로 운항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권의 특화발전과 동반성장 등 제시하였음

▶ **내포신도시광역도시계획은 '환황해권의 선도적 신성장 도시'를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함**

- '환황해권의 선도적 신성장 도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환황해권 시대 대응 교통기반시설 구축, ICT 기반의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농어촌 6차산업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2-20] 환황해 관련 주요 중장기 계획

출처: 충남도 내부자료

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경제비전2030, 서해안 비전체계,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내포신도시권광역계획 순

(2) 관련 연구

▸ **환황해 전략 관련 선행연구로는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추진과제 발굴(2015-2016), 환황해 미래전략 연구(KAIST, 2016), 지방공공외교 3.0전략 연구(충남연구원, 2016),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연구(충남연구원, 2017) 등이 있음**

-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추진과제 발굴(2015-2016)은 사통팔달 인프라 확충, 신 해상실크로드 구축, 아시아 최고의 투자 드림랜드 조성이라는 목표와 관련 추진과제를 제안
- 환황해 미래전략연구(KAIST, 2016)는 환황해 프로젝트 전략을 미래전략의 시각에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뒤에 기대되는 환황해권의 이미지를 도출하고 관련하여 사회, 기술, 경제, 정치영역별 전략 시나리오를 도출
- 지방공공외교 3.0전략 연구(충남연구원, 2016)는 지방외교 패러다임 전환의 시각에서 충남 외교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외교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충남지방외교의 전략화, 콘텐츠의 국제화, 충남의 세력화 방안을 제시
-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충남연구원, 2017)은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라는 전을 바탕으로 비전실현을 위한 핵심전략, 주요정책, 추진체계 수립 방안을 제시

[10년 후 기대되는 환황해권 이미지]

1) 한반도 평화통일: 1국가 1체제, 자본주의 중심
2) 중국 지속성장: 2025계획 성공,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2) 한중일 중심의 초국경 평화공동체 구축
3) 한중일 1일 생활권을 실현하는 철도망
- 북경~상해~제주 1일 생활권 형성: 웨이하이- 당진, 목포-제주 해저터널
-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대마도- 부산 한일 해저터널 개통
4) 4차산업혁명의 실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융합되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
6) 한중일 동북아 지식재산 공동체 구축

구 분	번 영	공 생	평 화
미래이슈 의제화	1)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2)한중 천연가스관라인 선점 3)국제 농수산물거래소 4)동아시아 실버푸드 박람회	11)무장애 도시 상호 모니터링 교류 12)쌀 문화 페스티벌 13)환황해 오염 모니터링 14)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24)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25)대학 간 학점 상호인증
자원의 국제화	5)전통문양국제공모전 6)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7)농업6차산업안테나숍 개설 8)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15)충남 환경상 제정 16)국제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17)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남' 18)여행플래너 상호 파견	26)격렬비열도의 전략자원화 27)귀화성씨 박물관 건립 28)동아시아 낚시인 친선대회
국제무대 세력화	9)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10)특화 항만연합 결성	19)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20)환황해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 21)황해 갯벌 네트워크 구축 22)환황해 유교로드 구축 23)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29)환황해포럼 진화 30)환황해연구원 설립

[그림 2-21] 환황해 관련 주요 선행연구

출처: 충남도 내부자료
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계획, 추진과제 발굴(2015-2016), 환황해 미래전략연구(2016),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 연구(2017) 순

(3) 문제점 및 시사점

▸ **환황해 전략 관련 주요 선행연구와 중장기 계획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도출**

- 현재 충남은 글로벌 위상 변화에 천착하고 있지 않으며 충남의 일방적 이해관계를 국제관계에 투영 중
- 계획 내용이 거대 프로젝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 실천과제 모호

▸ **그러나 인식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고 활용 가능성 높은 예리한 아이디어도 도출**

- 충남의 글로벌 위상에 대한 인식이 싹텄으며 환황해 글로벌화 전략은 범충남 사안이라는 인식의 전환 도모
- 한중일 해저터널 이슈의 재인식,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 등 아이디어 도출

4) 국내외 지방외교 사례

▸ 경기, 서울, 제주, 경북, 후쿠오카, 산둥 등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브랜드 전략을 펼치며 지방외교를 추진 중

(1) 경기도 사례

▸ 경기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위한 경기비지니스센터(GBC)를 전세계에 설치

- 10개국에 13개소의 GBC를 운영 중(중국 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4곳, 일본 없음)
- 현지 전문가 고용 통한 효과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수출 지원 관련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

[그림 2-22] 충칭 경기비즈니스센터 개소식(2017.8.1)
출처: 인천일보

(2) 서울시 사례

▸ 서울은 공세적인 정책 수출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음

- 서울시 우수정책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정책을 정리하고 자료를 축적함
- ICLEI사무국 유치(2012), MITI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설치(2014) 등을 통해 정책 수출 기반을 조성
-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정책수출 위주의 지방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정책수출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모델을 제시

[그림 2-23] ICLEI동아시아본부개소식(2012.10.19)
출처: 뉴시스

(3) 제주도 사례

▸ **제주는 평화, 청정을 키워드로 하는 이미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평화재단 설립(2006)을 계기로 이미지 마케팅에 박차
-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포럼 등을 추진
- 환황해포럼을 개최하는 충남에게 참고 가치 큼

[그림 2-24] 2018 제주포럼 현장사진 (2018.6.27)
출처: 중앙 데일리

(4) 경상북도 사례

▸ **경북은 구체화된 주제, 안정된 조직을 가지고 실리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협력 허브를 위해 2005년 포항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을 유치
- NEAR에서는 비즈니스, 재난방재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시행
- 월드 그린에너지 포럼, 4차 산업혁명 국제포럼 등 미래 산업경제 분야 포럼을 운영

[그림 2-25] 2016 NEAR 국제포럼 현장사진 (2016.11.27)
출처: 경북일보

(5) 일본 후쿠오카

▸ **일본의 후쿠오카는 수소, 창업 등을 앞세워 큐슈 지역을 선도하고 글로벌 입지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임**

- 현 산하 키타큐슈시가 수소에너지를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삼고 강한 정책 드라이브 걸고 있는 중
- 현 산하 후쿠오카시는 창업과 혁신으로 큐슈 지역을 선도
- 후쿠오카현 자체보다 산하 도시들의 선도성을 받아 안는 전략이 참신하며 참고할 만함

[그림 2-26] 후쿠오카 수소스테이션 (2016.9.29.)
출처: FuelCellsWorks hompage

(6) 중국 산둥성

▸ **중국 산둥은 '해양'을 중심으로 환황해권의 대표주자로 도약하고자 함**

- 환황해권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해, 발해를 모두 접하고 있는 해양대도시 지역임
- '남색경제구 건설계획'이 국가급계획으로 비준(2011년), 중국을 대표하는 해양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함
- 올해 환황해발전연구센터를 설립, 환황해권 선두주자 지위를 확보하고자 함

[그림 2-27] 산동성 남색경제구 계획도
출처: Chinanet.com homepage

(7)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 충남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브랜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임**
  - 서울은 글로벌 도시로써, 산둥은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킴
  - 제주는 평화, 후쿠오카는 혁신 등 미래가치를 선점하여 이니셔티브 확보하고자 함
  - 한편, 경기도는 정체성보다는 실리 중심적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충남 역시 미래가치를 바탕에 둔 자신의 정체성을 이니셔티브의 핵심 콘텐츠를 구축해야 함
- **충남의 미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
  - 충남은 전형적 농촌지역에서 신흥공업지역(위성형 신산업지구)으로 발전한 바 있음
  - 이 같은 단계를 거쳐 미래 충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위성형 신산업지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가한 사례는 드문 편
  - 국내외 사례 모두 지속가능성, 환경 등을 주축으로 하며 성장,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음

4. 거시 환경 변화 분석

1) 지방외교 패러다임 변화

(1) 냉전 해체에 따른 지역의 국제 무대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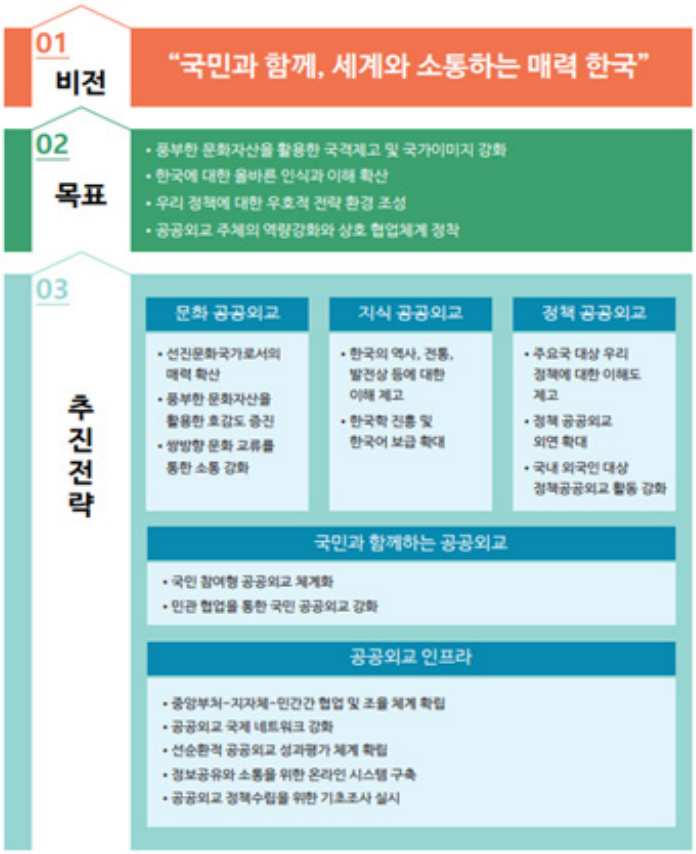
- 냉전 시기 진영 논리가 지배하던 상황에는 지방정부의 설 자리가 없었음
- 1990년 소련 해체 후 지방의 국제무대 등장이 본격화
- 지방이 중앙의 보조역이 아닌 독자적인 이해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화

(2) 지방외교의 다원화, 다양화

- 지방외교의 주체가 공공부문 일변도에서 민간 부문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음
- 지방외교의 내용도 경제교류, ODA, 인적교류 등의 방식에서 환경, 인권, 예술 등으로 다양화됨

(3)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 중시로 전환

- 1990년대까지 투자유치, 장소마케팅의 열풍이 전세계를 풍미함
- 2000년대 들어 문화, 예술, 정책 등 소프트파워가 부상
- 정부도 문화, 지식, 정책을 공공외교의 핵심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공공외교기본계획(2017-2021)〉에서 확인 가능



[그림 2-28] 공공외교 기본계획 비전 체계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2) 환황해 시대의 새로운 단계

(1) 환황해 시대는 시작단계를 지나 심화 단계로 진입

- 지리적으로 중국 중심에서 남(동남아)과 북(북한, 연해주)으로 확장
- 한중일 FTA의 실시 및 정착, 초국경 인프라의 구현이 가장 큰 특징
- 민족국가 간 긴장과 협력이 공존

<표 2-12> 환황해 시대 발전단계

구분	시작 단계(1992-2012년)	심화 단계(2013-2040년)	완성 단계(2040년이후)
단계 목표	• 역내 무역망 활성화	• 경제공동체 기반 형성	• 정치경제공동체 형성
중점 분야	• 무역 , 투자	• 제도, 초국경인프라	• 정치, 문화
주요 특징	• 한중일 분업 구조 • 한중일 무역과 투자 증가 • 민족국가 간 긴장	• 남북중일러 분업과 협업 • 한중일 경제 통합, 공간 통합 • 민족국가 간 긴장과 협력 공존	• 동아시아 전면적 산업협력 • 동북아안보협의체 출범 • 국가보다 지역의 전면 부상
주요 사건	• 한중 수교 • 중국WTO가입	• 한중일FTA, 초국경 교통망 • 북한 개혁개방	• 동아시아지역안보협정 • 지방자치의 전면화

3) 한반도 신경제 구상

(1)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황해 시대 심화 단계를 맞은 한국의 대응 전략

- 초국경 지방협력을 통한 경제 통합, 공간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전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비해 동북아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 차이

(2) 중국 성장에 대응하여 중화경제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전략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동해경제벨트와 환서해경제벨트를 구분하고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몽골, 일본, 동남아 등 과의 협력 강조
- 특히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수출교역국의 다변화를 추진 중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화경제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경제협력 대상을 다변화

[그림 2-29]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출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3) 북한 개혁개방 관련 한국의 주도권 경쟁 전략

- 중국의 '북한 속국화' 전략에 대한 대응 필요
- 한반도경제권 형성을 통해 환황해시대를 남한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5. 환황해권 미래 트렌드

1) 환황해권 인구변화

(1) 환황해권 인구 변화의 핵심은 중국의 도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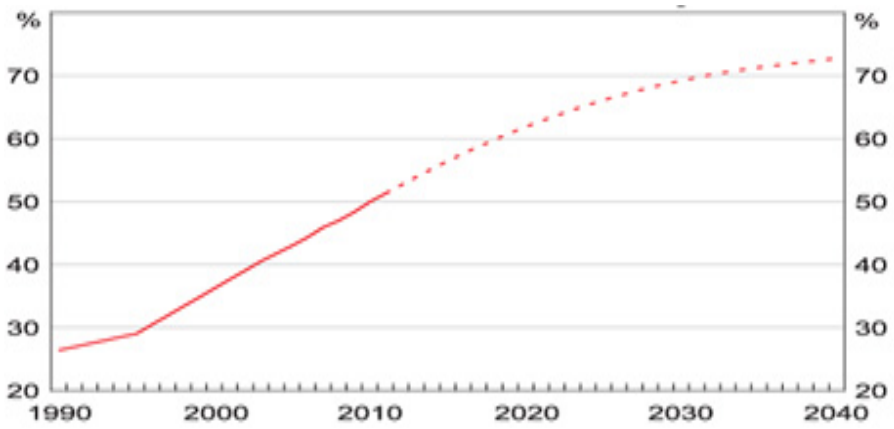
- 2015-2040년 기간 동안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20% 상승, 2.8억 명의 인구가 도시로 편입
- 특히 동부 연안 지역의 도시화율이 급증하였을 것으로 예상

<표 2-13> 한중일 인구증가 예측

(단위 : 명)

구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세 계	7,795,482	8,551,199	9,210,337	9,771,823
중 국	1,424,548	1,441,182	1,421,473	1,382,457
일 본	126,596	121,781	115,612	109,300
한 국	51,507	52,702	52,409	50,457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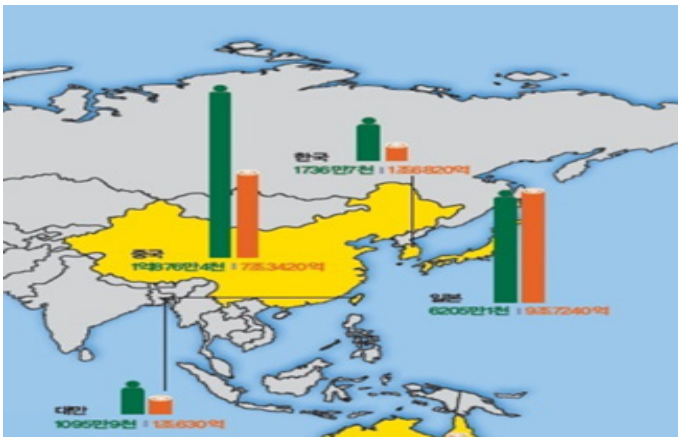


[그림 2-30] 중국의 도시화율 예측(2012-40년)

출처: Berkelmans and Wang(2012)

(2) 중산층 규모의 발빠른 성장

- 중국 중산층 규모는 1억 명(2015)에서 3억 명(2030)으로 증가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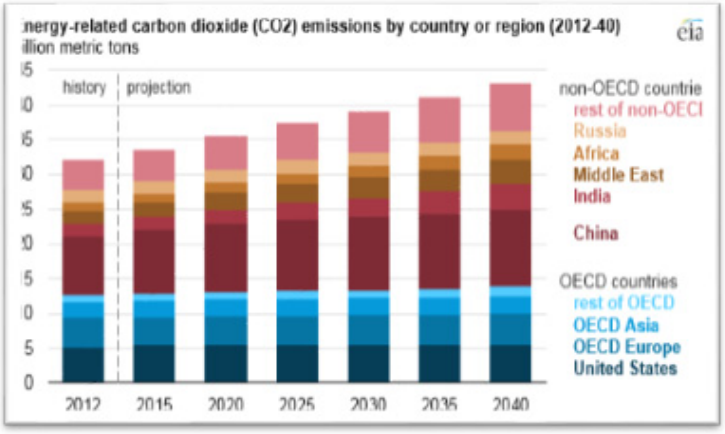


[그림 2-31] 동아시아 중산층 수와 자산 규모(2015)
출처: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

2) 환황해권 환경 악화 예상

(1) 환황해권의 환경 악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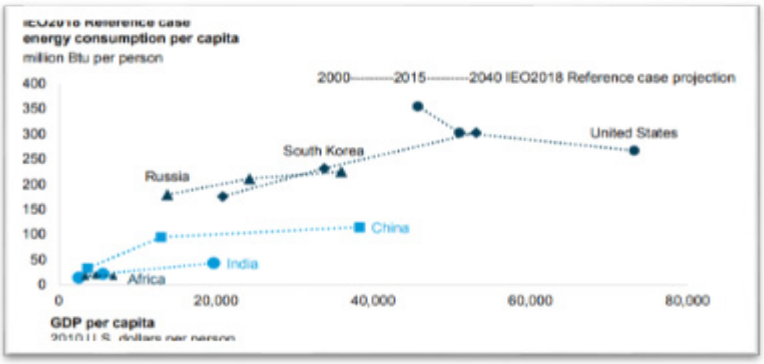
- 2010년대 이후 중국의 CO_2 배출량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중국, 북한은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



[그림 2-32] 2012-2040 전세계 CO_2 배출량 예측
출처: EIA(U.S.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 중국은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이행 중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중국보다 한국, 북한의 에너지집약도가 높을 가능성도 존재



[그림 2-33] 주요국가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에너지소비
출처: EIA China Infographic(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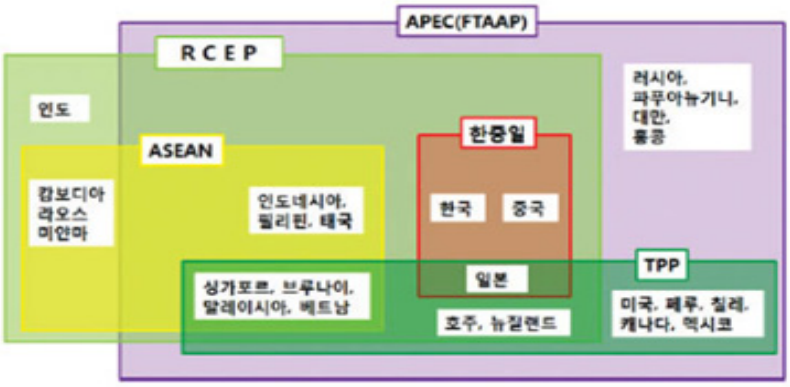
(3) 충남이 환황해의 러스트벨트(rust belt)로 전락될 가능성 존재

- 산업구조 상 중국의 주요 산업지역들과 경쟁관계 심화될 가능성 농후
-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삼남지방의 제조업 기반이 위축되고 혁신역량 부족 문제가 심화될 우려

3)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 가속화

(1) 한중일 FTA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논의 중

-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역내 시장 형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중일 FTA는 환황해경제권역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그림 2-34] 한중일 관련 FTA 구상 관계도
출처: http://m.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3

(2) 한중일 FTA는 세계 GDP의 1/3 규모시장 형성(2040년)

- 한중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이 세계 GDP 1/3규모에 달하는 통합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한중일 FTA와 타 메가FTA 경제통합규모 비교

구분	인구(백만명)		명목GDP(십억달러)		역내교역비중
	수	대세계 비중	규모	대세계 비중	
한중일 FTA	1540.0	19.9%	16,4000.0	21.2%	22%
TPP	799.0	11.4%	27,718.9	37.1%	42.3%
RCEP	3421.4	48.7%	21,646.9	29.0%	42.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35] 한중일 FTA와 타 FTA경제통합규모 비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3) 중국 시장개방, 북한의 편입이 권역 시장 형성의 관건

- 환황해 권역 내 규모 있는 소비지를 형성하는 것이 권역시장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
  - 현재 한 · 중 · 일은 모두 대 구미시장 수출국가임
- 북한의 편입은 저렴한 노동력공급기지 확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한중 FTA에 따른 도시 간 협력 강화

- 현재 웨이하이-인천 간 한중 FTA 협력시범구를 조성하였으며 산둥 옌타이, 장쑤 옌청, 광둥 후이저우, 한국 새만금 등지에 한중산업단지 조성 중

<표 2-14> 한중FTA 지방협력 시범구 및 한중산업단지 조성 현황

구분	체결 주체	체결연도	주요 협력산업 분야
한중FTA지방협력시범구	인천FEZ- 산동성 웨이하이	2016	전자상거래, 관광, 의료
한중산업단지	산동성 옌타이	미정	첨단장비, 에너지, 금융, 문화, 헬스케어
	쟝수성 옌청	미정	자동차, IT, 화학, 금융, 영화, 의료
	광둥성 후이저우	미정	자동차부품, 섬유, 의료, 소재, 광산

4) 초국경 교통네트워크의 형성과 결합

(1) 한중일의 초국경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 확대

- 한중일 3국은 일대일로 구상(중), 고품질 인프라 파트너십(일), 한반도 신경제 구상(한, 신북방·신남방정책) 등의 정책을 매개로 초국경 네트워크를 형성코자 노력 중
  - 한, 중, 일 3국의 동북아 주도권 경쟁이 점화
  - 다른 한 편으로는 상기 정책들에서 제시된 각종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전략으로 인해 국가 간 상호 결합 가능성 높아진 상황(예 : 일대일로-신북방정책)

[그림 2-36] 중몽러경제회랑과 한반도 서부축 연계
출처: 교통연구원

(2) 북한 개혁개방의 초국경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 **북한 개혁개방으로 초국경 네트워크 형성 가속도**

- 북의 개방으로 한·중, 한·러 간 연결 육로 확보
- 황해 횡단 교통로 건설도 수면으로 부상

(3) 초국경 네트워크로의 편입 필요성

▸ **충남은 이러한 거대 네트워크로의 연결이 필수적**

- 만약 해당 네트워크로의 연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항, 항만 미비가 고착화 될 가능성 우려
- 특히 항공 운수 성장이 빠른 것에 주목해야할 필요

[그림 2-37] 동북아 초국경 연결망 구상
출처: 충남도청 내부자료

6.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

1) 어떻게 충남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쾌적한 삶터로 만들것인가

(1) 충남의 내적 요구

- 충남은 기초소재, 조립가공 부문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 산업군을 형성
- 삶의질 중시로 CO_2, 미세먼지 등에 대한 주민 반발 증폭 및 고급 인재 이탈 가속화
  - 이에 따라 환황해의 "러스트벨트" 우려

(2) 환황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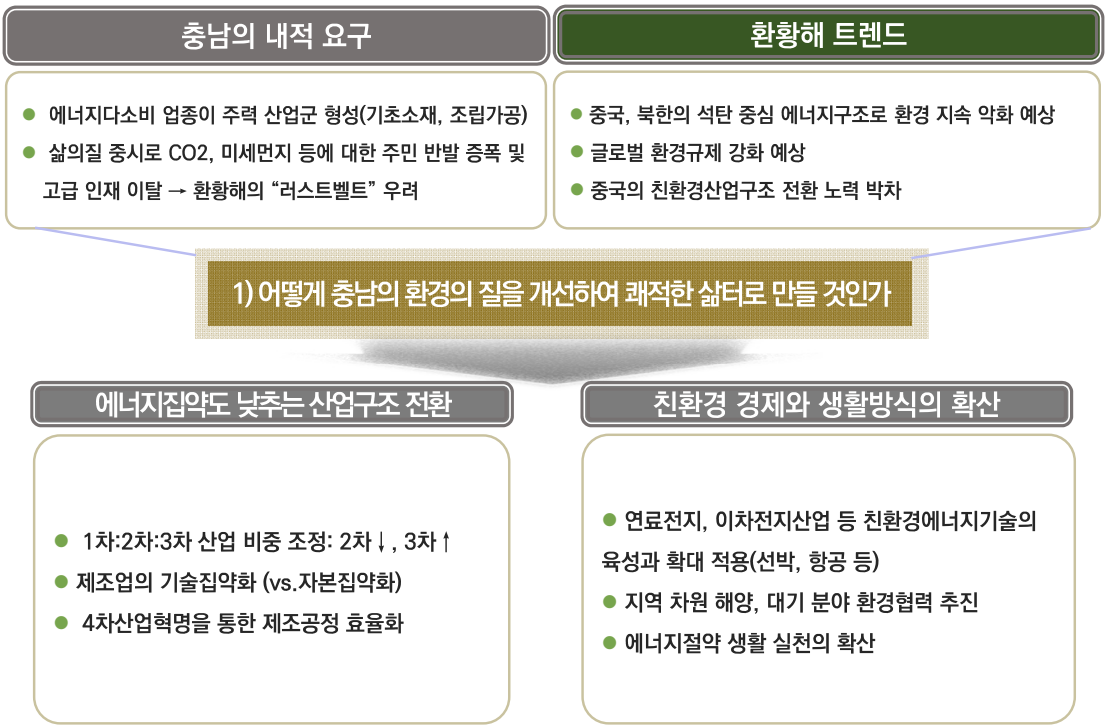
- 중국, 북한이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가짐에 따라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
- 글로벌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산업구조를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 심화

(3) 에너지 집약도 낮추는 산업구조 전환

- 1, 2, 3차 산업 중, 2차 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3차 산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
- 제조업의 자본집약화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화된 제조업을 육성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조공정의 효율화 도모

(4) 친환경 경제와 생활방식의 확산

- 연료전지, 이차전지산업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육성과 확대 적용 필요
  - 특히 선박, 항공 등 분야에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 차원에서 해양, 대기 분야의 환경협력을 추진
- 에너지 절약 생활 확산에 대한 요구 증가



[그림 2-38]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1(환경의 질 개선, 쾌적한 삶터 구축)

2) 중국 거대 중산층과 일본 고급수요층을 어떻게 충남 산업 발전으로 연계할 것인가?

(1) 충남의 내적 요구

- 충남은 중간재, 자본재 중심의 제조업 발달 지역
- 농업과 서비스업은 내수산업이라는 근본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2) 환황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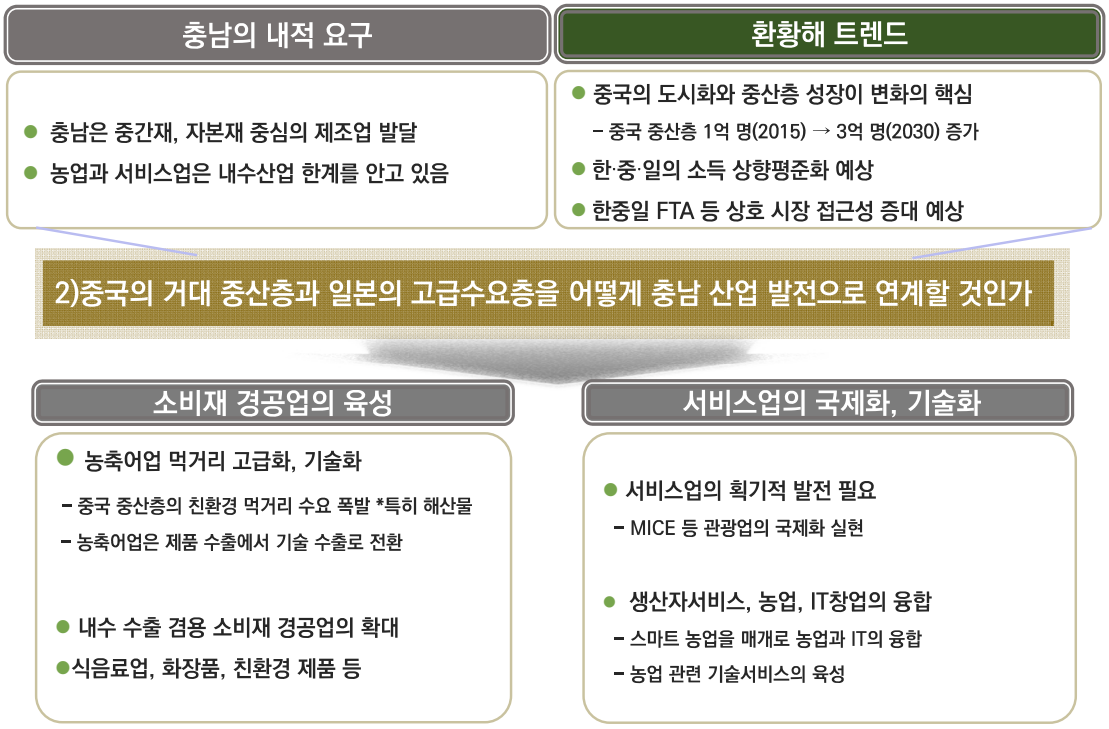
- 중국의 도시화와 중산층 성장이 변화의 핵심임
  - 2015년 1억 명 수준이었던 중국의 중산층이 2030년에는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한중일의 소득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예상
- 한중일 FTA 등을 통해 각국의 상호 시장 접근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3) 소비재 경공업의 육성

- 농축어업 먹거리의 고급화·기술화 추세
  - 중국 중산층의 친환경 먹거리 수요가 폭발 중이며, 특히 해산물에 대한 수요 폭증
  - 농축어업은 제품 수출에서 기술 수출로 구조 전환 중
- 내수 및 수출 겸용 소비재 경공업이 확대되는 추세
  - 식음료업, 화장품, 친환경 제품 등의 소비재 경공업의 산업규모 점차 확대 중

(4) 서비스업의 국제화, 기술화

- 서비스업의 획기적인 발전 필요
  - MICE 산업 등 관광업의 국제화 방안 모색 필요
- 생산자서비스, 농업, IT창업의 융합 필요
  - 스마트 농업을 매개로 농업과 IT를 융합하는 방안 감토
  - 충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육성



[그림 2-39]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2
(중국의 거대중산층, 일본의 고급 수요층을 충남 산업발전과 연계)

3) 중국 등 신흥국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충남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1) 충남의 내적 요구

- 중간재, 자본재 중심의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성격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딜레마를 겪고 있음
- 연구개발과 생산의 분리로 충남이 생산기지화 되는 현상 심화

(2) 환황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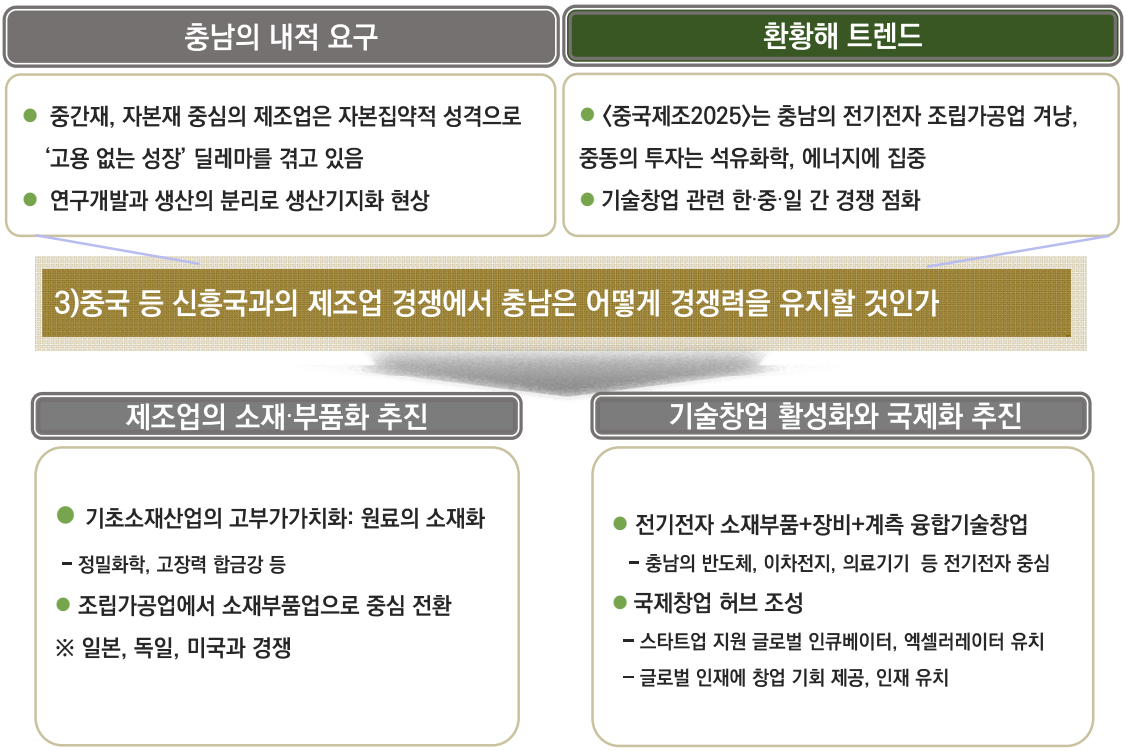
- 〈중국제조20205〉는 충남의 전기전자 조립가공업을 겨냥하는 것이며 중동의 투자는 석유화학, 에너지에 집중되고 있음
  - 2015년 1억 명 수준이었던 중국의 중산층이 2030년에는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기술창업 관련 한, 중, 일간의 경쟁이 점화된 상황

(3) 제조업의 소재·부품화 추진

- 기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정밀화학, 고장력 합금강 관련 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모색 필요
- 조립가공업에서 소재부품업으로 산업의 중심을 전환
  - 일본, 독일, 미국과의 경쟁이 필수화됨

(4) 기술창업 활성화와 국제화 추진

- 전기전자 소재부품, 장비, 계측 등을 융합한 기술창업 방안 모색
  - 충남의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 관련 제반 분야를 융합한 기술창업 방안 모색 필요
- 국제창업 허브 조성 방안 검토
  - 스타트업을 전면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유치
  - 글로벌 인재에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



[그림 2-40]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3(신흥국과의 제조업 경쟁구도에서 경쟁력 유지)

4) 충남의 미래발전에 남북경협은 어떤 전략적 의의가 있는가?

(1) 충남의 내적 요구

- 주력업종은 자본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할 가능성 큼
- 현재 충남의 중소기업은 기계, 장치 조립 및 조작 업종 등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큰 상황

  –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충남의 중소기업은 집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2) 환황해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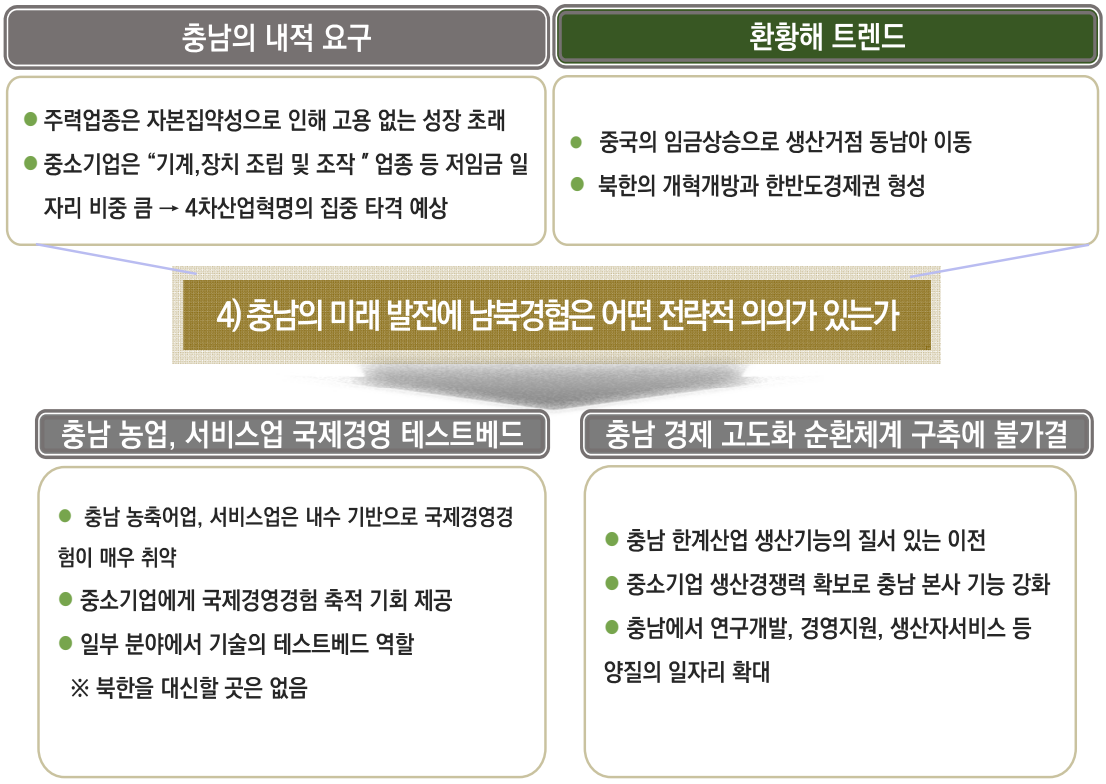
-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생산거점이 동남아로 이동 중
- 북한의 개혁개방 본격화에 따라 한반도 경제권 형성 중

(3) 충남의 농업, 서비스업분야 국제경영 테스트베드로서의 북한

- 충남 농축어업, 서비스업은 내수 기반산업으로 국제경영 경험이 매우 취약
- 중소기업에게 국제경영경험을 축적할 기회 제공
- 일부 분야에서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 상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북한을 대체할 지역이나 국가 찾기 어려운 상황

(4) 충남 경제 고도화 순환체계 구축에 불가결

- 충남 한계산업 생산기능의 질서 있는 이전 필요
- 중소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로 충남 본사 기능 강화
- 충남에서 연구개발, 경영지원, 생산자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그림 2-41]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4
(충남 미래발전을 위한 남북경협 활용 전략 도출)

5) 초국경교통네트워크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1) 충남의 내적 요구

- 환황해 중심에 위치하였다는 강점 있으나 수도권 배후지로서 자체 국제교통관문, KTX망이 미비하다는 단점 존재
- 자체 배후지가 작아서 초국경 교통망 연결에서 소외될 가능성 증가
  - 한중해저터널 조사 사례에서 보듯이 충남이 패싱될 우려 존재

(2) 환황해 트렌드

- 중국 일대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각국 초국경 교통망 건설경쟁과 연계가 가시화
- 연결점 지위 확보를 위한 경쟁 치열함
  - 중국의 경우 랴오닝과 산둥이, 국내의 경우 인천과 경기가 연결점으로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

(3) 주요 국제교통허브와의 편대화 및 특화

- 인천공항, 인천항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편대화에 대한 수요 대두
  - 남북경협으로 인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수요가 폭증될 것으로 예상
- 인천-김포-해미 공항의 편대화, 인천-평택-대산항의 편대화 및 특화 방안 모색
  - 인천-대산항 간 접근성 개선의 전제 필요

(4) 한중일 3국 간 환적 수요 창출

- 충남은 한중일 교통의 최단거리 노선에 위치
- 중국-일본 간 물류 수요를 소화하는데 있어 충남을 경유하도록 유도
- 대산-당진 고속도로, 대산항 철도 인입선 건설이 필수적

충남의 내적 요구

- 환황해 중심 위치 잠재력 있으나 수도권 배후지로서 자체 국제교통관문,KTX망 미비
- 자체 배후지가 작아서 초국경 교통망 연결에서 소외될 가능성 증가 → "충남 패싱" 우려(한중해저터널 조사 사례)

환황해 트렌드

- 중국 일대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각국 초국경교통망 건설 경쟁과 연계가 가시화
- 연결점 지위 확보 위한 경쟁 치열(랴오닝 vs. 산동, 인천 vs.경기)

5) 초국경 교통 네트워크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주요 국제교통허브와의 편대화 및 특화

- 인천공항, 인천항의 지속성장 예상 속 편대화 수요 대두
  - 남북경협으로 인해 인천공항, 인천항 수요 폭증 예상
- 인천-김포-해미 공항 편대화, 인천-평택-대산항 편대화 및 특화 모색
- 인천 – 대산항 간 접근성 개선이 전제

한중일 3국 간 환적 수요 창출

- 충남은 한중일 교통의 최단거리 노선에 위치
- 중국-일본 간 물류 수요를 충남 경유하도록 유도
- 대산~당진 고속도, 대산항 철도 인입선 건설이 필수적

[그림 2-42] 환황해권 미래 충남의 과제5
(충남이 초국경 교통네트워크에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 검토)

7. 충남의 SWOT 분석

1) SWOT 도출

(1) 강점(Strength)

- 비교적 고른 농, 공, 상 경제 기반을 가진 지역
- 환황해권 중앙에 위치하였다는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가진 지역
- 문화개방성과 관련하여 풍부한 역사적 자산을 보유
- 대외교류 협력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짐

(2) 약점(Weakness)

- 에너지 다소비 자본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
- 공항, 항만 등 대외 교류 관문의 미비
- 문화 개방성이 다소 낮은 편
- 지역의 국제 인지도 낮은 편

(3) 기회(Opportunity)

- 환황해 중산층의 형성 및 소비력이 점차 증대
- 한중일 FTA 등 경제협력공동체 기반 조성 중
- 초국경 연결 강화 추세
-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이 환황해권의 공통 의제로 부각

(4) 위협(Threat)

- 지역 간 산업 경쟁으로 인한 충남의 산업기반 위축
- 중화권 경제로의 의존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
- 충남의 수도권 말단 위상이 고착화될 우려
- 환경 분쟁 내지 재앙의 가능성 고조

[그림 2-43] 충남 교류협력의 SWOT 분석

2) 전략 선택지

(1) SO(Strength-Opportunity)전략 지향 필요

- 일반적으로 SWOT 분석을 통해 SO전략(성장전략), ST전략(안정화 전략), WO전략(역량강화 전략), WT전략(생존 전략)을 도출 가능
- 다양한 전략 선택지가 있으나, 충남의 이니셔티브는 SO전략을 지향해야 함
- 충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국제교류협력에 뒤늦게 뛰어든 상황으로 진취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함

(2) 고른 농공상 경제, 지정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역내 자유무역, 초국경 연결, 환경 의제를 적극적으로 충남의 발전기회로 연계

- 농공상 경제 기반이 비교적 고른 장점을 극대화하고 산업구성을 다변화해야 함
  - 환황해권 중산층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함
  - 이외에도 지역 친화적 농수산업, 관광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산업 구성을 다변화해야 함
- 초국경 교통망 건설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 대외교역망을 발전시키고 충남의 대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CO2 감축, 해양오염저감 등 공통 의제의 강화를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경제를 친환경 기술집약경제 전환과 연계하여, 환황해권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III. 환황해 이니셔티브 기본구상

1. 비전 수립의 착안점

1) 충남 "이니셔티브" 의 성격 규정

▸ 충남의 이니셔티브는 규모의 우위나 지배력 크기가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한 충실성과 선구성에 있음

- 〔미래 가치〕 환황해권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해야 함. 예상되는 환황해권의 환경 악화, 경제, 공간 통합에 대해 환경 보호, 문화적 개방성 등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충실성〕 정신, 문화, 경제, 공간 모든 측면에서 미래가치에 천착하고 실천해야 함. 경제, 공간뿐 아니라 정신, 문화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미래가치에 충실하게 천착해야 함
- 〔선구성〕 솔선수범을 통해 환황해 협력의지를 표명하고 타 지역의 협력을 견인해야 함. 충남은 환황해 환경 악화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환황해의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질 개선과 직결됨

▸ 1500년 전 백제의 번영 역사에서 배워야 함

- 백제는 군사력, 경제력을 통해 타 지역을 지배하기 보다는 무역을 통해 공동 번영 추구하였으며, 거점 도시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타 지역의 성장을 자신의 발전 기회로 연결함
- 백제의 후예인 장보고가 당시 당나라 전성시대에 해상무역을 통해 지역의 번영을 구가한 것은 현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충남의 전략적 선택에 시사하는 바가 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지역의 번영을 모색한 모델은 수·당과 맞서며 지위 확장을 꾀한 고구려나 대륙의 분열 상황에서 지위를 높였던 고려의 발전모델과 비교하여 충남에 더욱 적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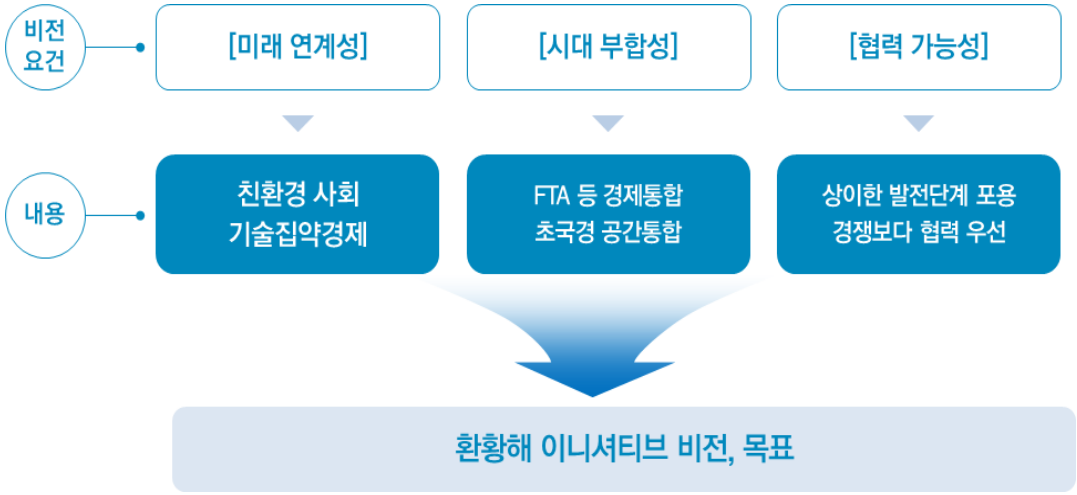
2) 이니셔티브 비전의 요건

▸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 및 목표는 미래 연계성, 현실 부합성, 협력 가능성을 충족해야 함

- 〔미래 연계성〕 충남의 미래 발전 방향과 연계되어야 하는 바, 현 에너지다소비 자본집약경제에서 친환경 기술집약경제로 전환하는 것임
  - 충남은 지난 수출제조업 중심의 발전 결과 석유화학, 철강, 대형 조립가공 플랜트,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이 다수 입지
  - 한편 대기업의 자본 요소의 투입 증대를 통한 생산 확대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이라는 자본집약성이 두드러짐

- 〔시대 부합성〕 환황해 시대 심화단계(2013-2040)의 핵심 특징인 한중일 FTA 등 경제 통합, 초국경 교통망 건설 등 공간 통합에 적극 호응해야 함
  - 경제통합, 공간 통합은 고도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향후 한중일 등 환황해권 국가들 간에 '협력 속 경쟁' 보다는 '경쟁 속 협력' 이 지배적 국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큼

- 〔협력 가능성〕 한·중·일·북·러·아세안 등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지역들이 모여 있음을 감안, 지역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가능한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함
  - 한중일 3국은 비록 경제수준의 상향평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사회발전 단계가 상이하며, 북한, 러시아, 아세안을 고려하면 각 발전단계의 편차가 더욱 커짐
  -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나라나 지역이 낮은 나라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환황해 이니셔티브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차이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



[그림 3-1]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의 요건 도해

2.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비전체계

1)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 "환황해 상생발전의 리더"

▸ 환황해 지역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접어들었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상생 발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지향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부합함

- 환황해 지역은 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와 지역들이 공존하고 있고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나, 한중일 FTA, 북한의 개혁개방, 초국경 교통망 건설 등은 지역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충남은 지역 간 공생, 평화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충남의 미래발전비전과 부합함

▸ 충남은 환황해 상생발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확립해야 함

- 충남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경제의 규모나 수준에서 타 지역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경쟁 리더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리더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함
- 경제규모, 수준 등은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충남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인 협력과 촉진을 중심으로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함

* 당초 충남의 지위와 역할을 '광장'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주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리더'로 역할을 설정함

2) 환황해 이니셔티브 목표:

>> 친환경 경제 구축, 초국경 지역 공간,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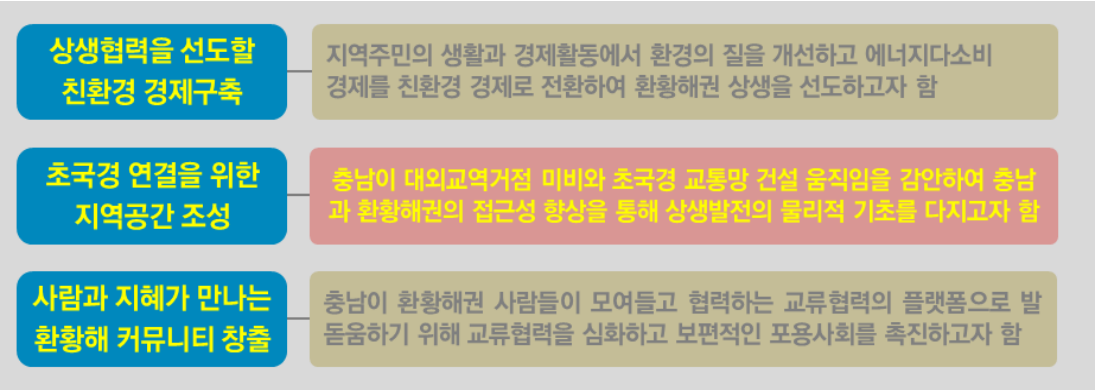
▸ 제안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40년을 기준으로 친환경 경제 구축, 초국경 지역 공간 조성,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을 3대 목표로 제시함

▸ 경제, 공간, 사회를 축으로 "환황해 상생발전의 리더" 비전을 달성할 3대 목표를 제시함

- 〔상생협력을 선도할 친환경경제 구축〕 충남도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서 환경

의 질을 개선하고 에너지다소비경제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여 환황해권 상생 선도

- 〔**초국경 연결을 위한 지역공간 조성**〕 초국경 교통망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충남과 환황해권 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환황해권 발전을 충남의 발전으로 연계
- 〔**사람과 지혜가 만나는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환황해권 사람들이 모여들고 협력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류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포용사회 촉진



[그림 3-2] 환황해이니셔티브 3대 목표 도해

3) 실현전략 및 정책사업의 준거

▸ **[친환경 경제 구축] 국제 협력, 생활 실천, 경제 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음**

- **(국제 협력)** 초국경 물질 이동 관련 환황해권 공동 협력: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 **(생활 실천)** 충남을 쾌적한 삶터로 만들기 위한 실천: 에코마일리지, 갯벌 보존 등
- **(경제구조)** 친환경 경제 구축: 친환경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소재부품산업, 공정 효율화 등

▸ **[초국경 지역 공간 조성] 은 초국경 교통 연결, 교역거점 조성을 필요로 함**

- **(초국경 교통 연결)** 충남을 환황해권 주요 지역과 직접 연결: 육로, 해운, 항공 등
- **(교역거점 조성)** 초국경 연결을 흐르는 흐름을 창출: 여객, 물류, 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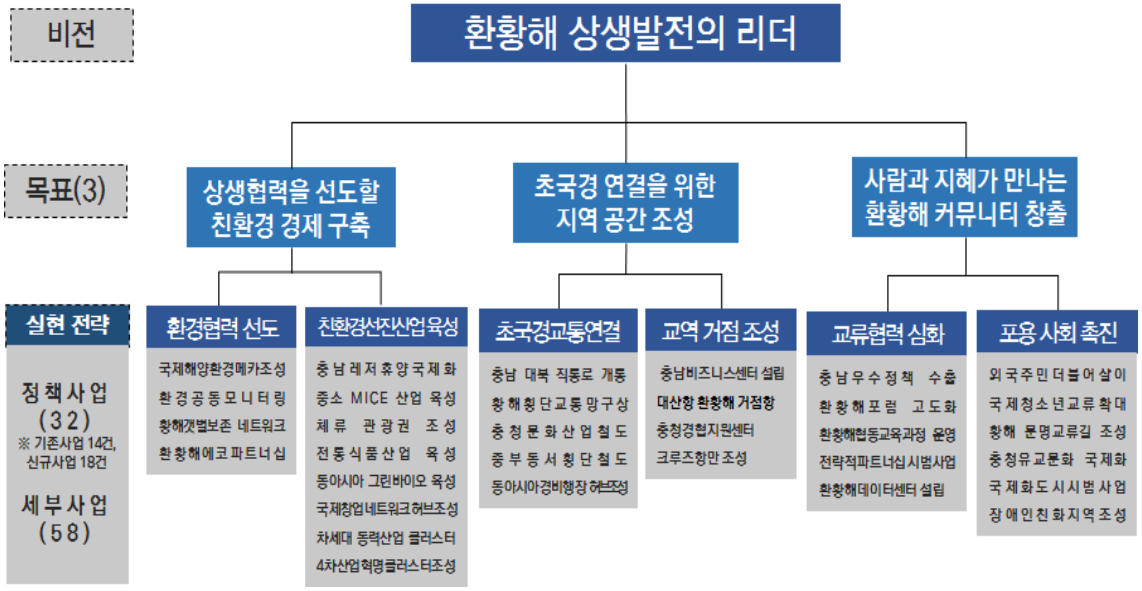
▸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을 위해서는 교류협력 심화, 포용사회 촉진을 포함

- **(교류협력 심화)** 환황해 교류협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플랫폼 마련
- **(포용사회 촉진)** 외국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싶도록 교류 기회 확대, 문화 개방성 및 인프라 구축

4) 이니셔티브 목표 지표 설정

목표	지표	목표 지표(안)	설명	출처	대체/ 유사지표
친환경 경제 구축	에너지 집약도	0.230	• 에너지집약도=최종에너지소비/GRDP 0.306(2015년) 대비 25% 감축 2017년 한국 평균 0.159	• 최종에너지소비 (지역에너지통계연감) • GRDP(통계청)	서비스업 비중
	일인당 소득	4,000만원	• 1,666만원(2016년)의 2.4배 • 4,000만원(2030년@경제비전2030)	통계청	일인당GRDP (4986만원 @2016)
	외국 관광객수	400만명	• 2016년 총 외국인관광객 1724만명, 충남 방문객 22.4만명(1.3%) • 2040년 400만명(총 4000만명의 10%) 목표	문체부 통계	전국 순위 (13@2016)
초국경 지역 공간 조성	국제관문도달 교통시간	2시간	• 충남 모든 지역에서 국제공항, 항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 2018년 기준 4시간	관측	
	국제 관문수	3개	• 대산항, 해미공항, 보령항(크루즈항)	관측	국제노선수
	대북 직통로수	2개	• 당진인천개성 고속도로, 대산항-해주항 통항	관측	대북물동량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연간 국제회의 개최 건수	200 건 이상	• 2017년 기준 충남 최하위권(10건 미만), 전국 1,297건 • 2017년 서울 688건, 부산 212건, 제주 139건	국제협회연합(UIA)	국제교류 횟수
	다문화 계층 인권존중 수준	7.0점 이상	• 2017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외국인, 결혼 이민자, 귀화자에 대한 인권 존중 수준 5점대 중반(10점 만점)	충남 사회지표	
	지(知)충남 환황해 시민수	연간 1000명	• 충남이 주최한 프로그램(회의, 연수, 파견 등)에 참여한 외국인수	도,시군 관리 자료	

5) 비전체계 도해



[그림 3-3]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체계 도해

▸ **비전체계를 비전-목표-실현전략-정책사업-세부사업으로 위계를 결정**

- (비전) 환황해 상생발전의 리더
- (목표) 3개 목표가 있으며, 상생협력을 선도할 친환경 경제 구축, 초국경 연결을 위한 지역 공간 조성, 사람과 지혜가 만나는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등임

▸ **실현전략 6가지, 정책사업 32개 사업, 세부사업은 58개 사업으로 구성**

- 정책사업은 기존사업 14건, 신규사업 18건으로 구분

* 기존사업이란 〈충남경제비전2030〉, 〈해양수산발전계획〉, 〈서해안비전〉, 〈내포신도시광역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을 의미하며, 그 외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

– **세부사업은 58건임**

▸ 정책사업 목록

목표	실현전략	구분	정책사업	성격	세부사업
1 친환경 경제 구축	환경협력 선도	1	1-1) 국제해양환경 메카 조성*	신규	국제 환경상 제정, 충남 해양환경NGO 육성, 환경오염 체험관 구상 마련
		2	1-2) 환경 공동 모니터링	신규	해양쓰레기공동조사,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3	1-3) 황해갯벌보존 네트워크 구축	기존	황해 갯벌 뉴스레터·백서 발간, 세계자연유산 지정
		4	1-4) 환황해 에코 파트너십	신규	충남형 에코마일리지 도입, 환황해 에코파트너십 결성
	친환경 선진 산업 육성	5	1-5) 충남 레저휴양 국제화	기존	지역 레저휴양 국제컨설팅, 동아시아 레저휴양페스티벌
		6	1-6) 중소 MICE산업 육성	기존	천안아산MICE산업기반구축, 서해안MICE산업기반구축
		7	1-7) 체류 관광권 조성	신규	대산항 외국인 체류 관광권조성, 체류관광권 조성
		8	1-8) 전통식품산업 육성	기존	아시아 전통식품 개발, 전통주 국제화
		9	1-9) 동아시아그린바이오산업육성	기존	농축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해양바이오 R&D 허브 조성
		10	1-10) 국제창업 네트워크 허브 조성	신규	국제창업위크,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국제창업센터 설립
		11	1-11) 차세대 동력산업클러스터 조성	신규	선박,항공기용 연료전지팩 개발실증, Mobility & Power Park 조성
		12	1-1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신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2 초국경 지역공간조성	초국경 교통 연결	13	2-1) 충남 대북 직통로 개통	신규	당진인천개성 고속도 건설, 대산항-해주항(남포항) 통항
		14	2-2) 황해횡단교통망 구상 한중 협력	신규	해저터널 기초조사, 열차/해운/항만 교통망 구상 마련
		15	2-3)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	기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16	2-4) 충청문화산업철도 추진	기존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17	2-5)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	신규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
	교역 거점 조성	18	2-6) 국외 충남비즈니스센터 설립	신규	상하이센터 설립·운영, 베이징/호치민 센터 신규 설립
		19	2-7) 대산항 환황해 거점항만 조성	기존	기반시설 확충·고도화, 항만배후단지 조성
		20	2-8) 충청경협지원센터 설립	신규	충청경협지원센터 설립
		21	2-9) 크루즈 항만 조성	기존	크루즈 터미널 조성, 항만배후단지 조성
3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교류 협력 심화	22	3-1) 충남 우수정책수출	신규	기재부KSP참여, 공무원황해연수, 충남지역정책교본 발간
		23	3-2) 환황해포럼 고도화	기존	환황해포럼 고도화
		24	3-3) 환황해협동교육과정 설치·운영	신규	환황해협동교육과정 설치운영
		25	3-4) 전략적 파트너십 시범사업	신규	전략적 파트너십 시범사업
		26	3-5)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신규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포용 사회 촉진	27	3-6) 외국인주민 더불어살이*	기존	외국주민페스티벌, 동아시아 용선축제 개최
		28	3-7) 국제 청소년교류 확대	기존	황해 청소년캠프, 청소년홈스테이
		29	3-8) 황해문명교류길 조성	기존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문명교류관 건립
		30	3-9) 충청유교문화 국제화	기존	환황해 유교센터 설립, , 충청유교국제포럼 개최, 충청유교 국제콘텐츠 개발
		31	3-10)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신규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32	3-11) 장애인 친화 지역 조성	신규	무장애통행 구축, 국제 장애인 미술체험공간 조성

6) 실현 전략별 사업

(1) 환경협력 선도

정책 사업	세부 사업	사업개요	비고*	
국제 해양환경 메카조성	국제환경상 제정	• 태안유류유출사고 관련 자원봉사정신을 기리고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해양환경상을 제정하고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한 단체(개인)를 시상	신규	국제 협력
	충남 해양NGO 육성	• 한중일 해양환경 관련 NGO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정을 통해 충남의 해양환경NGO 육성	신규	
	환경오염 체험관 구상 마련	• 대중들에게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VR, AR을 활용한 환경오염 체험관을 건립하는 구상 마련	신규	
환경공동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 지방정부와 국제NGO가 주축이 되어 해양쓰레기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신규	국제 협력
	미세먼지 모니터링	• 한중일 시민(단체)가 동일 시간, 동일 조사방식에 의거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측정하고 정보공유와 저감정책 대안 발굴	신규	국제 협력
황해갯벌 보존 네트워크	뉴스레터 백서 발간	• 황해갯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급 단체의 후원하에 뉴스레터를 발간(격월간)하고 매년 황해갯벌 백서를 발간	기존	국제 협력
	세계자연유산 지정	• UNESCO, UNESCAP 등 갯벌 보전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크와 협력으로 정보교류와 실행력 향상으로 갯벌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지정 추진	기존	국제 협력
환황해 에코 파트너십	충남형 에코마일리지 도입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일본의 에코포인트제 등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형 에코마일리지제도 도입(시 단위 우선 추진)	신규	
	환황해 에코파트너십 결성	• 에너지 절약 시민노력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간에 우수사례 교류 및 낮은 수준의 공동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에코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상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 제도 도입 추진	신규	국제 협력

(2) 친환경 선진 산업 육성

정책사업	세부 사업	사업개요	비고	
레저휴양 국제화	지역레저휴양 국제컨설팅	• 각 시군에서 지역 기반의 레저상품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국내외 컨설팅 전문가들의 지원 실시 ※ e스포츠(천안), 해변캠핑 및 서핑(태안), 백마강카누(부여), 바다낚시(홍성), 항공레저(태안), 갯벌체험(서해안 일원), 영상산업(논산, 부여), 템플스테이(공주, 서산), 재활휴양(아산), 마리나(당진, 서산) 등	기존	
	동아시아레저휴양 페스티벌	• 레저휴양 관련한 페스티벌을 한중일 지방정부가 순회 개최하도록 함	기존	국제 협력
중소MICE 산업육성	천안•아산MICE 산업 육성	• 천안아산 인근의 산업적 수요와 연계한 B2B형 MICE시설과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 위해 지역 관광, 체험 연계사업 마련	기존	
	서해안 MICE산업 육성	• 태안, 보령 지역의 대형 리조트 시설을 중심으로 관광형MICE 시설 및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기존	
체류관광권 조성	대산항외국인 체류권 조성사업	• 대산항 입국 외국인이 충남도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하고 부족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사업	신규	
	체류 관광권 조성사업	• 충남 전역을 체류 관광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필요 요소를 보완, 개선하는 사업	신규	
전통 식품산업 육성	아시아 전통식품 개발	•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고 동아시아 국가 전통을 살린 아시아 전통 떡 또는 장류 등 상품 개발	기존	국제 협력
	전통주 국제화	• 전통적 제조 방법을 고수하고 친환경 곡물을 사용한 한중일 공동 전통주 개발	기존	국제 협력
동아시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농축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 1단계에서 동물면역 관련 연구기능 유치하고 2단계에서 클러스터 조성	기존	
	해양 바이오 R&D허브 조성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R&D 기능을 확충하고 관련 기업, 대학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해양바이오 허브 조성	기존	
국제창업 네트워크 허브 조성	국제창업위크	• 창업 국제교류회, 투자자·창업자 매칭, 우수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	신규	국제 협력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 특정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발명대회 개최, 선발된 팀에 제품제작 지원, 창업 격려 분위기 조성	신규	국제 협력
	국제창업센터 설립	• 천안아산에국제창업센터를설립하고중국, 일본의파트너창업지구와네트워크를형성, 글로벌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유치	신규	국제 협력
차세대 동력산업 클러스터	선박, 항공기용 연료전지팩 개발실증	• 수리조선(당진), 경비행기 제작업체(태안, 천안 등)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책과제로 추진	신규	R&D 사업
	Mobility& Power Park 조성	• MPP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동력장치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신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재, 부품, 장비, 정밀기기 등 파생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 1단계에는 클러스터 기획, 부지 확보 및 추진체계 확립을 달성하고, 2단계에 클러스터를 조성, 3단계에는 클러스터 운영의 안정화 추진	신규	

(3) 초국경 교통 연결

정책사업	세부 사업	사업 개요	비고	
대북 직통로 개통	당진·인천·개성 고속도로	• 수도권 정체구간 거치지 않고 충청/ 전라/경상 물류가 직접 북한경제중심지로 연결하는 육로 건설	신규	
	대산항–해주항 (남포항) 통항	• 남북경협의 접경지역 집중 완화와 대산항의대북무역항 육성을 위해 남북해운합의서 개정	신규	
황해횡단 교통망 구상 한중 협력	한중 해저터널 기초조사	• 향후 해저터널 관련 논의 주도권 회복 위해 중국 산동성과 한중해저터널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경제효과에 대한 공동 조사 수행	신규	국제 협력
	열차/해운/ 항공망 구상	• 중국과 충남을 직접 연결하는 열차페리/쾌속선/소형항공 등 교통망 구상 마련 위해 충남과 중국 산동성 공동 연구 수행	신규	국제 협력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 충남 서남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발전 위해 보령–부여–공주–조치원 노선 철도 건설	기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 태안반도(대산항)를 서해안복선전철, KTX,경부선, 충북선 등과 연결하여 태안반도의 환황해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존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		• 김포 경비행장 허브 기능 포화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경비행기 관련 훈련, 정비, 물류, 여객 수요에 대응하여 태안반도 일원에 동아시아의 경비행장 허브 조성	신규	

(4) 교역 거점 조성

정책사업	세부 사업	사업 개요	비고	
국외 충남비즈니스센터 설립	상하이 센터 설립·운영	• 충남의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과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위해 주요 성장지역에 충남비지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충남경제의 글로벌화 지원	신규	
	베이징/호치민 센터 추가설치	• 동북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추가설치 및 운영		
대산항 환황해 거점항만 조성	기반시설 확충•고도화	• 다목적 선석 확대, 복합물류단지 등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항만의 경쟁력 제고	기존	
	항만배후단지 조성	• 항만의 물동량 창출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및 한중 산업 관계, 환적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존	
충청경협지원센터		• 충청권지자체가 연합하여 역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정보 공유, 남북한 인사 교육, 정책 지원 등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 설립	신규	남북 협력
크루즈 항만조성	크루즈터미널 조성	• 급증하는 크루즈여행 수요에 대응하여 보령항, 대산항을 국제 크루즈 기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크루즈터미널 조성하고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	기존	
	항만배후단지 조성	• 크루즈여행객을 겨냥한 관광자원 패키지화 및 크루즈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존	

(5) 교류협력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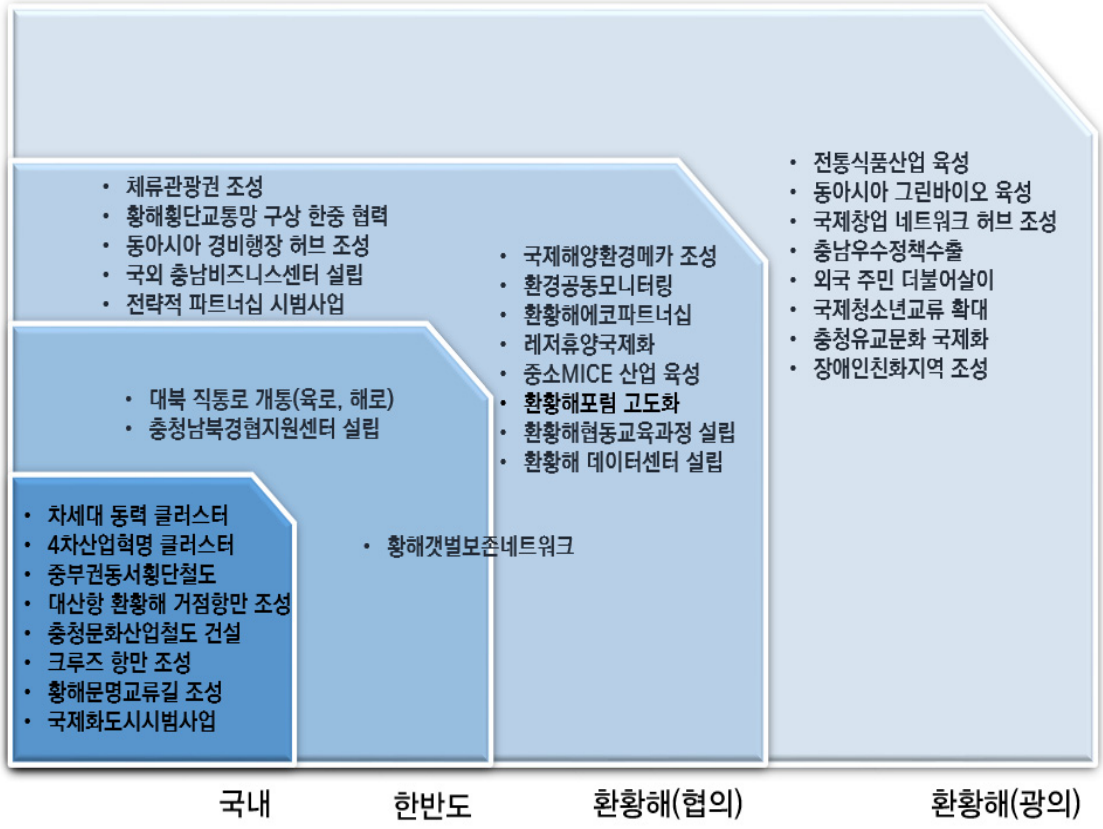
정책사업	세부 사업	사업 개요	비고	
충남 우수정책 수출	기재부KSP 참여	•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지식공유프로그램(KSP)에 참여하여 충남의 우수정책지식을 해외에 전파	신규	
	환황해 공무원 상호연수	• 중국과 일본 지방정부의 사회과학원, 거점대학 등과 협력하여 충남 도시군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향후 동 분야 외국 공무원의 충남 연수 유치	신규	국제 협력
	지역정책 교본 발간	• 정부정책과 구분되는 지역차원의 정책 영역에서 충남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사를 정리하고 교과서화	신규	
환황해포럼 고도화		• 명사 및 지자체장 위주로 구성된 세션, 지자체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정책을 시상하는 세션으로 나눠 포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중심형, 정책 공유·확산형 포럼으로서의 독자성 확립	기존	국제 협력
환황해 협동교육과정 운영		• 충남 소재 대학을 포함한 한중일 대학이 환경, 에너지, 국제경제협력 등 공통 현안사안을 중심으로 협동교육과정을 운영	신규	국제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시범사업		• 충남연과 중일 지방정부가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다각화된 협력의제를 선정한 뒤 종합적인 실천과 모니터링을 실시	신규	국제 협력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 통관데이터, 대기환경 데이터 등 공동이슈 관련 데이터 구축을 위해 충남 및 중일 지방 정책기관이 공동연구 실시하고 환황해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 중장기로는 타 기관과 공동 설립 추진	신규	국제 협력

(6) 포용사회 촉진

정책사업	세부 사업	사업 개요	비고	
외국인주민 더불어살이	외국인주민 페스티벌	• 충남 거주 외국인 주민들이 나라별로 모여 축제를 준비·개최	기존	
	용선축제 개최	• 동아시아 공통 문화인 용선축제를 동호회, 선수단, 외국인 자녀, 유학생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최	기존	
국제청소년 교류확대	황해청소년 캠프	• 충남과 중국, 일본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윤번으로 황해 청소년 캠프 개최(장기적으로 북한 청소년 포함)	기존	국제 협력
	청소년 홈스테이	• 일부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타 시군에도 확산시키고 프로그램 마련을 청소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기존	국제 협력
황해문명 교류길조성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 다양한 역사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에 근거한 건축, 음식, 의복 등을 콘텐츠화	기존	
	환황해문명 교류관 건립	• 환황해 지역의 문명교류 역사를 한눈에 보고 환황해 문명교류에서 충남이 담당한 역할을 드러내는 박물관을 문명교류 길목에 인접하여 설립	기존	
충청유교문화 국제화	환황해 유교센터 설립	• 기 추진 중인 충청유교문화원 내 충청유교 국제화를 위한 교류센터를 설치하고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총괄	기존	국제 협력
	충청유교국제포럼 개최	• 환황해권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지방정부 및 기관 참여 국제포럼 개최 및 유교연구기관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존	
	충청유교 국제콘텐츠 개발	• 충청유교기록자원(예서) 세계기록유산 추진 등재, • 환황해 유교전파 경로를 연계한 유교로드테마길 조성, 국외 홍보자료 구축	기존	국제 협력
국제화 도시 시범 사업		• 국제 언어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을 국제화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대중교통, 공공안내표시, 음식적 메뉴판 다국어화, 도로명의 상징화(외국지명) 사업 실시	신규	
장애인 친화지역 조성	무장애 통행 구축사업	• 공모를 통해 시군을 선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무장애 통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신규	국제 협력
	국제 장애인 미술 체험공간 조성	• 충남과 중, 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장애인이 쉽게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국가의 다채로운 미술작품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신규	국제 협력

3. 2040 이니셔티브의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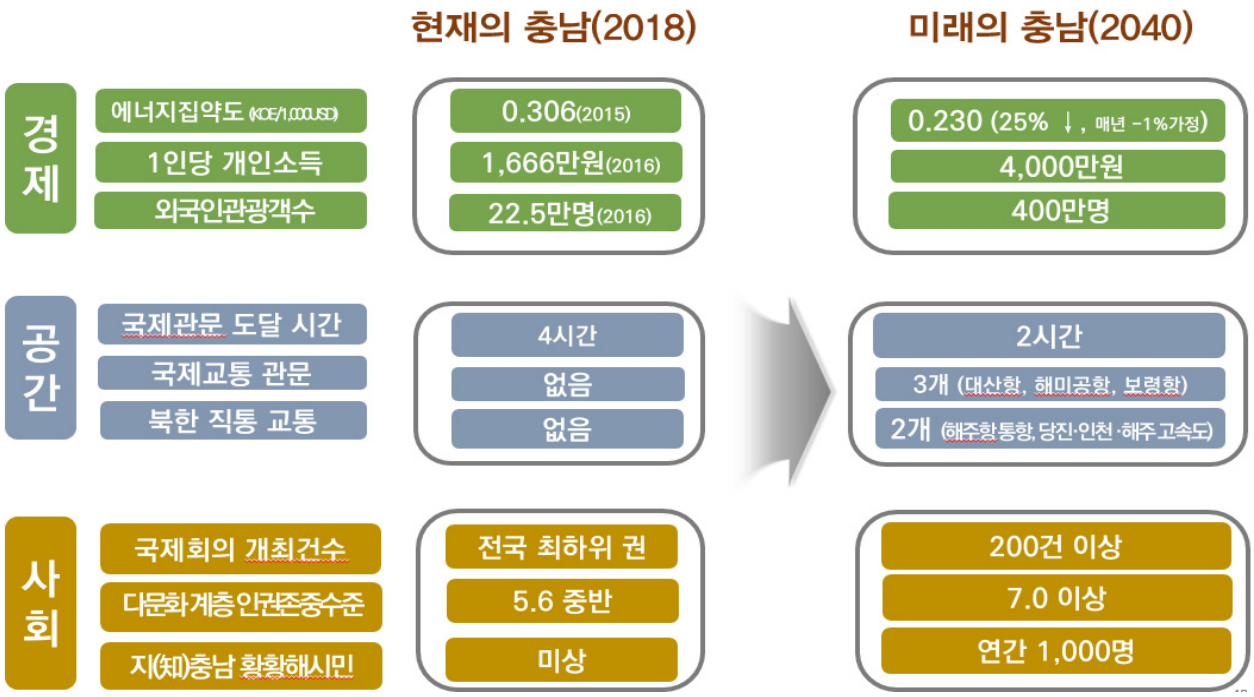
1) 시행계획의 지리적 범역



[그림 3-4] 시행계획의 지리적 범역

- 시행계획의 지리적 범역은 국내 8건, 한반도 3건, 환황해(협의) 13건, 환황해(광의) 8건 등 32건 임
- 환황해(협의) 사업은 주로 한중일 등 환황해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환황해(광의) 사업은 동남아, 러시아 등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2) 2040년 충남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미래상



3) 충남 초국경 교통망의 미래

- 환황해권 성장 지역과 충남을 연결하는 신규 초국경 교통망을 건설하여 충남이 초국경 교통망의 연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 기반 구축
- 다음 5가지 주요 인프라가 신규로 건설되어야 함

(1) 한중해저터널 등 황해횡단 교통망 건설 :

- 우리나라 충청, 전라, 경상과 중국 화북, 화중, 화동, 화남을 연결

(2) 중부동서횡단철도,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 서산·천안·울진 및 보령·부여·세종을 이어 러시아 연해주, 일본 혼슈(후쿠이, 니가타)로 연결

(3) 당진·인천·개성 고속도로 건설:

- 충청, 전라, 경상 지방과 북한 개성, 해주, 평양을 직접 연결

(4) 서산·해주·웨이하이 통항:

- 남 · 북 · 중 해운물류망 구축

(5) 해미공항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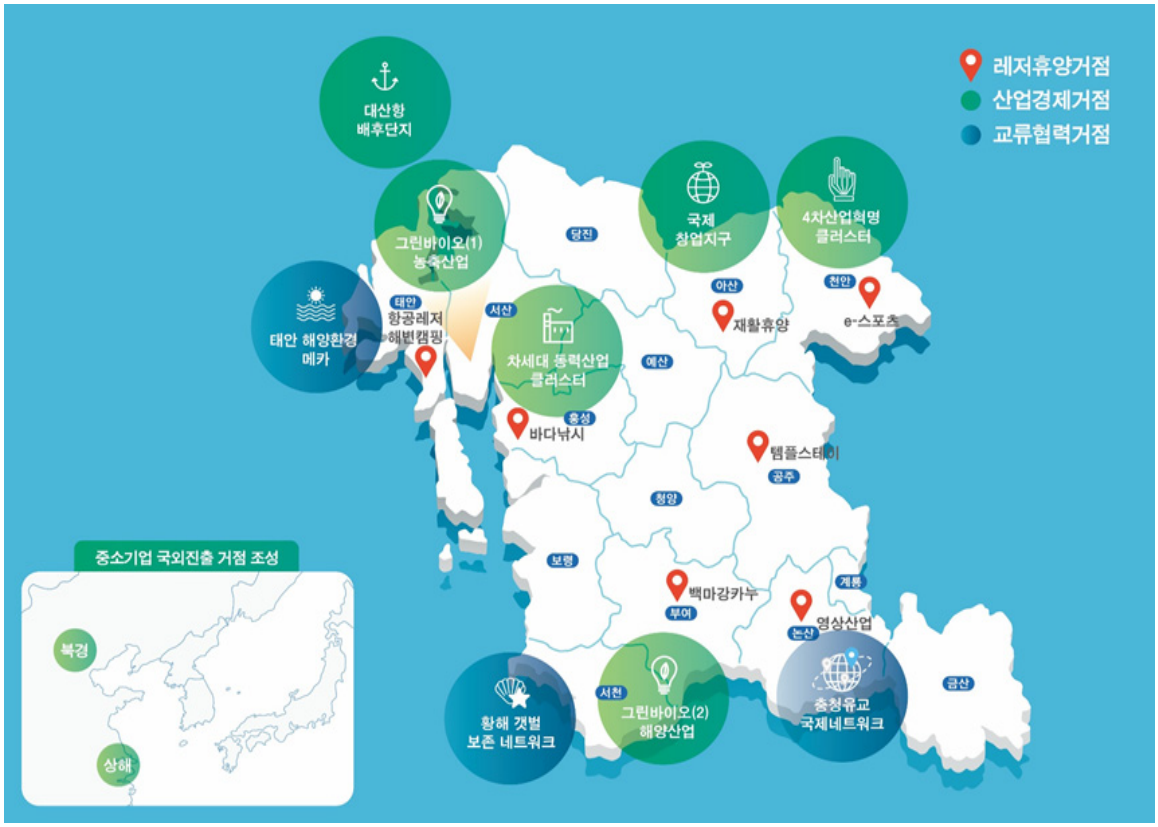
- 국내(제주, 평양), 일본(큐슈), 중국(웨이하이, 다롄, 베이징 등)

[그림3-5] 충남의 초국경 인프라 구축 도해

4) 충남의 국제 교역 거점

▸ 2040년 충남의 국제 교역 거점은 레저휴양거점, 산업경제거점, 교류협력 거점 등 3종류가 있음

- 〔레저휴양거점〕은 '레저휴양 국제화' 등 사업을 통해 육성되는 거점으로 천안 e-스포츠, 아산 재활휴양, 홍성 바다낚시, 부여 백마강카누 등이 있음
- 〔산업경제거점〕은 '친환경 선진 산업 육성' 등 사업을 통해 육성되며, 제조업과 농축어업 위주로 구축됨
- 〔교류협력거점〕은 환경, 문화 등 분야의 거점으로 태안, 서천, 논산 등이 있음



[그림 3-6] 충남의 2040년 국제교역 거점 도해

IV. 환황해 이니셔티브 정책 및 세부사업

정책사업 종합

- 전체 3개의 목표에 대해 6개 실현전략, 32개 정책사업, 58개 세부사업 제시
-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은 각각 32개, 26개
- 세부사업 중 국제협력사업은 25개, R&D사업은 1개, 남북협력사업은 1개, 기타 사업은 31개
- 목표별로 실현전략, 정책사업, 세부사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1목표(친환경 경제구축)에 대해 2개 실현전략, 12개 정책사업, 25개 세부사업(신규 15, 기존 10 : 국제협력 11, R&D 1, 기타 13)을 제시
  - 제2목표(초국경 지역공간 조성)에 대해 2개 실현전략, 9개 정책사업, 14개 세부사업(신규 8, 기존 6 : 국제협력 2, 남북협력 1, 기타 11)을 제시
  - 제3목표(환황해 커뮤니티 창출)에 대해 2개 실현전략, 11개 정책사업, 19개 세부사업(신규 9, 기존 10 : 국제협력 11, 기타 8)을 제시

<표 4-1> 목표·전략별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 개요

(단위: 개)

목표	실현전략	정책사업	세부사업	
친환경 경제구축	2	12	25	- 신규(15), 기존(10) - 국제협력(11), R&D(1), 기타 (13)
초국경 지역공간 조성	2	9	14	- 신규(8), 기존(6) - 국제협력(2), 남북협력(1), 기타 (11)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2	11	19	- 신규(9), 기존(10) - 국제협력(11), 기타 (8)
총 계	6	32	58	- 신규(32), 기존(26) - 국제협력(25), R&D(1), 남북협력(1), 기타 (31)

1. 친환경 경제 구축

1-1	국제해양환경 메카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태안지역의 유류유출사고 방제관련 123만 명 자원봉사자 활동은 해양환경보호 관련 세계적 상징성을 갖고 있으나, 이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은 없음

○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건립되었으나, 그 정신을 미래에도 되살리고 확대할 방안은 나와있지 않은 상황임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태안을 황해 환경보호의 메카로 육성하여 환황해 환경협력을 뒷받침하고 충남의 주도성 구현

○ 추진방향: 국제해양환경상 제정을 통해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태안을 해양환경보호 및 환경복원의 성지로 조성함

□ 세부사업 내용

① 국제해양환경상 제정: 제정의 방향성, 재원 확보,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

② 충남 해양환경NGO 육성: 한중일 해양환경 관련 NGO회의를 유치하는 등 과정을 통해 충남의 해양환경NGO 육성

③ 환경오염 체험관 건립 구상 마련: 대중들에게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VR, AR을 활용한 환경오염 체험관을 건립하는 구상 마련

□ 추진체계

○ 주관: 미래성장본부, 태안군

○ 협조: 국내외 환경시민단체

○ 지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6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환경상 제정	1,000	1,000				1,000		
충남 해양환경 NGO 육성	300	300				300		
체험관 기본 구상 마련	300	300				300		
총사업비	1,600	1,600				1,6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유류유출사고 정화작업 관련 123만명 자원봉사활동과 환경복원노력은 세계적 상징성 있음 • 우리나라에서 세계인에게 상을 줄 수 있는 흔치 않은 테마이며, 해양환경보호, 자원봉사 등 측면에서 아시아 대표적 상으로 부각 가능성 큼 • 시기를 놓칠 경우 과거의 사건으로 과소평가될 우려 있음 • 허베이특별법에 상 제정의 근거 있음 • 123만명이 참여한 대중적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확고 • 상 제정의 사회적 편익을 정량화하기 어려우나 주로 국가 위상 제고, 지역 인지도 상승, 관광 콘텐츠로 활용되어 관광객 증가 등 간접효과 예상 • 현재 충남 도내에 특화된 해양환경NGO가 없음 • 해양환경 관련 NGO 활동 육성보다 조직의 활성을 위해 역량구축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 • 해양수산부, 해경청, 해양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연계 협력으로 해안지역 6개 시군 중심으로 추진 • 도 차원의 해양환경 시민단체 역할강화는 해양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식개선이 우선 필요 • 시민단체, 연구기관, 교수 등으로 구성한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계속 운영하여 관련 역량 강화 예정 • 해양환경에 있어 NGO가 활동 가능한 분야는 교육 분야가 적합할 것임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는 전국에서 충남이 최초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선도적 추진 중 • 도내 해양 관련 NGO 활동 지원 사업 예산항목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이 필요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공고('18. 6.) – 충남 해양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회 개최('18. 10.)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시상의 지속가능성 위해 재단설립이 가장 안정적인 방안임 • 허베이특별법에 의거, 국가지원을 통해 재단기금 규모 100억 원 이상 확보 적정 • 지역발전기금에서 일부 출연 방안 검토 : 허베이 사회적협동조합 관리(기금 규모 1,450억원) • 상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정부, 충남, 태안군 등 지자체) • 재단을 설립하여 시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상 제정 추진 및 최초 시상에 이르기까지 3년 정도 소요 예상 • 시상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내외 민간, 정부조직 등과의 네트워킹 필요 • 수상자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외국의 민간, 정부조직의 참여 필요 • 수상자 활동범위를 황해 또는 동아시아로 좁히는 방안 검토 필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이미 운영중이며, 유류오염 관련 체험시설도 설치된 시설임 – 2017년 115억원을 투입한 기념관을 건립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해양오염 관련 시설의 건립이 아닌 기능 보완 방향이 적정

참고자료

• 주요 국제환경상 사례 개요

이름	그린애플어워즈 (The Green Apple Awards)	골드만환경상 (Goldman Environmental Prize)	에너지글로브어워드 (Energy Globe Awards)	한일국제환경상 (The Asian Environ mental Awards)
성격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동북아시아
제정년	1994	1990	1999	1995
수상 대상	환경보호 관련 모범사례를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	풀뿌리 환경운동가(개인 또는 단체),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1명씩 총 6명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을 한 프로젝트, 지역, 단체, 개인 등	동북아시아 환경 보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주관	그린 오가니제이션 (The Green Organization),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	골드만 환경재단	에너지글로브 재단 ,오스트리아 비영리단체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每日新聞社)
후원/지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 영국왕립 예술협회(RSA) · 영국 환경청	환경운동 그룹 및 개인의 추천	명예이사진, 지원이사진에 소속된 수 백의 단체, 개인	사무국 운영
수여품	상장, 상패, 상금 없음	상장, 상금(17만5천달러/인, 2017년)	상장, 상패, 상금(1만 유로)	상장, 상패, 상금(1만 달러)

1-2	환경 공동 모니터링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해양오염, 미세먼지 등 환황해 환경 주요현안에 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데이터 공유도 미진한 상황임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환경모니터링에 참여하여 환경협력의 기초인 모니터링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민관 공동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및 정착

○ 추진방향: 지방정부 지원 하에 민간(단체)가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상황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공개하여 국제협력에 나서도록 촉구

□ 세부사업 내용

①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지방정부와 국제NGO가 주축이 되어 해양쓰레기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②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한중일 시민(단체)가 동일 시간, 동일 조사방식에 의거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측정하고 정보공유와 저감정책 대안 발굴

※ 조사 및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프로그램

□ 추진체계

○ 주관: 충남도(기후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협조: OSEAN 등 국내외 NGO 단체, UNEP 등 국제단체

○ 지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2,16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1,440	600	840			1,440		
미세먼지 시민모니터링	720	300	420			720		
총사업비	2,160	900	1,260			2,16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중국 내에서도 해양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 • 충남도-산동성, 장쑤성 간 해양쓰레기 공동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의 의미가 매우 큼 • YSLME(황해광역해양생태계보전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범추진하며, 향후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국제공동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함 •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이를 활용한 한중간 해양쓰레기 공동 관리대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음 • 황해 공해상에 위치한 한중 공동어업구역에서의 해양침적쓰레기 한중간 공동 수거사업 실시 가능	YSLME, PEMSEA 등해양환경관련 국제 프로그램
사업 추진체계 관련	• YSLME 사업을 활용하여 충남도-산동성 간의 해양쓰레기 공동모니터링을 시범실시(3년간)하고, 이후에는 양국간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타당함 • 충남도가 주관하며, 해수부를 통한 국비 확보가 필요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일부 활용 가능 • 국내 기관(각 광역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단체)과 중국 등 인접 국가 • 중국 산동성, 장쑤성, 허베이성 등 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MOU체결 •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추진	

1-3	황해 갯벌 보존 네트워크 사업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황해 갯벌은 총 면적 18,200㎢(남한 2100㎢, 북한 2300㎢, 중국 동해안 8200㎢, 발해 5700㎢)로 세계 5대 갯벌에 꼽힐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동시에 세계적으로 산업화 충격이 가장 거센 지역 중 하나임

○ 충남은 과거 가장 많은 간척을 경험했던 곳으로 민선6기 이후 하구 및 갯벌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중국에서도 갯벌의 가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사업으로 갯벌보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검토 필요

○ 황해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갯벌 보존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협력

○ 추진방향: 갯벌 보존에 적극적인 지방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갯벌 보존 정책공유 및 협력 사업 수행

□ 세부사업 내용

① 황해 갯벌 뉴스레터 및 백서 발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급 단체의 후원하에 뉴스레터를 발간(격월간)하고 매년 황해갯벌 백서를 발간

② 세계자연유산 지정: UNESCO, UNESCAP 등 갯벌 보전관련 국제기구 네트워트와 협력으로 정보교류와 실행력 향상으로 갯벌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지정 추진

□ 추진체계

○ 주관: 도 기후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 협력: 각국 지방정부, UNEP 등 국제단체, 국제공동프로그램 연계 가능(YSLME 등)

○ 협조: 정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2,040백만원/년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뉴스레터 및 백서발간	1,440	600	840			1,440		
세계자연유산 지정	600		600			600		
총사업비	2,040	600	1,440			2,04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해수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갯벌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은 큰 상징성이 있음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갯벌의 생태를 보전하고 이를 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복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황해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보호종, 천연기념물, •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뉴스레터 및 백서 필요 • 사회적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세부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발굴이 필요해 보임 • 기존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구역) 지정관리 사업과 차별화 필요 • 해수부에서 추진중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 ‘바다생태 정보나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뉴스레터 및 SNS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 국제적 생물보호종 및 철새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방안 수립이 중요 • 중국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필요
사업 추진 체계 관련	• 어촌지역 관광활성화, 귀어인구 확대 등과 연계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갯벌 관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임 • 향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원하는 갯벌을 보유한 지자체는 갯벌 네트워크에서 3년 정도 활동을 통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가능 • 실질적 갯벌의 관리주체인 시군지자체, 민간단체, 어촌계 등이 주도로 참여할 때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국내 네트워크를 확고이 하여, 사회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후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 있음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갯벌의 경우, 해수부에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보호구역 비지정 갯벌의 경우, 해당 시군지자체에서 갯벌네트워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황해를 공동으로 접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등과 연계 가능 • 중국 산동성에서 추진중인 기초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보호 동맹인 ‘Clean Sea Alliance’ 등과 정책교류 가능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원 전담 조직 마련이 중요 • 갯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유럽의 와덴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정책적 교류 필요

참고자료

-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재제출(‘19. 1.)
- 예비실사(‘19. 5.), 현지실사(’19. 9.)
- 제44차 유네스코위원회 개최 등재여부 결정(‘20. 7.)

1-4	환황해 에코 파트너십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현재 황해권역 내 지방정부 간 환경보호 시민공동 참여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없으며, 대부분 자치단체 간 환경협력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교류 차원에 국한되고 있음

○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를 담아내고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매개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충남형 에코마일리지제도를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하여 한중일 시민 차원의 실천을 추진

○ 추진방향: 환황해 권역내 각 지방정부의 실천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도농지역 충남에 적합한 에코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실천가능성 및 국제협력 가능성 제고

□ 세부사업 내용

① 충남형 에코마일리지제도 도입: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일본의 에코포인트제 등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형 에코마일리지제도 도입

② 환황해 에코파트너십 결성: 에너지 절약 시민노력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간에 우수사례 교류 및 낮은 수준의 공동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에코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상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 제도 도입 추진

□ 추진체계

○ 주관: 충남도(기후환경녹지국)

○ 협조: 충남 환경·시민단체, 중일 지자체

○ 지원: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21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에코마일리지제도 도입	650	300	350			300	350	
한중일에코파트너십 결성	560		560			560		
총사업비	1,210	300	91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전기 · 수도 ·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절약 촉진으로 도민 참여율 향상 • 에코마일리지 등 모든 인센티브 사업은 인센티브의 강도가 적절할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에코 마일리지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탄소포인트, 실천 캐시백 등 관련제도의 통합 시행으로 도민 유인책 제공 규모 확대 •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 · 관리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자립 · 에너지 이용효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조기행동을 촉진함 • 에코마일리지 자체가 상당한 경제적 사업적 타당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으로의 변화를 유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책의 취지와 목적이 더욱 중요함 • 경제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 시군의 에코마일리지와 중복되지 않게 기존 시군의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방문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사업에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탄소포인트 제도 성과 유인책 제공을 위한 비용부담은 해당 시군 조례로 근거마련 가능 • 충남 에코마일리지를 추진하는 데 따른 제도적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환경부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교통-에너지를 중심으로 에코마일리지를 구성하는 정부정책과 높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도민, 시민사회 단체간 공감대 형성 • 사업추진의 목적이나 사업추진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남 에코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지원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더욱 사회적으로 타당한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8.3.20.] 시행
사업 추진체계 관련	•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비 확보가 핵심적 관건이지만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상의 장애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필요한 사업재원의 조달을 위해 재활용관련 기업, 관광산업, 지역업체 등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충남 에코 마일리지 사업은 충남도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행정기관은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사업은 환경과 관광에 관련된 공공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그러나 충남 에코 마일리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 시군의 에코마일리지를 통합하는 새로운 통합형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구체적인 협력관계 형성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충남도의 재원을 기본으로 정부의 대응자금 혹은 관련 지원예산(코이카사업, 기후협력기금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환황해권의 에코파트너십 형성과정에서 업무를 국제교류담당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실, 미래성장본부,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국, 기후환경녹지국,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등 전 실국에서 균형있게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 때 해당 실국이 중국과 일본 등 관련 국가의 해당 실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실국별로 국제적 파트터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1-5	충남 레저휴양 국제화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 특유의 레저휴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제 브랜드화된 것은 보령머드축제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상황임

○ 충남은 대량소비 레저휴양보다는 소량의 다양한 레저휴양활동에 적합하며, 이미 구축된 레저휴양 기반과 활동을 국제 명품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충남에 일정한 기반을 갖춘 레저활동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중산층을 타깃으로 국제 명품화 추진

○ 추진방향: 국내외 전문가 컨설팅과 동아시아 국가 중산층 수요 분석을 통해 레저휴양 패키지를 설계하고 이를 브랜드화

□ 세부사업 내용

① 지역 레저휴양 국제컨설팅: 각 시군에서 지역 기반의 레저상품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국내외 컨설팅 전문가들의 지원 실시

※ e스포츠(천안), 해변캠핑 및 서핑(태안), 백마강카누(부여), 바다낚시(홍성), 항공레저(태안), 갯벌체험(서해안 일원), 영상산업(논산, 부여), 템플스테이(공주, 서산), 재활휴양(아산), 마리나(당진, 서산) 등

② 동아시아 레저휴양 페스티벌: 레저휴양 관련한 페스티벌을 한중일 지방정부가 순회 개최하도록 함

□ 추진체계

○ 주관: 충남도(문화체육관광국), 충남관광협회

○ 협조: 중국・일본 지자체 추천 전문가, 국내 컨설턴트

○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98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지역레저휴양 국제화	640	640				320	320	
페스티벌 개최	600		600			600		
총사업비	1,240	640	600			920	32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한중일 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며,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의 부합성 있음 • 현재의 예산 규모와 사업 개소수를 고려할 때 단기간 큰 경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나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컨설팅 전문가 지원은 시도비로 추진하고, 페스티벌 개최 등은 초기에 시도비로 추진하면서 정부 재정 지원 형태로 추진 • 국제적 교류협력과 시군을 아우르는 추진방식이 필요하므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레저휴양 국제화는 아이디어 제시 차원의 공모과정 이후에 어떻게 이를 효과적인 상품으로 개발할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므로, 개인적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합하여 신뢰성 있는 컨설팅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 • 페스티벌 개최 역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한중일 지방정부 순회 개최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직과 더불어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체계(중-여유국, 일-관광청 등) 구축도 필요함	

1-6	중소 MICE 산업 육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 MICE산업 육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수용시설 부족 등 이유로 본격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중소형 MICE(참가자수 300~999명)산업은 개최건수의 70-80%, 참가자의 40-50%를 차치하는 것으로 조사됨(한국관광공사, 2012, 지역MICE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천안아산역 R&D집적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충남 MICE산업 발전의 발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해안에 MICE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큼

○ 천안아산 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의 중소 MICE산업 육성 기지를 조성하여 충남의 관광서비스업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도록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중소MICE산업을 떠받치는 시설 및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충남에 중소MICE 산업기지를 2곳 이상 구축하도록 함

○ 추진방향: 천안아산지역과 서해안지역에 각각 1개소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이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천안·아산 MICE산업 기반 구축: 인근의 산업적 수요와 연계한 B2B형 MICE시설과 관련 서비스체계 구축 위해 지역 관광, 체험 연계사업 마련

② 서해안 MICE산업 기반 구축: 태안, 보령 지역의 대형 리조트 시설을 중심으로 관광형 MICE시설 및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추진체계

○ 주관: 도 문화체육관광국

○ 협력: 천안시, 아산시, 태안군, 보령시 등

○ 협조: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5,8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천안아산MICE산업기반구축	2,400	1,000	1,400			1,200	1,200	
서해안MICE산업기반구축	3,400	2,000	1,400			1,700	1,700	
총 사업비	5,800	3,000	2,800			2,900	2,9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전국적으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해 광역단위 혹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있고, 향후 MICE산업의 전망을 봐서는 충남의 컨벤션사업의 부합성은 상/중/하로 볼 때 중/하로 판단됨 • 그간 전무했던 충남지역의 B2B형 MICE 육성을 통한 타산업에의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관광 육성 가능성 확대 • 실현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서해안 지역의 경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토 중부지역의 중소형 MICE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충분하다고 판단됨 • 컨벤션사업은 절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며, 기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경주화 백컨벤션센터 1200억 투입
사업 추진체계 관련	• 현재 예산을 기초적인 용역과 설계, 기반조성을 위한 정도임 • 향후 사이즈확대경쟁이 가속화 될 것은 명확함. 이미 서울 코엑스가 확장중에 있고, 킨텍스는 10만m2를 넘는 국제공인, 송도 컨벤시아, at센터, 수원광교 컨벤션 등이 경쟁상대이므로 이를 능가할 사이즈가 건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최소한의 예산으로 1,000억정도는 조달가능해야 경쟁력있는 컨벤션센터 설립가능 • 충남컨벤션센터(CCC, 案)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함. • 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용역과 논리를 개발해야 함 • 현재 한국의 MICE산업은 ICCA기준과 UI기준에서 정상 수준에 와 있으므로 해외파트너를 생각한다는 것은, 자금조달 이외에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님 •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역시 싱가폴 마리나베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는 송도 파라다이스시티가 컨벤션/호텔/쇼핑의 3박자를 갖춘 곳으로 인천공항에 매우 근접해 있어 액세스권이 매우 훌륭함	

1-7	체류 관광권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충남에서 숙박을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치사슬을 늘이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긴요함

○ 특히 대산항 한중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으나 입국 외국인이 대산항 일원에 머무르지 않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며, 그들이 충남에 숙박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마련이 시급

○ 관광 자원, 숙박시설, 먹거리, 야간 위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류 관광권을 조성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를 개선하여 충남의 체류형 관광을 촉진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충남을 국내외 관광객의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

○ 추진방향: 대산항 입국 외국인의 체류 프로그램 개발을 필두로 충남 전역의 체류 관광권을 설정하고 권역별 부족한 요소를 보완, 개선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대산항 외국인 체류관광권 조성: 대산항 입국 외국인이 충남도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하고 부족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사업

② 체류 관광권 조성: 충남 전역을 체류 관광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필요 요소를 보완, 개선하는 사업

□ 추진체계

○ 주관: 도 문화체육관광국

○ 협력: 서산시 등 각 시군

○ 협조: 국제 여행사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96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대산항 외국인 체류관광권 조성사업	360	360				360		
체류관광권 조성사업	600		600			300	300	
총사업비	960	360	600			660	3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서브로는 수도권 중심의 외래관광객을 서해안권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 • 사회, 정치적으로 문제는 업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 외래관광객이 늘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 한중일 역내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부합성이 있음 •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적 접근도 중요하나, 숙박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정비, 상품 개발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인프라 조성 위주의 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계가 있음	
사업 추진체계 관련	•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개별 시군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도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투자계획 보다 적극적인 재원 추가 확보가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관광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 메인으로 중국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북한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전통 식품산업 육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한중일 공통적으로 신선농산물과 더불어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환황해권 국가 관광객을 타깃으로 전통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식품 개발 필요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대기업 중심의 기존 식품산업 제품 및 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

○ 추진방향: 식품의 안전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한중일 소비자층을 고려한 전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동북아농업유산협의회, 전통마을 네트워크 등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

□ 세부사업 내용

① 아시아 전통식품 개발: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고 동아시아 국가 전통을 살린 아시아 전통 떡 또는 장류 등 상품 개발

② 전통주 국제화: 전통적 제조 방법을 고수하고 친환경 곡물을 사용한 한중일 공동 전통주 개발

□ 추진체계

○ 주관: 충남도 (농정국), 충남농업기술원

○ 협조: 공주대(외식상품학과)

○ 지원: 한국농어촌유산학회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2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아시아 전통식품 개발	600	250	350			600		
전통주 국제화	600	250	350			600		
총사업비	1,200	500	700			1,2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최근 식문화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통발효식품의 세계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식 세계화 정책’과 부합 • 한중일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발효음식, 발효식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봄 • 전통발효식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과 발효식품 한중일 공동브랜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중기과제(2024~30)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중일 3국은 전통 떡류, 장류에 대한 역사가 깊기에 관련 기술, 노하우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단, 새롭게 개발하고자하는 아시아 전통 떡이나 장류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격 승인이 필수 조건임 • 충남 전통주 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할 시기이기에 본 사업은 시의적절함 •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목표 가운데 하나인 해외 주류시장 진출 촉진, 경영 품질 경쟁력 향상과도 부합함 • 한중일 3국 간 상호 관광객 수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한중일 전통주 공동브랜드 개발은 가치가 있다고 봄	• 한식 세계화 사업(농림부) • 한국 식문화 세계화 대축제 (매년 개최) – 농식품부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전통음식 개발보다는 ‘한중일(또는 아시아) 전통발효식품 大殿’을 한중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 •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 • 재원은 국비+지방비; * 일부 재원 민간(참여 업체 부담) • 기존에 충청남도와 교류가 있는 중국, 일본의 지자체 예) 중국: 귀중성, 허베이성 / 일본: 구마모토현, 시즈오카현	

1-9	동아시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농업, 어업, 축산업에 적용시키는 생명바이오산업으로서 21세기 가장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임

○ 충남 농축어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고급화 이외에 농수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술을 수출하는 체계가 시급한 상황임. 현재 충남은 축산 바이오산업과 해양 바이오산업의 적격지로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충남 그린바이오 산업에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인근 부지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이 제기되었음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산업화를 촉진하여 충남 경제의 기술집약형 경제로의 전환에 일조해야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동아시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추진방향: 서산한우개량사업소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근에 각각 농축산 그린바이오 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이 결합된 산학연 산업클러스터 조성

□ 세부사업 내용

① 농축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1단계에서 동물면역 관련 연구기능 유치하고 2단계에서 클러스터 조성

② 해양 바이오 R&D 허브 조성: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R&D 기능을 확충하고 관련 기업, 대학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해양바이오 허브 조성

□ 추진체계

○ 주관: 도 농정국, 해상수산국

○ 협조: 도 농업기술원

○ 지원: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내 그린바이오업체(LG화학, 이수화학) 들과 협력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580,3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농축산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730,300	300	530,000	200,000	530,000	300		200,000
해양바이오 R&D허브조성	50,300	300	30,000	20,000	30,000	300		20,000
총사업비	780,600	600	560,000	220,000	560,000	600		220,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그린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중장적인 관점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 • 서산이 바이오산업이 육성되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거점 그린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 메리트 높음 • 부지가 농식품부 땅이고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필요 • 해양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중장적인 관점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 • 해양바이오관련 R&D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 서천지역에 해양바이오산업이 육성되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거점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 메리트 높음 • 서천 해양바이오산업 : 중기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 충남에서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기존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생태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실현 가능성 높음	
사업 추진체계 관련	• 두 과제 모두 국비가 우선 확보되어야 함 • 해양바이오클러스터는 국가가 중심이 되고, 충남도, 시군에서 적극적인 협조 필요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 • 서천 해양바이오산업 : 중기 • 일본과 중국 바이오관련 국가기관 및 기업과 연계필요 • 특히 중국의 남색경제지역과의 연계 필요	

1-10	국제 창업 허브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청장년 실업 완화를 위한 창·취업 확대는 모든 지방정부의 공통 관심사이나, 주로 지역 내지 국내 시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임. 한편 외국유학 증가, 다문화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창·취업의 수요와 공급이 국내 시장을 넘어 형성 중

○ 충남의 대학생들은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밀집해 있고, 충남 전체로는 외국유학생 5천명이 있는 등 국제창업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보유

○ 내국인, 외국인의 밀집을 바탕으로 국제 창·취업을 활성화하여 청장년 실업을 완화하고 취업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국제 창·취업을 촉진하여 청장년 실업을 완화하고 충남경제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인재 역량 강화

○ 추진방향: 단기적으로 창업 사례의 교류 플랫폼 조성, 중장기적으로 충남에 국제창업지구를 설립하여 충남이 한중일 국제창업의 한 축을 차지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국제창업위크(Week): 창업 국제교류회, 투자자·창업자 매칭, 우수창업아이디어 경진 실시

②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특정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발명대회 개최, 선발된 팀에 제품제작 지원, 창업 격려 분위기 조성

③ 국제창업센터 설립: 천안아산에 국제창업센터를 설립하고 중국, 일본의 파트너 창업지구와 네트워크를 형성, 글로벌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유치

□ 추진체계

○ 주관: 도 미래성장본부

○ 협력: 충남벤처협회 주관

○ 협조: 중국 허베이성, 일본 후쿠오카현 정부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4,6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국제창취업 위크	1,200	500	700			1,200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2,400	1,000	1,400			2,400		
국제창업센터 설립	11,000	1,000	10,000		6,000	1,000	1,000	3,000
총사업비	14,600	2,500	12,100		6,000	4,600	1,000	3,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충청남도 차원의 문제해결을 유도(특화산업, 저출산고령화 문제, 충남의 전통적 에너지 공급체계와 환경 문제, 벤처창업의 상대적 취약성)하는 발명대회로 지역적 부합성을 고려해 대회 표제 또는 주체를 매 시기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창업을 통해 고용확대 측면에서 중요하나 청년 창업과 외국인 창업이라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 높아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오히려 중장년 층이 보유한 기술 중심의 창업이 성공 가능성 높음. • 단순히 수상자를 선발하는 추진체계가 아닌 후속사업 연계와 지원체계를 가지고 대회 주관과 후속지원 기관의 연계 노력을 통해 상업화 단계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파급효과 검토가 유용함 • 특히 지역 문제해결의 부합성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도의 R&D 등과 연계하고 정책 효과를 선제적으로 연구해 파급효과가 경제적, 사회적 성과로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정책과제 해결과 연계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충남 내 기술창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시행하고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고, 주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단기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신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개선이 지역별로 '19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스타트업 유인에 시의 적절함 • 다만 제도적 안정화 이전에 중국 벤처의 테스트 베드 역할만 제공하고 실익을 담보할 구체적 추진전략과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청장년간의 멘토링 사업과 기업과 청장년의 수요 수렴을 통한 교학상장의 기반 마련 필요 • 충남도의 교육기반은 좋으나 사회.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 이를 보완한 새로운 유형의 연계교육 마련 필요성 긴요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충남의 대기업 주도 산업구조에서 창업과 신산업 육성에 대기업의 자금과 인프라가 투자되고 적절한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민자 투자 우선의 재원확보가 우월 • 그러나 민자의 선순환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재정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시장 진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일정 비율 공공재원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 국제취창업 위크 발전을 위해 별도의 경진대회 실시는 비용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고려됨. 지역의 선별된 기존(당해) 우수 아이디어를 국제 창취업 워크를 타겟팅으로 엑셀러레이팅하여 글로벌 차원의 투자자 참여를 자발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발전방안 모색 필요 • 지방정부가 재정지원과 홍보,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고, 도내 기술창업 지원기관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 위원회를 구성(또는 역할 분담형 컨소시엄 추진체계, 주관-참여) 하는 것이 적절 • 최대한 기술창업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창업벤처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을 통해 일본, 중국 외에 협력 네트워크를 단기(5년 내)에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럽(독일-베를린), 국제기구(문제해결 분야, 사회, 경제, 환경 등 분야별 UN 기구), 지역별 개발은행 및 문제해결형 국제기금(ADB, AFDB, GCF) 등 • 청장년취창업대상자-교육기관-기업-정부의 다자협력 구조. • 정부는 기업의 수요 파악, 기업은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교육기관은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청장년취창업대상자는 소액 수강료로 양질의 교육.정보취득 • 사업추진 기간은 5년 계획도 괜찮으나, 대상자의 프로그램은 3년 주기로 운영되어야(교육-취창업-안정화의 단계 구성) • 인프라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활성화가 관건... 언제어디서나 맞춤형으로 운영(가동) 방식(AACO: anytime-anywhere-customizing-operation)구축 필요

1-11	차세대 동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미래 수송용 동력장치는 내연기관 대신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선박, 항공 등 모든 운송수단에 파급 예상

○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차량용을 필두로 향후 선박, 항공으로 그 응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 긴요

※ 충남은 수소전지차 부품 상용화 및 실증 사업(2016-2021) 수행 중, 이차전지생산량 전국 50%이상 차지

○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산업을 수송장치 제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차세대 동력장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선박,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스택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국책과제화하여 추진하고, 드론, 로봇,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소형장치에 적용되는 이차전지응용산업을 활성화

○ 추진방향: 중대형에는 수소연료전지, 소형에는 이차전지를 두 축으로 개발하여 충남이 아시아권에서 미래 동력장치 제조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선박, 항공기용 연료전지팩 개발·실증: 수리조선(당진), 경비행기 제작업체(태안, 천안 등)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책과제로 추진

② 가칭 MPP(Mobility&Power Park) 조성: MPP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동력장치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 추진체계

○ 주관: 도 미래성장본부

○ 협력: 정부 산자부, 미래부, 국토부

○ 협조: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민간기업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600,500백만원

- 선박, 항공기용 연료전지팩 개발·실증: 200,500백만원
- MPP 조성: 400,0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선박, 항공기용 연료전지팩 개발·실증	200,500	500	100,000	100,000	50,000	30,500		20,000
MPP조성	400,000			400,000	200,000	120,000		80,000
총사업비	600,500	500	200,000	400,000	250,000	150,500		100,000

1-1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초연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은 미래 산업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충남에 밀집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소재, 부품, 장비, 정밀기기 등 파생산업을 4차산업혁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해야 함

○ 이러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 및 파생사업 육성을 구체화할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충남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을 기대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전기전자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재, 부품, 장비, 정밀기기 등 파생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 추진방향: 천안, 아산에 밀집한 주력 전기전자업종의 생산성 향상과 파생산업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을 상호 연계하여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단계별)

○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1단계에는 클러스터 기획, 부지 확보 및 추진체계 확립을 달성하고, 2단계에 클러스터를 조성, 3단계에는 클러스터 운영의 안정화 추진

□ 추진체계

○ 주관: 도 미래성장본부

○ 협력: 정부 농림부, 산자부 등

○ 협조: 천안시, 농업진흥청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400,500백만원

- 클러스터 기획: 500백만원
- 클러스터 조성: 400,0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클러스터 조성	400,500		500	400,000	200,000	120,500		80,000
총사업비	400,500		500	400,000	200,000	120,500		80,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충남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은 큰 틀에서는 4차산업혁명 거점기지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명은 "제조혁신파크 조성" 임 • 주요컨텐츠는 다음과 같음 – 스마트펙토리 플랫폼 기술 연구개발센터 – 스마트팩토리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 스마트팩토리 A&E(Academy&E–Training)센터 – 자동차 및 기계부품 테스트베드 • 이런 점에서 볼 때 사업목표와 추진방향, 세부사업내용 등을 충남도의 계획안과 일치시킬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충남도발전계획(2018–22)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로 제안하고 있음. • 성환 종축장은 전체부지규모가 419만여㎡(127만평)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관련 제조혁신파크가 조성되면, 그 자체로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거읍의 충남TP,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가 된다면 충남4차산업혁명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임 • 단순한 산업육성이 아니라,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R&D, 기업지원체계, 아카데미 및 트레이닝센터, 테스트베드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도입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업 추진체계 관련	•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4차산업혁명 촉진기본법(안), 4차산업혁명 대비 신산업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등

2. 초국경 지역공간 조성

2-1	충남 대북 직통로 개통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핵심 벨트인 서해안벨트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여객 및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기존의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바, 한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측의 남북축 도로망에 새로운 대안경로(Alternative Path) 구축 필요

○ 한편 남북경협의 접경지역 집중성을 완화하기 위해 해운로를 개통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은 대산항을 남북경협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충청, 전라, 경상의 남북경협 물동량이 대산항을 통해 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남북경협을 겨냥, 수도권정체구간을 우회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삼남지방을 직접 북한의 서해안벨트지역과 연결, 남북경협 관련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방향: 당진-인천-개성 구간 고속도를 해저터널, 교량 등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비정체구간은 기존 고속도를 확충 또는 개량하여 대응. 대산항과 해주항(또는 남포항)을 통항하여 대북물동량을 담당하게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당진・인천・개성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학술: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기술: 노선대안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노선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의 국책과제화 실현

※ 제5차국토종합계획(2021-2040, 20년계획), 제2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20년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1, 10년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6, 5년계획), 2020총선공약화

② 대산항-해주항(남포항) 통항: 대산항을 대북교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남북해운합의서'를 개정하고 대산항을 남측 개설항으로 추가

□ 추진체계

○ 주관: 도 국토교통국

○ 협력: (정부)국토교통부, 충청, 전라, 경상 지자체 등

○ 협조: 국토연구원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4,000,9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당진·인천·개성고속도로	4,000,600	600	4,000,000		4,000,000	600		
대산항-해주항 통항	300	300				300		
총사업비	4,000,900	900	4,000,000		4,000,000	9횡단 교통망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서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의 접근은 제2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주요 남북축 교통망으로 구성됨.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해대교는 수도권 이남 지역인 충남, 전라광주권에서 수도권으로 접근시 주요한 교통축임을 감안하여 서해대교의 자연재해, 안전 등의 문제로 단절될 경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경로가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대안경로를 구축하는 데에 의미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이 수립예정(2019년)이며, 이와 같은 국가상위계획상에 당진~인천 구간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제안이 필요함 •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현재까지 구상단계이므로 수행되지 않았음. 향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수립 단계에서 도출될 사항임 • 도로망 노선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노선의 선형과 사업비와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1. 환경친화적 요인, 2. 사업비 최소화, 3. 인접 도로망과 효율적 연계 등) •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제도적 특징이 있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음 • 대산항-해주항 통항은 충남의 대북교통로를 확보하는 핵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現 정부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충남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익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이 큼 • 서해안에서 기존 인천항 이외에 충청, 전라, 경상권을 배후지로 하는 대외관문이 생기는 효과 ※남북해운합의서(2006)에는 인천항, 군산항이 개설항으로 올라 있음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체는 국가임(※ 재원부담주체와 동일) • 관련 광역 자치단체: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광주권 지역	

2-2	황해횡단교통망 구상 한중협력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한중 연결 교통망으로서 한중 해저터널(또는 열차페리)이 제안되었으나, 노선대안 설정에서 충남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였음

○ 남북철도와의 비중복성, 한중일 최단노선, 건설비용 우위 등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향후 황해를 횡단하는 교통망 건설에 있어서 충남의 대안이 타 지역보다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함

※ 한중 해저광케이블은 충남 태안-산동성 칭다오를 기점으로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충남 기점 한중해저터널의 기초조사를 통해 장점과 비교우위의 근거를 마련하여 열차페리, 쾌속선, 소형항공 등 황해횡단교통망 검토를 통해 충남이 황해횡단교통망 건설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향: 한중공동연구 및 학술토론 등을 통해 한중 양국에서 충남 기점 황해횡단교통망 구상을 도출하고 공론화

□ 세부사업 내용

① 해저터널 기초 조사: 한중공동연구 통해 충남 기점 노선의 타당성 근거 및 경제성 향상 방안 확보

② 열차/해운/항공 교통망 구상 마련: 다양한 교통망 구상을 연구하여 향후 황해횡단교통망 구상 연구에서 우위를 선점하도록 함

□ 추진체계

○ 주관: 도 국토교통국, 미래성장본부

○ 협력: 충남연구원, 산동성 사회과학원, 교통과학연구원

○ 협조: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언론매체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240 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한중해저터널 기초조사	620	620				620		
열차, 해운, 항공교통망 구상연구	620	620				620		
총사업비	1,240	1,240				1,24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충남 입장에서 환황해 초국경연결 관련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음 • 충남은 기초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충남이 노선선정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 • 현 한중무역량 규모가 해저터널 수익임계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산동교통과학연구원 인터뷰)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산동성이 적극적 • ※산동성은 열차페리에 관심

2-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중부권 위치한 충남, 충북, 경북 12개 지자체는 2016~2017년 서산-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관련 연구용역 실시(한국교통연구원 수행). 총 연장 약 330km, 사업비 약 3조 7천억원이며, 현 대통령 지역공약사항임

○ 서해와 동해를 중부권에서 연결하는 노선으로 황해횡단교통망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동서축의 고속철도 서비스 소외지역을 연계,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관광자원, 국제교통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문 정부 임기 내 본 철도노선건설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

○ 추진방향: 대선공약의 조속 실행을 위해 정치권 역량을 결집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관련 12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회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론화를 추진하여 조기 국가정책화

□ 추진체계

○ 주관: 도 국토교통국, 미래성장본부

○ 협력: 충남연구원, 12개 관련 지자체

○ 협조: 한국교통연구원, 관련 학회, 언론매체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3,700,5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3,700,500	500	3,700,000		3,700,000	500		
총사업비	3,700,500	500	3,700,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기존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일 철도사업노선이 아닌 여러개의 국가철도망이 연계된 사업인 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내의 개별 구간인 기존의 국가철도망 계획노선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을 중요한 이슈임. 즉, 충남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차원의 중부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사업으로 판단됨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 상에서 제시되지 않아 국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미약함. 다만,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제안된 특징을 감안하여 현 정부에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제도적 특징이 있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음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사업주체는 국가임(※ 재원부담주체와 동일) • 관련 광역 자치단체: 충남도청 • 관련 기초자치단체: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조치원 등	

2-4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청산업문화철도는 보령, 청양, 부여, 공주, 세종 등 5개 시군을 연결하는 총 연장 89.2km, 총공사비 1조 8,760억 원이 투입되는 철도 건설 사업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지역공약임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제시됨

※ 제3차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2016-2020)에 보령신항 언급 있으나, 계획 미확정

○ 보령선은 동해안, 청주공항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해양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로 충청권의 접근성 향상 특히 충남 서남권 경제 활성화 및 물류 및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보령선 철도건설로 충남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령신항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국토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정부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를 충남 서남권 개발의 획기적 전기로 연결

□ 세부사업 내용(단계별 접근)

①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충남 시·군뿐만 아니라 세종, 충북 및 강원(경북)과 협력하여 조기착공 여론 형성하여 일부구간이라도 조기 착공추진

□ 추진체계

○ 주관: 도 국토교통국

○ 협력: 정부 국토부, 해수부, 충남, 충북, 경북, 강원 등 지자체

○ 지원: 관련 지역 국회의원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876,5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1,876,500	500	1,876,000		1,876,000	500		
총사업비	1,876,500	500	1,876,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충남의 교통망은 남북축이 우세한 반면 동서축은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철도망의 경우는 장항선, 호남선(일반, 고속), 서해선복선전철(장래개통예정) 등으로 남북축 방면으로 기존 노선(계획)이 존재함. 충남의 동서축 방면으로는 철도망이 열악한 실정임. 열악한 철도수단 분담률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의 관광자원 등을 철도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고려됨 • 중부권 광역물류기지 연계로 수도권과 타 지역 연계허브 역할 수행 • 보령선 연계지역 인근의 약 39개 산업단지의 철도물류 수송력 확보, 수혜인구 약 57만명 예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에 기여, 연간 관광객 약 3,900만명 수혜효과 발생 •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파악되며, 현정부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대규모 교통SOC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 바, 사업추진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까지 불투명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사업주체는 국가임(※ 재원부담주체와 동일) • 관련 광역 자치단체: 충남도청 • 관련 기초자치단체: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조치원 등	

2-5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최근 중국 정부가 저공비행 공역(空域)을 개방하면서 개인용 비행기가 부자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17년말 기준 중화권 비즈니스제트기는 총 466대, 봄바르디社는 중국은 2032년 2,420대로 증가 예상(KIEP 뉴스브리핑, 2018.1.14.)

○ 우리나라에서 개인용 비행기의 출입국장은 김포 비즈니스공항센터로서 물류, 여객, 훈련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음

○ 중국 상류층의 개인용 경비행기를 이용한 출입국 및 레저수요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를 조성하여 충남 공항의 특화발전 및 지역관광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해미공항, 당진비행장(계획 중), 태안공항(실습장) 등을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로 조성하여 충남의 대외교역 및 섬 관광 거점으로 육성

○ 추진방향: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물류, 여객, 교육훈련, 정비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 시각에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 학술용역 통해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하고 여객, 물류, 교육훈련, 정비 등 관련 기능을 유치, 물류, 여객, 교육훈련, 정비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추진체계

○ 주관: 도 국토교통국

○ 협력: 정부 국토부, 국방부 등

○ 협조: 충남 비행장 소재 지자체; 중국 상하이, 칭다오, 따롄, 단둥 등 도시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50,5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조성	50,500		500	50,000	50,000	500		
총사업비	50,500		500	50,000	50,000	500		

2-6	국외 충남비즈니스센터 설립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의 농수산가공품, 특히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해외 수요가 최근 수산물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국 수요가 왕성함

※ 충남은 축산가공품과 수산가공품은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높음(중국동향과 진단,2018년5월)

○ 충남도는 지난 2016년 상해사무소, 충칭사무소를 폐쇄한 후 현재 중국, 일본에는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현지사무소가 없고, KOTRA 등을 통한 판로개척은 한계가 있음

○ 시장수요 성장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체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을 확보하여 충남 농수산업의 수출 증대 및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충남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성장을 촉진

○ 추진방향: 과거 현지사무소 폐쇄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비지니스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수립

※ 경기비지니스센터는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인을 사무소장으로 고용하고 공무원 파견근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함

□ 세부사업 내용

① 충남비즈니스센터(상하이) 설립·운영: 상해1개소를 우선 설립 후 운영

② 베이징, 호치민 센터 신규 설치: 베이징, 호치민에 충남비즈니스센터 추가 설치

※ 상해 충남비지니스센터 개통후 평가를 통해 확대 방식 결정

□ 추진체계

○ 주관: 도 경제진흥원

○ 협력: 정부 산자부, 농림부

○ 협조: KOTRA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2,500백만 원/년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충남비즈니스센터(상하이) 설립	5,500	2,100	1,500	2,000		5,500		
충남비즈니스센터 추가 설치 (베이징, 호치민)	7,000		3,000	4,000		7,000		
총사업비	12,500	2,100	4,500	6,000		12,5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충남도도 해외수출거점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출지원을 실시할 필요 • 환황해 주요 거점 지역이자 충남의 최대교역대상국인 중국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환황해 이니셔티브 계획의 취지와 부합 • 중앙정부 공공기관인 KOTRA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폭넓게 지원 중 • 코트라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 강점이 없어 특정분야의 진출을 위해 별도의 해외조직이 필요할 수 있음 • 예)경기도, 대구 ☞ 해외에 섬유센터 운영 중 • 중국에 비정부기구(NGO) 대표처 설립 가능 • 2017년 중국법 변경으로 인해 설립과정은 기존보다 까다로워짐 • 충남 상하이 사무소 실패사례 반복 등 악순환 우려에 대한 검토 필수(개선안 여건 마련 등 중장기적 검토 추진)	충남 상하이 사무소는 전문성과 운영성과 미흡 등 사유로 '16년 폐지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예산은 연간기준으로 인건비, 임대료 상승을 고려했을 때 매년 5~10% 추가확보 필요 • 중국의 특성상 대표처를 직접 설림 하는 것이 초기에는 시간, 비용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으나 향후 지속성, 운영 노하우 축적, 기업 밀착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음 • 호치민 센터의 경우 '19년 현지조사 및 행·재정적 준비 후 ' 20년이후부터 설립 운영 바람직	

2-7	대산항 환황해 거점항만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대산항은 총 31선석(국가 4, 기업 27)을 갖춘 국내 6위 규모인 충남의 대표 무역항으로서,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고 현재 여객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음

○ 대산항은 중국의 주요 항구들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수심 등 여건이 양호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구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항만물류를 뒷받침하는 항만인프라 및 배후단지가 빈약한 상황임

○ 중국과의 교역흐름을 포착하여 특화형 배후단지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대산항을 활성화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경쟁력 있는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성장성 있는 업종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항만인프라를 최신 복합물류항만 추세에 맞게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를 최근 한중 산업협력이 두드러지는 수입 자동차(부품), 전동수송장치(퍼스널모빌리티 등)를 중심으로 조성

□ 세부사업 내용

① 기반시설 확충·고도화: 다목적 선석 확대, 복합물류단지 등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항만의 경쟁력 제고

② 항만배후단지 조성: 한중 산업 관계, 환적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항만배후단지 조성

□ 추진체계

○ 주관: 도 국토교통국

○ 협력: 정부 해수부, 국토부, 산자부 등, 서산시

○ 협조: 대산항 인근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3,000,5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반시설 확충·고도화	1,500,500	500	1,500,000		1,500,000	500		
항만배후단지 조성	1,500,000			1,500,000	750,000	450,000		300,000
총사업비	3,000,500	500	1,500,000	1,500,000	2,250,000	450500		300,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대산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대중국 수출입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국 무역 물동량 처리량 6위의 대산항은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고도화가 요구됨 • 또한, 급증하는 화물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타 항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항로 추가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두의 필요성이 대두됨 • 대산항 항만기본계획(국가계획)에도 중부권역 대중국 수출거점 육성 목표 • 향후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물동량 발생시 항만개발(부두 및 물류단지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항만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필요 • 대산항의 석유화학단지 위상은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이미 연료·생산품을 이송하는 배관망의 기반시설은 국내 타 지역에 비하여 좋은 여건임. 따라서,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역점으로 대산항 배후지역의 산업 특성을 확고히 하는 방안도 필요함. 이를 위해, 대산항 인근의 국가산업단지(1개소)와 일반산업단지(7개소)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역점 내용이 석유화학단지와 관련된 특화단지에 초점이 있는 바, 인근 국가산단, 일반산단에 취급 물동량 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 추진체계 관련	• 국가 상위계획인 항만 기본계획 상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항만기본계획수립(10년마다)과 연계하여 항만배후단지기본계획 수립 • 향후 물동량 여건 변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수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2-8	충청경협지원센터 설립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남북경협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협의 제도적 리스크 감축, 남북 상호학습체계 마련, 안정적 물류라인 확보 등이 지자체의 역할로 제시되고 있음

○ 북한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5개 특구, 26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으며, 경제개발구 개발 관련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음

○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남북 상호간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경협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대북제제 이전 단계에서 (가칭) '충청남북경협아카데미' 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협이 본격화되면 충청남북경협지원센터 설립하여 운영

○ 추진방향: 충청권이 공동으로 경협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남북 상호학습체계를 마련하고 남북경협 관련 공동협력을 모색

□ 세부사업 내용

○ 충청경협지원센터 설립: 경협기업 및 남북한 인사에게 남북경협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제공하는 전문기관 설립

□ 추진체계

○ 주관: 도 경제통상실

○ 협력: 정부 통일부 등

○ 협조: 서산시, 홍성군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4,5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충남남북경협지원센터 설립	4,500	1,000	3,500			4,500		
총사업비	4,500	1,000	3,500			4,5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응한 도 차원의 추진전략으로서 남북 경협기반 구축(남북경협지원센터 운영) 필요 •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추진 시 道의 체계적 지원역할 필요 • ※ UN 대북제제로 인해 남북경협은 불가능한 상황으나 향후 남북경협에 대비한 지원기구(가칭 충남남북경협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형태 등 사전 검토	

2-9	크루즈 항만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 방문 내국인관광객 선호도나 관광수입은 3위권이나, 외국인관광객은 매우 적은 상황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내국인관광객 선호도는 2015년에 2위, 관광수입은 경기도, 강원도에 이어 3위 기록

○ 최근 국내 크루즈 시장은 급성장하여 부산, 인천, 제주 이외에 여수, 속초항이 성장하고 있음.

※ 입국 크루즈관광객은 2005년 3만명에서 15.4만명(2010), 225.8만명(2016)으로 급증하였으나 사드 정국으로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최근 감소

※ 여수, 속초항은 최근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안정괘도에 올라서지 못한 상황임

○ 우수한 해안과 해양자원을 보유한 충남도 황해 크루즈 도시를 조성하여 크루즈 관광을 충남의 관광업 발전으로 연계하는 방안 절실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보령신항 등을 크루즈항으로 도시 전체가 크루즈 서비스체계를 갖추어 한중일 중소형 크루즈의 거점으로 육성

○ 추진방향: 초기에는 다목적 터미널 기능을 부여하여 성장한 후 크루즈터미널로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병행

□ 세부사업 내용

①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안 크루즈, 섬편 운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목적 터미널 조성 후 크루즈 터미널로 확충

② 항만배후단지 조성: 크루즈여행객을 겨냥한 관광자원 패키지화 및 크루즈서비스를 겨냥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 추진체계

○ 주관: 도 해양수산국

○ 협력: 정부 해수부, 문화관광부

○ 협조: 보령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랴오닝성 따렌, 일본 나가사키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956,45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크루즈터미널 조성	786,450		120,000	666,450	786,450			
배후단지조성	170,000			170,000	85,000	51,000	34,000	
총사업비	956,450		120,000	836,450	871,450	51,000	34,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현재 보령시는 보령신항에 적극적이나, 1999년 계획이 나온 이후 추진되지 않았음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일부 포함되었으나, 이는 언급정도 수준임 • 보령신항이 건설되고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높음 • 현재 에너지항만으로서 크루즈 접안으로 위한 신항 또는 접안시설 필요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장기과제로서 먼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크루즈항만 조성 이후, 기항지로서 중국, 일본과 연계 필요 • 일본은 나가사키보다는 후쿠오카(하카타)와 연계해야함

3.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3-1	충남 우수정책 수출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은 지난 20여 년간 첨예한 환경과 개발의 대립지점으로서, 급속한 경제성장 및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음

○ 북한, 동남아 등 지방정부에게 충남의 경험과 정책노하우를 수출하여 충남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협력 민간업체들의 사업발굴 지원과 수출을 간접 지원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충남의 경험과 정책을 체계화하고 정책수출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교류협력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제고

○ 추진방향: 정부의 지식공유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국제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세부사업 내용

① 기획재정부 KSP사업 참여: 기재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책에 공모하여 충남의 지역 차원 정책을 정부의 지식공유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입

② 충남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환황해지역 연수: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과학원, 일본(큐슈, 시즈오카)의 거점대학과 협력하여 충남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환황해지역 탐방 프로그램 실시하고 향후 동 분야 외국 공무원의 충남 연수 유치

③ 충남지역정책 교본 발간: 정부정책과 구분되는 지역차원의 정책영역에서 충남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사를 정리하고 교과서화

□ 추진체계

○ 충남도(미래성장본부) 주최

○ 충남연구원, 충남TP, 농업기술원, 경제진흥원 등 등 협업

○ 허베이, 산동, 장수 등 중국 지방정부 사회과학원,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등 일본(큐슈) 거점기관과 협력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1,2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재부 KSP사업 참여	100	100			100			
충남공무원 환황해연수	1,000	400	600			500	500	
충남지역정책사 발간	100	100				100		
총사업비	1,200	600	600		100	600	5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충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경험 지식공유 필요 • 개도국 지원 관련 H/W 에서 KSP 중심의 S/W 발굴로 추진 • 행정기관간의 교류협력으로 민간영역으로의 확산에 한계가 있음 • 충청남도 도지는 10~20년 주기로 발간, 행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나 정책 시행의 변화 추세를 판단하기는 부족함 • 충남의 그간 환경관리와 지역개발 성과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것은 충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정책사를 발간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충남의 • 외부에 전파할 가치가 있는 충남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정책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충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정책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발굴에도 유용할 수 있음	
사업 추진체계 관련	• KSP사업 추진협의회와 수석고문 선정을 위한 전문가 위촉위원회, 윤리지침, 사업운영 매뉴얼 등 추진	

3-2	환황해포럼 고도화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도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한 환황해포럼은 명망가와 학자 위주로 참여하여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자체 우수정책 공유 및 확산 플랫폼으로 포럼 성격을 정립하여 지자체 참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지자체 중심형, 정책공유 확산형 포럼으로 정체성 확립

○ 추진방향: 과도기를 설정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전환 추진

□ 세부사업 내용

○ 환황해포럼 고도화: 포럼을 명사 및 지자체장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내용적으로 지자체 정책 중신으로 운영하며, 정책 추천, 선정 및 시상 과정읔 통해 지자체 참여를 확대

□ 추진체계

○ 주관: 충남도, 충남연구원

○ 협력: 충남도 각 실국, 도내 연구기관, 환황해특별위원회 등

○ 협조: 국제행사 전문기관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8,3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환황해포럼 고도화	8,300	1,500	2,800	4,000		8,300		
총사업비	8,300	1,500	2,800	4,000		8,3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환황해포럼의 정체성, 범위, 주제설정, 안정성, 타 포럼과의 연관성을 고려 환황해포럼 개선 필요성 공감 • 환황해포럼의 정체성과 선명성을 명확히 해 포럼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 포럼과의 연계를 통한 확장성 모색 필요성 인지 • 환황해포럼은 황해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기 때문에 포럼 개선은 사회적 타당성을 담보함.
사업 추진체계 관련	• 환황해포럼의 협력 대상을 충남도와 재매, 우호지역을 집중해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무국 설치 시 회원제 운영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3	환황해 협동교육과정 설치·운영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4차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미네르바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주목받고 있음

○ 한중일 지식인이 협업, 융합, 현장 등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을 설립하여 창의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환황해 지역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교수진을 구성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환경, 에너지, 해양, 국제협력 등 공동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열어 인재를 양성하도록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한중일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협동교육과정을 설립하여 환황해 인재 양성

○ 추진방향: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초기에는 과목 시범개설, 글로벌 계절학기 등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정식 교육과정 설립 추진

□ 세부사업 내용

○ 환황해 협동교육과정 설치·운영: 충남 소재 대학을 포함한 한중일 대학이 환경, 에너지, 국제경제협력 등 공통사안을 중심으로 시범 과정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온라인 협동교육과정 운영(학위 인정 방식 검토 필요)

□ 추진체계

○ 주관: 충남도대학총장협의

○ 협력: 충남도립대학 등 충남 소재 대학; 국외 중국, 일본 대학들

○ 협조: 정부 교육부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4,5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환황해 협동교육과정 설치운영	4,500	500	2,000	2,000		500		4,000
총사업비	4,500	500	2,000	2,000		500		4,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사업에서 제시한 환경, 에너지, 해양, 국제협력 등 한중일 3국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함 •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공동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한중일 미래세대들이 국제적인 인재로 육성하는데 기여함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충남도와 충남도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협의회가 중국의 성, 일본의 현과 협의가능	

3-4	전략적 파트너십 시범사업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방안을 구현할 방안으로서 중국, 일본의 특정 지방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종합적인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긴요

○ 충남의 교류협력역량을 고려 전략적으로 특정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지방정부의 후원 아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환황해 교류협력방안을 검증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와 종합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여 다양한 교류협력방안을 검증하고 그 성과를 전파

○ 추진방향: 우선 중국의 성 단위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의제를 선정, 종합적인 실천 및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함

※ 중국에서 유력한 파트너 성은 허베이성과 쟝수성이며, 일본은 후쿠오카현임

□ 세부사업 내용

○ 전략적 파트너십 시범사업: 충남연과 중국 지방정부 싱크탱크가 공동연구 통해 협력의제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집행한 후 그 성과와 한계를 가려 확산

[전략 파트너십 통한 추진 가능 사업]

○ 국제 창취업 위크(창업 교류, 비즈니스매칭) 개최 상호 참여
○ 관광객 상호 교류(항일 유적, 온천 여행 등)
○ 충남의 날, 허베이의 날 행사
○ 투자 사절단 교환

□ 추진체계

○ 주관: 도 미래성장본부

○ 협력: 중국 허베이성정부

○ 협조: 충남연구원, 허베이성사회과학원, 각 측 민간협회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1,2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전략적 파트너십 시범사업	1,200	400	800			1,200		
총사업비	1,200	400	800			1,2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향후 한중간 경제통합의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화, 다변화가 화두가 될 전망 • 글로벌 성장둔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적 협력방안 모색 시급 • 다양한 사업과 교류방안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범사업은 시의적 적절 • 중국의 지역개발전략이 초국가적 차원(일대일로)에서 추진됨에 따라 적극적 편승 필요 • 본 사업의 관건은 제도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변화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동시.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기술적 측면은 정책과 시장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기본적인 탄력성은 확보된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차원의 개입은 불필요
사업 추진체계 관련	• 공동협력의제의 발굴 예산이 미약, 연구분야의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투입 필요. 토대의 중요성이 사업의 방향과 유인성을 담보하기 때문 • 재정확보 방식보다는 배정(분배)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 의전를 선도하기 위한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의제선정과 연구의 중요성 • 공동컨소시엄을 의제와 연구, 규제완화와 공동표준 설정에 적합한 주관 단위체가 필요. 초기엔 시장탄력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기업의 비중이 높아야,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비중 확대 • 5년 단위 사업안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정과 예측이 가능한 실질적 영향력과 책임이 보장된 위원회 및 상관조직 필요 • 방향성과 현실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예측과 판단 그리고 현실 타당성 없이는 진일보하기 힘듬 • 일국양제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대만과 홍콩을 개별 참여 대상으로 삼아여 하며, 추가적으로 신남방과 연계를 위해 싱가폴(국제성, 대표성) 참여를 고려해야 • 4차 혁명시대의 창취업은 지역의 분포와 진출 그 자체보다 규제완화, 연계성의 확보 및 공동표준을 통한 규범성. 통일성 확보가 필요, 개방적이어야

3-5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중국, 일본의 지역에 대한 연구 및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경제권역別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권역연구전문 연구기관은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팀을 만들어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미흡함

○ 일본 환동해경제연구원(ERINA)은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공동출자하여 환동해지역 연구를 수행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중국 산동성은 최근 환황해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함

○ 지자체별, 기업별로 연구를 각각 수행하기보다 안정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축적할 수 있는 연구조직 설치 필요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환황해 지역 데이터를 축적, 보급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환황해 데이터랩(Data Lab) 설립, 운영

○ 추진방향: 국책연구기관, 지방 정책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출자하여 설립하되, 과정에서 충남도 또는 충남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 발의하여 타 지방 정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 충남에 환황해 데이터랩 설치

□ 세부사업 내용

○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전단계에서 중국, 일본의 주요항만 통관정책 등 주제를 정해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정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 수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지자체,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기업 등이 출자하여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 추진체계

○ 주관: 도 기획조정실

❍ 협력: 충남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해안 광역지자체

❍ 협조: 산동성 환황해발전연구센터, 일본 큐슈경제조사협회, ERINA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총 6,000백만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6,000	2,500	3,500			6,000		
총사업비	6,000	2,500	3,500			6,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3개국 지방정부의 의견이 일치하면 추진 가능하고 환황해권의 역할이라고 사료됨 • 3개국 지방정부의 유대감 형성 및 협력관계 구축에 효과적임 • 국제 경제 및 정치 등에 공동 대응 가능 • 환황해권의 경제, 산업, 환경, 역사,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필요 • 환황해권 지방정부간의 유대감 형성 및 공동사업 발굴 가능	
사업 추진체계 관련	• 3개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조달해야 함 • 중국과는 가능하나, 일본은 연구파트너가 없어 좀 더 노력 필요 • 일본 큐슈경제조사협회, 아시아도시연구소와 협력 필요 • 중국 : 산동성 사회과학원 • 일본 : 큐슈경제조사협회, 아시아도시연구소	

3-6	외국인주민 더불어살이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 거주 외국인은 9만5천여 명으로 규모는 전국4위이며, 인구비중은 4.48%로 경기도 4.51%에 이어 전국2위(2016.11.기준). 천안, 아산, 당진에 집중 거주

○ 시군 또는 시민단체별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외국인주민이 충남도민의 일부로서 자신의 문화를 자랑하고 원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는 부족함

○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이나 한국문화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자신의 문화 정체성이 존중받는 충남인의 일부임을 대중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외국인주민에게 자신의 문화를 자랑하고 원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문화 존중과 교류를 촉진

○ 추진방향: 외국인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련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여 외국인은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원주민은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존중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외국인주민 페스티벌 개최: 충남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나라별로 관련 지원단체, 대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축제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하여 축제 개최

② 동아시아 용선(龍船)축제: 동아시아 공통 문화인 용선축제를 국내외 동호회, 선수단, 외국인 자녀, 유학생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최

※ 부여군의 백마강 카누경기장 활용 및 활성화와 연계

□ 추진체계

○ 주관: 도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 협력: 각급 지원 단체, 나라별 유학생 모임, 각국 대사관(영사관)

○ 협조: 천안, 아산, 당진, 부여 등 시군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8,1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외국인주민페스티벌	5,000	1,500	3,500			5,000		
용선축제 개최	3,100	1,000	2,100			3,100		
총사업비	8,100	2,500	5,600			8,1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과 협력적 교류관계 형성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단, 도내 거주 외국인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세부 프로그램이 필요 • 본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기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함 • 도내 거주 외국인과 지역민이 한데 어울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 마련의 매우 의미 있음	
사업 추진체계 관련	• 기본적 재원은 지방비로 하되, 행사 운영비의 일부를 각 국가의 바자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여 국가의 대사관의 협조, 후원이 필요	

3-7	국제 청소년교류 확대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현재 충남 각 시군별로 청소년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호응도가 매우 높고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민족국가 간 긴장과 대립이 여전한 환황해 지역에서 미래를 이끌어 갈 한중일 청소년들이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각 시군 차원을 넘어서 도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규모 있는 청소년교류를 추진하여 문화 개방성을 고취하고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국제 청소년 교류를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 개방성 및 국제적 마인드 함양

○ 추진방향: 일부 시군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타 시군에 확대하고 도 차원에서 별도로 중규모의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황해청소년캠프: 충남과 중국, 일본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상호 윤번으로 매년 황해청소년캠프를 개최하도록 함(장기적으로 북한 청소년도 포함).

② 청소년 홈스테이: 일부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타 시군에도 확산되도록 충남이 지원. 해당 지역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추진체계

○ 주관: 도 문화체육관광국

○ 협력: 충남도교육청

○ 협조: 도내 각 시군; 중국, 일본 지방정부 파트너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5,475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황해청소년캠프	3,600	1,200	2,400			3,600		
청소년 홈스테이	1,875	125	1,750			125	1,750	
총사업비	5,475	1,325	4,15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한중일 청소년이 참여하는 황해 청소년캠프 및 청소년홈스테이는 국제청소년 교류 확대에 필수적임 • 한중일 미래세대들이 황해청소년캠프를 통해 상호이해하는 기회 •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황해청소년캠프는 한국청소년연맹이나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실현가능성이 높음.	
사업 추진체계 관련	•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황해청소년캠프는 한국청소년연맹이나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실현가능성이 높음. • 자치단체, 충남청소년진흥원, 교육청 등에서 일부 지원가능	

3-8	황해문명 교류길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백제를 비롯한 충남의 역사자원은 그 자체로 환황해 지역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

○ 역사 속 황해문명 교류 발자취를 스토리텔링 발굴과 거점시설 배치 등을 통해 매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관련된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로 연계해야 함

○ 황해문명 교류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환황해 지역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관광 콘텐츠로 삼아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자원으로 승화시켜야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황해문명 역사자원에 근거한 테마 코스를 개발하여 환황해 유대감 증진과 중국, 일본 관광객 증가를 목표로 함

○ 추진방향: 스토리텔링 개발과 상징성 있는 거점시설 설립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살아 있는 테마코스로 개발

□ 세부사업 내용

① 역사 자원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안흥 송나라 사신 사행길 등 다양한 역사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이에 근거한 건축(객관), 음식, 의복 등을 재현

② 환황해문명교류관 건립: 환황해지역의 문명교류역사를 한눈에 보고 환황해 문명교류에서 충남이 담당한 역할을 드러내는 박물관을 주요 문명교류길목에 인접하여 설립

□ 추진체계

○ 주관: 도 문화체육관광국

○ 협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협조: 태안군, 서산시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61,6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1,600	600	1,000			1,600		
환황해문명교류관 건립	60,000		60,000		60,000			
총사업비	61,600	600	61,0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사업 부합성 관련	• 한중일간의 환황해권 역사교류를 통해서 문명, 문물, 인적교류 등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지속되어 중국 및 일본인이 함께 공감할 만한 스토리텔링 소재들이 풍부 • 일본으로의 백제문화전파, 한중간 불교 및 유교 문화교류, 한중일 사신왕래 등 스토리텔링 소재가 다수 • 역사자원 스토리텔링은 관광의 한 요소로 함께 활용될 때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일본인과 중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적을 연계한 적극적인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서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환황해문명교류관 전시콘텐츠로 결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환황해 문명교류총서를 발간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추진 가능함 • 충남도 자체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 환황해문명교류관은 충남이 환황해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의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합 • 특히, 내포지역을 통한 문명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충남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풍토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대산항-용옌항 개통 이후 내포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거점으로 활용가능하며, 불교유적, 유교유적, 천주교유적 연계한 문명교류사를 보여줌으로써 문화유산간 시너지 강화 • 충남도의 현안사업으로 유교문화원 건립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국제화를 위해서 '환황해유교센터'를 유교문화원내 설치하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환황해 유교문화 활성화를 통한 국제교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부합되는 사업으로 사료됨 • 유교문화는 환황해권 공동문명으로 학술교류, 문화교류에서 확장하여 상호 문화관광교류 등 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충남도-논산시)유교문화원 건립사업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충청유교문화원 개원(2021년)이 선행된 후 2022년 센터 설립 운영 • '환황해유교센터'는 道목적출연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가 사업주체가 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단체로 사업 수행 • 스토리텔링 결과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서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 등과 결과물 공유 • 충남도 공식 블로그 및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 백제관련 유물 소장 기관(구마모토장식 고분관, 나고야성박물관 등) 협력 • 유교관련 유물 소장 기관(산동성 박물관, 유학고등연구원 등)과 협력 • 한중일 사신왕래와 관련해서는 한일 통신사 네트워크 활용, 중국 양주 최치원 기념관 등 협력	

3-9	충청유교문화 국제화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청유교문화는 환황해 지역 유교공동체 문화의 일부로 환황해권 유대감 형성에 적극 활용이 가능한 문화자원이며, 향후 공동의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

○ 현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고, 향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유교문화원을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적극 유교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환황해권 관광객 유치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기 추진 중인 충청유교문화원 거점시설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서 충청유교문화의 국제적인 콘텐츠 발굴과 함께 관광객 유치 확대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환황해 공동문명 유교문화에 근거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환황해 교류 촉진 및 충청유교문화 국제화를 통한 국외 관광객 확대를 목표로 함

○ 추진방향: 기추진 중인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국제행사 추진 및 환황해 유교 네트워크 구축, 충청유교 국제화 콘텐츠 개발

□ 세부사업 내용

① 환황해 유교센터 설립: 기 추진 중인 충청유교문화원 내 충청유교 국제화를 위한 교류센터를 설치하고 환황해 유교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총괄

② 충청유교 국제포럼 개최: 환황해권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지방정부 및 기관 참여 국제포럼 개최 및 유교연구기관 국제 네트워크 구축

③ 충청유교 국제콘텐츠 개발: 충청유교 기록자원(예서) 세계기록유산 추진 등재, 환황해 유교전파 경로를 연계한 유교로드 테마길 조성, 국외 홍보자료 구축

□ 추진체계

○ 주관: 도 문화체육관광국

○ 협력: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협조: 충청북도, 세종시, 대전시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6,5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환황해 유교교류 센터 조성	3,000	1,500	1,500			3,000		
국제포럼 및 유교네트워크 구축	2,000	1,000	1,000			2,000		
충청유교 국제콘텐츠 개발	1,500	750	750			1,500		
총사업비	6,500	3,250	3,25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충남도의 현안사업으로 유교문화원 건립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사업의 국제화를 위해서 '환황해유교센터'를 유교문화원내 설치하는 것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환황해 유교문화 활성화를 통한 국제교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부합되는 사업으로 사료됨 •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국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문화관광 분야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충청권 대표적인 유교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기 추진되고 있는 충청유교문화원을 연계한 센터설치 및 운영을 통해서 향후 환황해권 유교문화 교류 활성화 및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해외 마케팅 창구로 활용이 가능 – '17, ' 18년 2회째 개최되고 있는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확대편성하여 학술행사와 함께 전시 및 공연으로 연계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영남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환황해 유교교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향후 환황해권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교류 플랫폼으로 육성함으로써 환황해 유교테마 문화교류 및 관광교류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9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예산이 내포권(보령/서천/홍성/태안)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보됨에 따라 추진가능
사업 추진체계 관련	• 센터운영 인건비와 목적사업비 연간3억원 이내로 운영하되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사무공간 등은 충청유교문화원 공간 활용하여 비용절감시키고 업무 시너지를 높임 • 2022년 센터설립 후 5개년 계획으로 운영 • 성과평가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 유교활성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과 협력 강화 • 북한의 경우 황해도 율곡 이이(기호유학)를 매개로 한 교류 타진 • 일본 문묘, 베트남 사회과학원(철학원, 동북아연구원, 한놈연구원) 등과 협력 • 유교활성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과 협력 강화 • 북한의 경우 황해도 율곡 이이(기호유학)를 매개로 한 교류 타진 • 일본 문묘, 베트남 사회과학원(철학원, 동북아연 구원, 한놈연구원) 등과 협력

3-10	국제화 도시 시범 사업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충남을 환황해 초국경 연결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지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글로벌 면모를 부각할 필요가 있으나, 충남 대부분의 지역들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국제화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교통안내, 공공안내 표시, 음식점 매뉴판 등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 언어 인프라 측면에서 국제화가 더딘 상황임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충남의 도시(지역)의 생활 언어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외국인 관광객 및 주민의 편의성 제고

○ 추진방향: 충남 소재 일부 도시(지역)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

□ 세부사업 내용

○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충남의 많은 지역 중 국제 언어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주요 관광지, 외국인주민 밀집지 등)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지역)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공공안내표시, 음식점 메뉴판 등의 다국어화, 도로명의 상징화(가령: 헤베이로 명명) 등을 시행하고 평가를 거쳐 타 도시(지역)로 확대

□ 추진체계

○ 주관: 도 문화체육관광국

○ 협력: 국토교통국, 자치행정국 등, 선정 도시(지역)

○ 협조: 충남관광협회 등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2,6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2,600	1,300	1,300			1,300	1,300	
총사업비	2,600	1,300	1,300			1,300	1,300	

3-11	장애인 친화 지역 조성	단기	중기	장기
		자체	국가	민자

□ 배경과 취지

○ 노령인구 증가와 질 높은 삶에 대한 추구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편하게 생활하고 통행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지역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국내에서 경남 진주시의 무장애도시 선언, 강원도와 서울시의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충남은 천안시와 내포에서 무장애시설 운동이 시민운동차원, 도시계획 차원으로 시도되고 있음

○ 충남의 일부 시군을 선도적으로 장애인 친화 지역으로 조성하고 이를 환황해 지역 차원에서 도시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시군 단위로 장애인 친화 지역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질 개선과 관광객 유입 증대

○ 추진방향: 도 차원보다는 추진의사가 있는 일부 시군을 선정하고 한중일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세부사업 내용

① 무장애 통행 구축: 공모를 통해 시군을 선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무장애통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예산지원 및 컨설팅 지원

② 국제 장애인 미술 체험 공간 조성: 지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미술관을 설립하고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확립

※충남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충남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체계

○ 주관: 도 행정자치국

○ 협력: 각 시군,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장애인단체협회

○ 협조: 국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국, 일본 지방정부 파트너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 7,800백만 원

세부사업	계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무장애 통행 구축 사업	5,900	500	1,800	3,600		5,900		
국제 장애인 미술 체험 공간 조성	1,900	500	1,400			1,900		
총사업비	7,800	1,000	3,200	3,600				

□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사업 부합성 관련	• 민선7기 도정기조가 복지수도 충남을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본 사업의 부합성 매우 큰 편. 현재 충남의 장애인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본 사업의 부합성 큼 • 한정된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중이용시설의 편리한 이용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 클 것으로 예상 • 즉, 사회적 파급력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사업 추진체계 관련	• 환황해권에서 무장애도시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선전시, 사이타마현과의 정책교류 방안 마련 필요

V. 중점 추진 선도사업

1. 선도사업의 선정

1) 선도 사업 선정 필요성

▸ 시행계획의 방대함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은 정책사업 32개, 세부사업 58건을 포함
- 소요예산은 15조 원에 달함
- 계획 기간이 22년에 걸친 장기계획임

▸ 예산과 인력 선택과 집중 필요

- 초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지속추진 동력 확보 가능
- 실과에 시행을 맡기더라도 전체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 필요

- 시행계획: 정책사업 32개, 세부사업 58개
- 소요 예산: 총 15,529,275백만원
  - 단기 33,715백만 원, 중기 11,973,610백만 원, 장기 3,522,050백만원
- 사업 기간: 2019~2040년(22년 간)

-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필요
-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파급력 있는 사업 우선 실시
- 선도사업 선별 추진

2) 선도사업의 요건

▸ 선도사업이란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중 단기(2019-2023)에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군)을 의미

- 실무적으로 선도 사업은 시행계획의 제1단계인 2019~2023년 기간 시행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의함
- 선도사업의 후보군은 단기 사업인 경우 모든 사업 그리고 중장기 사업 중 제1단계에서 시행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중장기 사업의 경우 단계별로 단계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인식하여 선도 사업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함

▸ 선도사업은 모든 단기사업 및 중장기사업의 초기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단기 사업은 단기에 시행,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의미
- 중장기 사업 중 향후 5년 내 추진해야 하는 단계별 사업을 포함

3) 선도사업 선정 기준

▸ 선도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세부사업 중 다음 3가지 측면을 선정기준으로 고려함

①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 목표, 실현전략과의 관련성

② 사업의 부합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 평가

③ 사업의 상징성, 전략적 의의 평가

▸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 목표, 실현전략과의 관련성

-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비전, 목표, 실현전략과의 관련성은 32개 정책사업, 58개 세부사업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준거로 사용되었으며, 선도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준거임
- 비전, 목표, 실현전략은 각각 그 추상성이 상이함으로 고려, 선도사업은 '목표'를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도사업을 검토함

※ 특히 본 과제에서 제시한 3대 목표는 상이한 분야의 상응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선도사업은 목표별로 선정하는 층화 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도록 함

▸ 부합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 측면의 적합도

- 〔**부합성**〕은 환황해 이니셔티브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부합하는가를 의미하며, 합목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파급력**〕은 해당 사업이 구현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의 크기를 의미하며, 경제적 파급력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파급력도 포함하는 측면임. '경중완급' 개념에서 '경중'을 가리는 측면임
- 〔**시의성**〕은 사업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시의성이 클수록 제1단계(2019-2023)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임. '경중완급'에서 '완급'을 가리는 측면임
- 〔**실현가능성**〕은 사업을 구현하는 난이도를 의미하며, 실현가능성이 클수록 적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고도 달성할 수 있음을 뜻하고, 실현가능성이 작을수록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만 달성할 수 있음을 뜻함

▸ 사업의 상징성, 전략적 의의를 추가로 고려

- 선도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부합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 이외에 그 사업의 상징성, 전략적 의의를 추가로 고려해야 함
- 사업의 상징성은 연구의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합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 집합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임

  ※ 연구의 맥락이라 함은 본 용역이 발주될 때 발주처나 수주처가 인식하는 연구용역의 지향성 등으로서 이와 관련한 맥락 정보는 제3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임.
- 전략적 의의는 본 과제가 제시한 32개 정책사업, 58개 세부사업의 내재적 논리구조에서 핵심적이라 판단되는 전략성을 의미하며, 논리적으로 타 사업과 선후관계를 이루거나 주종 관계를 이루는 성질을 의미함

4) 선도 사업 선정 절차

▸ 선도사업 선정 절차는 모집단의 획정, 도민평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을 도출함

- 모집단의 획정은 본 용역에서 도출한 32개 사업, 58개 세부사업을 모집단으로 설정함
- 단, 선정 과정에서 신규로 제안되는 사업은 연구진 검토를 통해 선도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함

(1) 모집단의 확정

▸ 선도사업 선정의 모집단은 본 용역과정에서 도출된 32개 정책사업, 58개 세부사업의 집합임

- 선도사업을 도출하는 기본 단위는 '세부사업'이며, 세부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제시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
- 본 용역과정에서 도출한 사업(안)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과 자원을 투입의 제약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나 그 맥락성과 전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도사업 선정에 고려함

(2) 도민평가

▸ 모집단에 대해 설문조사 방식의 도민평가를 부합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수행

- 설문조사 방식은 환황해 이니셔티브 목표별 세부사업에 대해 우선 선도사업을 선택하게 한 후 선택의 이유를 부합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후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은 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 하위 집단으로 구성하며 전체 설문 참여자가 300명 이상이 되도록 안배함
- 목표별 세부사업 중 가장 접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안을 3가지씩 무순위로 선택하게 하여 그 빈도수를 가지고 순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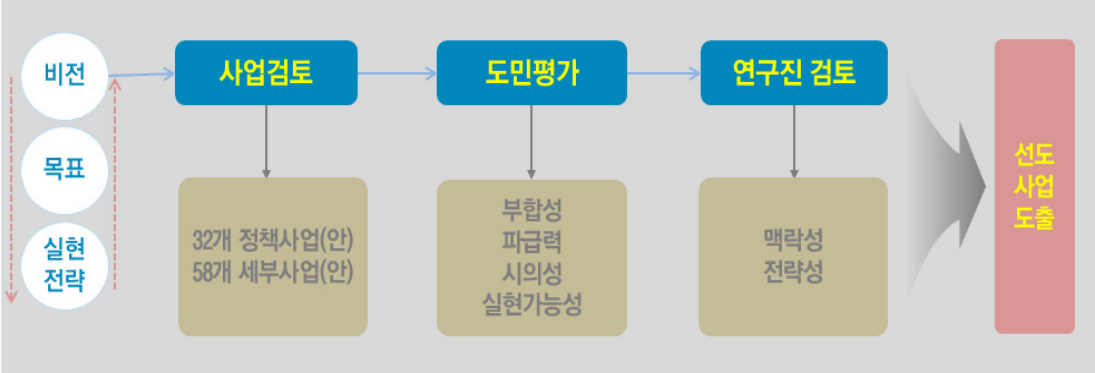
(3) 연구진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한 도민평가결과에 대해 사업의 맥락성, 전략적 의의를 추가로 고려하여 선도사업을 선정**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부합성, 파급력, 시의성, 실현가능성 각 측면에서 상위 5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체크하고 최소 3개 이상 측면에서 상위 5위에 랭크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선도사업 최종후보군 도출
- 선도사업 최종후보군과 도민평가의 빈도수 순위 결과를 대조하여 특정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사업안에 대해서는 최종 선도사업 선정시 재검토 실시

※가령,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은 그 시의성으로 인해 도민평가 순위는 높으나 파급력,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음

- 도민평가, 연구진 검토를 종합하여 선도사업을 9개 정책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확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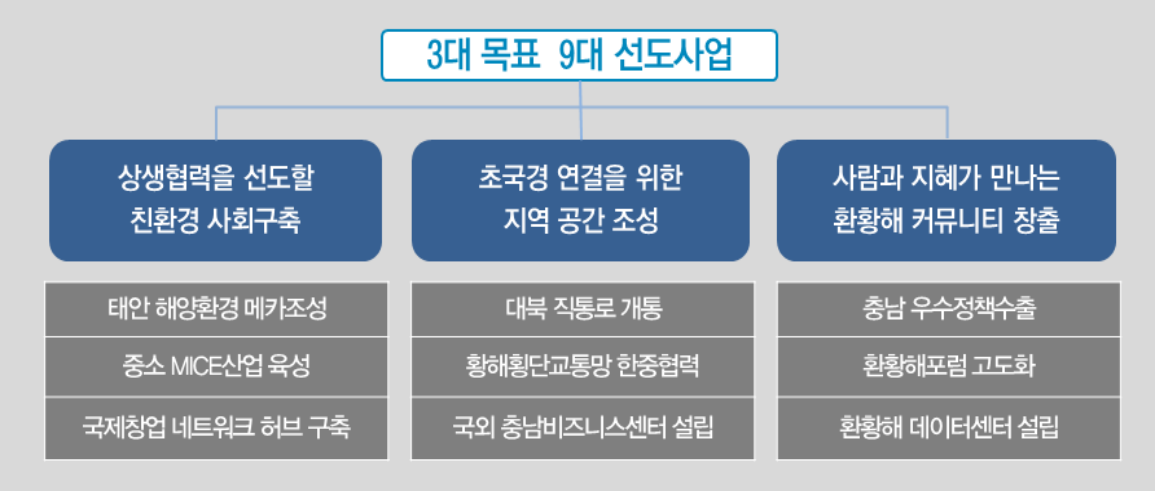


[그림 5-1] 선도사업 선정 절차

2. 목표별 선도사업 개요

1) 목표별 선도 사업 선정 결과

- 목표별로 3개 선도사업 도출, 총 9개 선도사업
- 3개 목표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목표별로 3개씩 선도사업 도출
  - 실현전략 위계보다는 목표 위계에서 선도사업 선정
  - 실현전략은 추상 수준이 구체적이며, 실현전략이 6개인 상황에서 기초 모집단을 너무 좁게 한정할 경우 선도사업의 기계적 배분 가능성 있음을 고려, 목표 위계에서 선도사업 풀 설정
- 9개 선도사업, 18개 세부사업 도출
  - 선정된 선도사업은 모두 18개 세부사업을 포함함



[그림 5-2] 환황해 이니셔티브 선도사업

2) 목표별 선도사업의 맥락 도해(1): 친환경 경제

주요 현황

- 충남은 에너지다소비 및 자본집약 경제구조임 → 미래 친환경 기술집약 경제 전환이 시급함
- 중국,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으로 환황해권의 지속적인 환경악화 예상
- 충남은중간재, 소비재수요다변화, 서비스 및소비재중국의존심화예상

목표 및 전략

- 환황해 환경협력 선도 및 친환경 선진산업 육성
  - (에너지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저감 (0.306 → 0.230)
  - (1인당 소득) 개인소득 5000만원 (1,666만원 → 4,000만원)
  - (외국인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

1. 상생협력을 선도할 친환경 경제구축

시행계획

정책사업 (안)

- [국제해양환경 메카 조성]
- [환경공동모니터링]
- [황해갯벌 보존네트워크 구축]
- [황해에코파트너십]
- [충남 레저휴양 국제화]
- [중소 MICE산업 육성]
- [체류관광권 조성]
- [전통식품산업 육성]
- [동아시아그린바이오산업육성]
- [국제창업네트워크 허브 조성]
- [차세대동력산업클러스터조성]
-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선도사업(안)

- 1-1) [국제해양환경 메카 조성]
  - 국제환경상 제정, 해양NGO육성, 환경오염체험관 구상
- 1-2) [중소MICE 산업 육성]
  - 천안아산 MICE기지 조성, 서해안 MICE기지 조성
- 1-3) [국제창업 네트워크 허브 조성]
  - 국제창업위크,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국제창업센터 건립

2) 목표별 선도사업의 맥락 도해(2): 초국경 지역 공간 조성

주요 현황

- 일대일로(중), 고품질인프라파트너십(일), 한반도신경제구상(한) 등 거대 구상 간 경쟁 및 협력 가능성
- 충남 공항, 항만 미비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 우려
- 충남은 초국경 네트워크로의 연결이 필수

목표 및 전략

- 초국경 교통망에의 연결과 충남의 대외 교역 거점 조성
  - (지표1) 국제관문 도달 교통 시간 2시간 이내
  - (지표2) 국제교통 관문 3개 신설(대산항, 해미국제공항, 보령항)
  - (지표3) 북한 직통로수 2개(당진·인천·개성 고속도, 해주항, 남포항 통항)

2. 초국경 연결을 위한 지역 공간 조성

시행계획

정책사업 (안)

- [대북 직통로 개척]
- [황해횡단교통망 한중 협력]
- [중부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
- [국외 충남비즈니스센터 건립]
- [대산항 환황해 거점항만 육성]
- [충청남북경협지원센터 설립]
- [크루즈 항만 조성]

선도사업(안)

- 2-1) [대북 직통로 개통]
  - 당진인천개성 고속도 건설, 대산항-해주항(남포항) 통항
- 2-2) [황해횡단교통망 구상 한중 협력]
  - 해저터널, 열차페리, 쾌속선, 소형항공기 등 관련 기초공동조사
- 2-3) [국외 충남비즈니스센터 설립]
  - 충남 비지니스센터 설치(상하이)

4) 목표별 선도사업의 맥락 도해(3):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주요 현황

- 환경과 개발의 대립지점에서 충남은 다양한 정책경험 축적
- 한, 중, 일 각국의 환황해권에 대한 인식 점차 강화
- 충남 외국인 10만 명에 육박하나 지역의 국제화 수준 낮은 편
- 국제화된 장애인 친화지역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목표 및 전략

- 교류협력 심화 및 포용사회 촉진
  - (지표1) 국제회의개최건수*200건 달성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가 매년 발표
  - (지표2) 다문화계층 인권존중 수준 7.0 이상(충남사회지표)
  - (지표3) 지(知)충남 환황해 시민 1,000인 양성

3. 사람과 지혜가 만나는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시행계획

정책사업 (안)

- [충남 우수정책 수출]
- [환황해포럼 고도화]
- [환황해협동교육과정]
- [전략적 파트너십 시범사업]
-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 [외국인주민 더불어살이]
- [국제 청소년교류 확대]
- [황해문명교류길 조성]
- [충청유교문화 국제화]
-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 [장애인 친화 지역 조성]

선도사업(안)

- 3-1) [충남 우수정책 수출]
  - 기재부KSP사업 참여,공무원 황해연수,지역정책 교본 발간
- 3-2) [환황해포럼 고도화]
  - 지자체중심형, 정책 공유·확산형 포럼으로서의 독자성 확립
- 3-3)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3. 선도사업 개요

1-1) 태안 해양환경 메카 조성

▸ 사업 필요성

-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자원봉사자 정신을 기리고 태안을 해양환경 보호 및 환경 복원 성지로 조성

▸ 사업 내용:

- 환황해지역 해양환경 보호·복원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태안환경상 제정 및 수여
- 환황해 해양환경 협력의 지역 구심점 형성을 위해 충남의 해양환경NGO 육성
- 환경오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VR, AR을 활용한 환경오염체험관 건립구상 마련

▸ 추진체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추진주체		비고
				주관	협조	
환경상 제정	태안환경상 제정	태안환경상 시상		미래정책과	태안군	국제협력
충남 해양NGO 육성	국제NGO대회	충남 해양NGO출범 및 활동		해양정책과	국내외 NGO	국제협력
환경오염체험관 건립	체험관 구상 마련	환경오염체험관 설립 및 운영		서해안유류사고 지원과	태안군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국제해양환경상 제정	국제해양환경상 추진단 구성	재원 및 추진체계 마련	국제해양환경상 제정 및 시상			해양정책과	태안군
충남 해양NGO 육성	국제 해양NGO대회 충남유치		충남 해양NGO출범	충남 해양NGO 사업지원		해양정책과	국내외 NGO
환경오염체험관 건립	체험관 구상 마련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활용)	환경오염 체험관 설립 타당성 조사	정부 건의	환경오염체험관 설립 및 운영		서해안유류 사고지원과	태안군

▸ 전문가 의견

- 시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단설립이 가장 안정적인 방안임(허베이특별법에 의거, 국가지원을 통해 재단기금 규모 100억원 이상 확보 적정)
- NGO간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제도적 제약은 없으며, 국제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정책 학습효과가 기대됨
- 충남은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18.10)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해양환경교육은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분야임
- 태안군에서 추진 중인 자원봉사교육관 건립과 연계추진하여 시행력 확보 필요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해양환경상	△	○	△	△
해양NGO	◎	○	○	○
환경오염체험관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참고자료

- 허베이 특별법(2008.3.14)에 의해 상 제정의 근거가 확보됨
  - 동 법"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 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를 추진의 제도적 근거 원용 가능
- 유류피해극복기념과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력 확보(물리적 기초 마련)
  -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17.9)
- 해양쓰레기 공동조사는 충청남도 2018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세부실행계획 추진과제에 올라 있음
- 사업추진 협력체계
  - 한국 OCEAN, 중국 렌두(중국의 유일한 해양쓰레기 NGO단체로 국제해양환경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YSLME, PEMSEA 등 해양 환경 국제프로그램 연계
- 주요 국제환경상 사례 개요

이름	그린애플어워즈 (The Green Apple Awards)	골드만환경상 (Goldman Environmental Prize)	에너지글로브어워드 (Energy Globe Awards)	한일국제환경상 (The Asian Environ mental Awards)
성격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동북아시아
제정년	1994	1990	1999	1995
수상 대상	환경보호 관련 모범사례를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	풀뿌리 환경운동가(개인 또는 단체),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섬나라에서 1명씩 총 6명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을 한 프로젝트, 지역, 단체, 개인 등	동북아시아 환경 보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주관	그린 오가니제이션 (The Green Organization),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	골드만 환경재단	에너지글로브 재단 ,오스트리아 비영리단체	조선일보사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사(每日新聞社)
후원/지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 영국왕립예술협회(RSA) · 영국 환경청	환경운동 그룹 및 개인의 추천	명예이사진, 지원이사진에 소속된 수 백의 단체, 개인	사무국 운영
수여품	상장, 상패, 상금 없음	상장, 상금(17만5천달러/인, 2017년)	상장, 상패, 상금(1만 유로)	상장, 상패, 상금(1만 달러)

1-2) 중소 MICE산업 육성

▸ 사업 필요성

- 천안·아산 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의 중소 MICE산업 육성 기지를 조성하여 충남의 관광서비스업의 질적 도약 필요

▸ 사업 목표

- 천안아산 지역 중소 MCIE산업 추진체계 구축
- 보령 지역 중소 MICE산업 추진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천안·아산역 R&D집적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계획(2022년)을 겨냥, B2B형 MICE시설과 관련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역관광, 체험 연계사업 마련
- 충남의 관광수요가 큰 보령(태안 일부 포함) 지역의 대형 리조트 시설을 중심으로 관광형 MICE 서비스 및 관광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천안•아산MICE추진체계구축	1,000	1,400			1,700	700	
서해안 MICE추진체계 구축	2,000	1,400			2,700	700	

▸ 추진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천안•아산MICE 추진체계 구축	기초조사 및 방향 정립		시범사업 시행		평가 및 개선	관광마케팅과	천안, 아산
서해안 MICE 추진체계 구축	기초조사 및 방향 정립		시범사업 시행		평가 및 개선	관광마케팅과	태안, 보령

▸ 전문가 종합 의견

- 그간 전무했던 충남지역 B2B형 MICE육성을 통해 타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 기대
- 국토 중부지역의 중소형 MICE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관광 육성 가능성이 기대되나 서해안 지역의 경우 세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천안아산MICE	○	○	△	○
서해안MICE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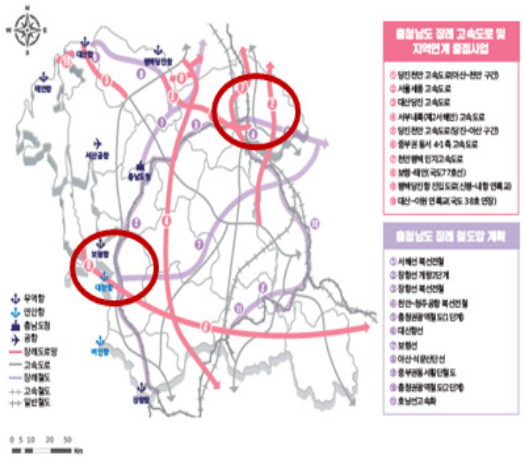
참고자료

- 충남 중소MICE산업 관련 인프라 현황
- 준회의시설(중소) :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3실 이상(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충남지역 MICE지역시설수용능력
- 전국 1,266개 시설 중 충남 72개
- 중소MICE 수용능력 시설수: (200-499명: 56개/ 500-999명: 24개, 1,000명 이상: 7개)
- 충남은 Meeting, Convention 만 집계가능. (Incentive tour, Exhibition) (전문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박물관, 문예회관, 연수원/수련원, 기차역 내 회의시설,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 대학교, 여행사 등)
- 충남 관광특구(2개소): 보령 대천해수욕장, 아산온천
- 여객수송관련
- 충남도 철도 여객수송 2,266만명/년, 대천역은 100만명 초과 철도역
- 충청지역 방문 관광객 중 천안(독립기념관)이 14.0%로 가장 많고, 2위는 아산(외암민속마을)임(문체부,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2040년 충남 MICE인프라 개선
- 보령 대규모 리조트(2023) 계획
- 보령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안) 발표(사업 준공예정 ~ 승인일~2023.12.31, 966,748m2, 2,253실)
- 안면도 연육교-국도 77호선(진행중, 2021완료)
- (보령 대천항~태안 안면도 영목항 14.1km): 보령(대천항)-태안(안면도) 1시간40분-> 10분으로 단축
- 중부권 동서4-1축 고속도로(장래계획): (보령~경북 상주, 154.1km, 61,486억원)
- 보령선(장래계획) : 조치원~보령, 89.2km, 18,760억원, 대통령지역공약사업,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추진예정, 2023), (천안~청주, 59km, 8,216억원)

충남 관광단지, 특구 위치도

자료: 충남관광비전(2015)

안면도 보령 연육교 노선



자료:충남정책지도,충청남도고속도로및철도현황과계획(2018,충남연구원)

<충남 고속도로 및 철도 계획>

<충남 주요 기차역 이용고객현황>

1-3) 국제창업 네트워크 허브 조성

▸ 사업의 필요성

-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여건을 바탕으로 국제 창·취업을 활성화하여 청장년 실업을 완화하고 충남경제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인재역량 강화 필요

▸ 사업 목표

-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여건을 바탕으로 국제 창·취업을 활성화하여 청장년 실업을 완화하고 충남경제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인재역량 강화 필요

▸ 사업 내용

- 단기적으로 창업 사례의 교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창업 국제교류회, 투자자·창업자 매칭, 우수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
- 특정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개최
- 천안아산에 국제창업센터를 설립하고 중국, 일본의 파트너 창업지구와 네트워크를 형성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국제창업위크	500	700			1,200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1,000	1,400			2,400		
국제창업센터 설립	1,000	10,000		3,000	2,000	3,000	3,000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국제창업위크	추진체계 구축	창업위크개최	지속 개최			신성장동력과	충남벤처협회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추진체계 구축	대회 개최	지속 개최			신성장동력과	충남벤처협회
국제창업센터 설립	국제창업센터 설립방안 마련			센터 설립 정부 지원 확보		신성장동력과	미래부

▸ 전문가 종합 의견

- 대상을 청년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이 보유한 기술중심의 창업방안 구성 고려
- 기업 및 기술창업 지원기관과의 역할이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임
- 청장년취창업대상자-교육기관-기업-정부의 다자협력 구조 구축필요
- 대기업의 자금과 인프라가 투자되고 적절한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민자 투자 우선의 재원확보가 우월할 것임
-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365발명대회' 기 추진 중이므로 명확한 대상 및 연계가능성 마련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국제창업위크	○	○	△	△
발명대회	◎	△	△	△
국제창업센터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참고자료

[제도적 타당성]

- 신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개선('19년부터 적용)
  - 규제개선에 따라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스타트업 유인에 시의적절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연계 필요

[환황해지역 청년창업지구 사례참고]

- 난징 청년창업공간 [Youth Sace]
- 민간 +장수성, 난징시, 구러우구 등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운영
- 후쿠오카 창업공간[Growth Next)
- 2014년 폐교된 다이묘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민관공동기구

[국내 유사사례(1): 인천경제자유구역(Fress Economic Zone)]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실현 전략의 핵심지역, 2003년 8월 국내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123.65km2 규모지정
- 지원내용: 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절차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개발계획 실시계획 권한 전면 위임, 부동산투자 이민제 실시, 조세 인센티브 대상 확대 등 총 18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국제기구유치: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MICE산업 활성화 기여)
- 제1호 IFEX개발모델(해외도시) 수출 : 에콰도르 야차이 신도시(USD971만불 계약)

[국내 유사사례(2): 제주국제자유도시]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사업운영
- 외국인 투자 특례 허용: 미화 5억불 이상 투자시 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 허용, 고용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희망 외국인 도지사 추천서로 갈음, 외국인투자가 장기 체류 허용
- 외국인 출입국관리제도: 무사증입국-특별법 제197조, 제198조, 세계 169개국에 대해 관광 또는 통과 목적의 무사증 입국 허용(최대 30일) /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5년)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강화 : 특별법 제208조, 209조, 210조, 무주택자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 마련,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의무고용 특례적용,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고용시 고용보조금 지급
- 국제의료환경 조성 : 특별법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외국 의사약사 면허소지 인정)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내국인 면세점 혜택, 외국인카지노 설립허가 조건 완화

후쿠오카 - Growth Next>

<난징 - Youth Space>

2-1) 대북 직통로 개통

▸ 사업 필요성

- 남북경협의 접경지역 집중 타파 및 충남 대외 교통망 지위 향상 위해 태안반도를 삼남지방과 북한 핵심지역 연결 교통 중추로 건설

▸ 사업 목표

- 당진·인천·개성 고속도로 당진(석문산단)-인천공항 구간 건설사업 국가사업 고시
- 남북해운합의서에 '대산항'을 남북개설항으로 추가

▸ 사업 내용

- 당진·인천·개성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 관련 공감대 확보 및 국가사업화
- 남북경협 접경 지역 집중 타파 필요성 관련 공감대 확보 및 관련 법규 개정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1)	2단계 (2022-2023)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당진인천개성 고속도 건설	600	(40,000,000)		(40,000,000)	600		
대산항-해주항(남포항) 통항	300				300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당진인천개성 고속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5차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		공론화(국회 토론회 등)		당진•인천 구간 사업 고시★	도로교통과	충청권 지자체
대산항-해주항 (남포항) 통항	해수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 통일부등 협의		남북해운 합의서 개정★	대북물자 개시		해운항만과	충청,전라, 경상 지자체

▸ 전문가 종합 의견

- 충남이나 충청권을 배후지로 설정하지 말고 삼남지방을 배후지로 삼아야 함
- 당진 · 인천 · 개성 고속도로는 국토축을 해양으로 이동한다는 의의도 있음
- 충남의 공항, 항만의 수도권 편대화를 위한 물리적 발판 의의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당진인천개성 고속도건설	○	○	△	○
대산항-해주항 통항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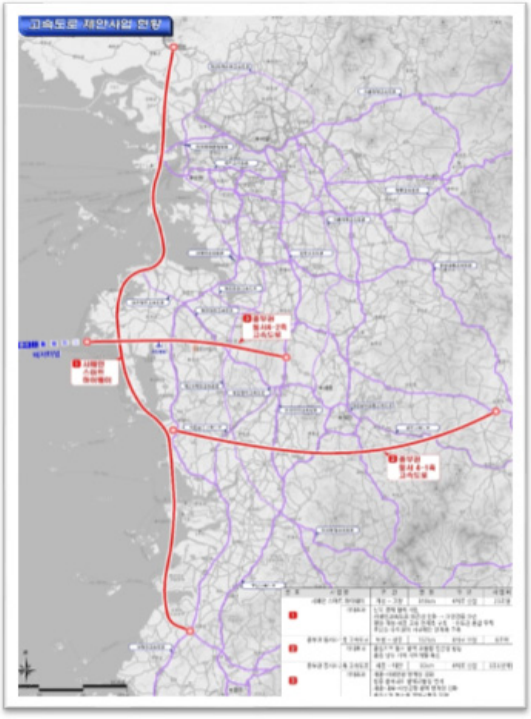
참고자료

[당진•인천•개성 고속도로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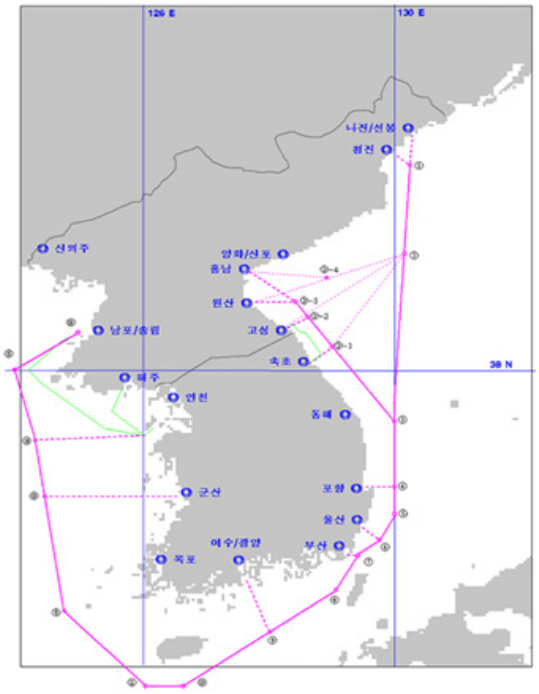
- 제5차국토종합계획(2021-2040), 제2차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1),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6) 등

[대산항-해주항 통항 관련 제도]

- 남북해운합의서(2004.5.28.) 제4조(항로개설) 제2항("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 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규정에 의거 대산항 추가
- 우선 북측 개설항인 해주항과 통항을 추진하되, 북측 사정으로 곤란할 경우 남포항과 통항 우선 추진
  *부속합의서에는 개설항 목록에 해주항이 빠져 있는데, 이는 해주항이 군사시설 밀집지역이기 때문으로 추측
-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협정 주체는 남측 통일부 장관, 북측 내각책임참사



[그림] 충남 도로교통 제안
출처: 충남도청



[그림] 남북 해상 항로대
출처: 남북해운합의서

2-2) 황해횡단교통망 구상 한·중협력

▸ 사업의 필요성

- 한중일 최단 노선에 위치한 충남의 지리적 우위를 실현하고 대중국 교통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충남과 산동(중국)을 연결하는 노선 구상 필요

▸ 사업 목표

- 구상 관련 타당성 조사 보고서 수행 및 성과물 공개 출판
- 한·중 지방연구원 및 국책연구기관 협조 체계 구축

▸ 사업 내용

- 충남과 산동 연결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
- 한·중 지방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양국 국책연구기관 관여 확보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1)	2단계 (2022-2023)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비고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한중 해저터널 기초 조사	620				620			한중 협력
열차 페리, 쾌속선, 소형항공 구상 연구	620				620			한중 협력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한중해저터널 기초조사	수행체계 구축	연구 수행		성과물 양국 공동 출판★		건설정책과	중국 산동성
열차, 해운, 항공망 구상 연구	수행체계 구축	연구수행			성과물 양국 공동 출판★	건설정책과	

▸ 전문가 종합 의견

- 해저터널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조사연구에 한정하여 추진
- 충남이 주도하기는 하나 국책연구기관(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하는 방안 모색
- 협력 성과를 반드시 가시화 시켜야 하며, 최종 성과를 출판물로 남겨야 함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한중해저터널	○	○	○	△
열차,해운,항공망구상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참고자료

[한중 주요 인식]

- 한국: 남북종단철도 개통되면 해저터널, 열차페리 등 황해횡단교통망의 타당성 낮아진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남북종단철도와 황해횡단교통은 연결지역이 상이하다는 소수의견 있음
- 중국: 현 한중교역 규모가 해저터널이 필요한만큼 크지 않으나, 일대일로의 연장 일환으로 열차페리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임

[중국측 파트너(안)]

- 산동성교통과학연구원 : 산동성 정부 산하 교통전문연구원
-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국가급 연구소

[그림] 동북아 메타경제권 개념도
출처: 서종원, KDI북한경제리뷰(2016.2월호)

[그림] 중한해저터널 노선도
출처:
http://news.sina.com.cn/c/2009-10-30/080016525595s.shtml

2-3) 충남 비즈니스센터(상하이) 설립

▸ 사업의 필요성

- 중산층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일본의 주요도시에 현지 거점을 설치하고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

▸ 사업 목표

- 거점 통한 충남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계약 누계 2,000만달러 달성 (2020~2022년 당해 가격 기준)
-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 마케팅 수행

▸ 사업 내용

- (가칭) 충남비즈니스센터를 중국 상하이에 설치 운영
- 중소기업 수출계약 알선,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 수행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비고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충남비즈니스센터 (상하이)설치•운영	2,100	1,400	2,000		5,500			4억원/년• 소요 예상
센터 확대 설치 (베이징, 호치민)		3,000	4,000		7,000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국가	도	시군	민간
충남비즈니스 센터(상하이) 설치운영	조례제정, 공모 등 사전 준비	센터 설치•운영			센터성과 평가★		○		

▸ 전문가 종합 의견

- 현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식 권장, 공무원 파견 금지
- 과거 상해사무소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 경기비즈니스센터 외 일본 지자체의 한국사무소 모델로 다양하게 검토하길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충남비즈니스센터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참고자료

[유사사례: 경기비즈니스센터]

- 설립 목적: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 설립 연도: 2005년부터
- 설치 현황:
  - 10개국 13개소(중국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등 4개 지역)
- 중국 GBC 주요 역할:
- 중국수출마케팅 지원, 전시회 공동관 운영, 중국 G-FAIR 개최, 통상촉진단 운영, 판로개척 지원, 국내수출상담회 바이어 지원, 경기도 대표처 기능
- 센터 운영비: 연간 30만 달러 수준
- 센터 인력: 모든 직원 현지채용, 직원 4-5명 수준
- 참고 사항:
  - 상해 센터가 중국 4개 센터 중 가장 월등한 실적을 보임(2017년 기준 수출 계약액 7백만 달러, 중국 전체의 1/3이상 차지)
  - 경기도는 공무원 파견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엄격한 성과 관리 실시

<경기비지니스센터 수출상담회>

3-1) 충남 우수정책 수출

▸ 사업의 필요성

- 충남은 지난 20여 년간 환경과 개발의 대립지점에 입지하며 많은 정책경험을 축적
- 북한, 동남아 등에 정책경험·노하우 수출하여 충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필요
- 협력 민간업체들의 사업발굴 및 수출 간접 지원

▸ 사업 목표

- 충남 우수정책을 해외 지방정부와 공유하여 충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사업 내용

-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식공유 프로그램(KSP) 참여
- 충남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 환황해지역 연수
- 충남 지역정책 교본 제작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비고
				국비	도비	군비	민자	
기획재정부KSP 사업 참여	100			100				정부 공모
충남국제교류담당공무원 환황해지역 연수	400	600			500	500		격년 실시
충남지역정책사 발간	100				100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기획재정부KSP 사업 참여	KSP 참여기획 및 수요조사	협력 대상해외지차체 선정 및 사업착수	현지 정책자문 및 사업파트너 초청연수 실시	KSP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미래 정책과	충남연구원·농업기술원·경제진흥원·TP
충남국제교류 담당공무원 환황해지역 연수	충남도· 시· 군의 우호·자매지역(환황해권) 중 교류시범지역 선정 및 협약 체결	충남도· 시· 군 지방외교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시범지역 연수 파견성과 평가 및 교류대상 지역 확대			미래 정책과	기업통상교류과 시군교류담당 부서, 중국 지방사회과학원 일본 거점대학
충남지역정책사 발간	충남의 우수·실패 정책 사례 수집	충남지역정책사 편찬위원회 구성 및 발간작업 착수	충남지역정책사 발간 및 홍보/수집 데이터 및 성과물 아카이브 구축작업 실시			미래 정책과	문화정책과·역사문화연구원

▸ 전문가 종합 의견

- S/W 중심의 기재부 지식공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충남 브랜드 이미지 제고 가능
- 지역별로 특화된 공무원 환황해지역 연수 프로그램 마련 필요
- 황해남도를 중심으로 대북지역에 대한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안 마련 필요
- 충분한 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한 충남 지역정책사 발간 필요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KSP사업 참여	○	△	○	○
환황해지역 연수	○	△	○	○
충남지역정책 교본 제작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참고자료

[참고: 기획재정부 KSP사업]

- 목표 : 한국 경제개발 노하우를 협력대상국과 공유하여 지식격차를 줄이고 해당국 경제발전에 기여
- 주관 : 기획재정부·KOTRA·KDI·수출입은행
- 사업내용 : 국가정책자문/국제기구와 공동컨설팅사업/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경제, 행정, ICT, 농촌 등 8대 분야)
- 주요분야 : 경제·사회개발전략/지식기반경제/인적자원개발/인프라개발/농촌개발/산업에너지와 녹색성장/전자정부와 ICT 개발/금융서비스/경제위기관리/수출진흥/중소기업 육성
- 성과 : 2004-17년까지 123개 협력대상국과 사업 실시
- 참고사항 :
  - 2013년 이후 지자체·기업의 참여 독려
  - 현재는 단기사업인 경제발전모듈화사업 시행이 현실적이나, 향후 장기사업 정책자문과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컨설팅사업 실시 필요

[그림] KSP 주요 사업

출처:기획재정부 2018 KSP 사업 소개자료

3-2) 환황해포럼 고도화

▸ 사업의 필요성

- 현 포럼이 명사+학자 위주로 참여하여 일회성 행사 위주 진행
- 지자체 우수정책 공유 및 확산 플랫폼으로 포럼 성격 전환 필요
- 우수정책 선정 및 시상 과정 통해 지자체 참여 대폭 확대

▸ 사업 목표

- 지자체 중심형, 정책 공유·확산형 포럼으로서의 독자성 확립

▸ 사업 내용

- 포럼을 명사 및 지자체장 위주+지자체 정책 중심으로 운영
- 정책 추천, 선정 및 시상 과정 통해 지자체 참여 확대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환황해포럼 고도화	1,500	2,800	4,000		8,300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환황해포럼 고도화	포럼 구성 및 운영체계 명확화	참여 희망 지자체장 섭외 및 우수정책 사례 선정위원회 구성	(전반부 세션:명사+지자체장)+(후반부 세션:환황해권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선정 및 시상)의 포럼 실시			미래정책과, 충남연구원	도 각 실·국, 도내 연구기관, 환황해 특별위원회 등

▸ 전문가 종합 의견

- 포럼의 정체성 확립 및 위상 재정립 필요
- 시군참여형 포럼 운영방안 마련 필요
- 포럼대상지역을 충남도 자매·우호도시 지역에 집중할 필요
- 사무국 설치와 회원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환황해포럼 고도화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참고자료

[지역발전 국제포럼 2010 사례]

- 목표 : 지역 간, 특히 국내외 기초지자체 간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 창출
- 주최 : 지식경제부·지역발전위원회·UNIDO(UN 공업개발기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참석대상 : 국내외 20개 지자체, 외국공관 및 관계자 등 300여 명
- 주요내용 :
  - 기조강연 :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창조산업 육성전략 등
  - 지역특화 전시회 : 국내 10개 기초 지자체의 지역발전정책 소개 및 사업성과 전시
  - 지역 방문 : 국내 특화지역 방문 및 협력방안 논의
  - 공동선언문 발표 : 국내외 지자체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3-3)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이 주도하는 한중일 협력에 있어 중국의 권역별, 일본 전문 연구인력 마련의 필요성 점차 증가
- 중국과 일본은 각각 환동해경제연구원(ERINA), 산둥성 환황해발전센터 설립하여 관련 연구 시작
- 충남의 원활한 대외정책 실시를 위한 정책 및 수치 데이터 구축 필요

▸ 사업 목표

- 환황해 공동연구 시범사업 실시 및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 사업 내용

- 충남-중국·일본 통관데이터, 대기환경 데이터 등 주요 이슈 관련 데이터 구축을 위해 충남 및 중국·일본 지방 정책기관이 공동연구 실시
-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 재원 조달(전 기간)

세부사업	1단계 (2019-2023)	2단계 (2024-2030)	3단계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군비	민자
환황해 데이터랩 설립·운영	2,500	3,500			6,000		

▸ 추진 절차

세부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추진주체	
						주관	협조
환황해 데이터랩 설립·운영	환황해 공동연구 시범사업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치		기획관실	충남연구원, 산둥성사회과학원, ERIN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문가 종합 의견

- 경제, 산업, 환경,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연구 수행 필요
- 양질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국외 연구기관과 공조관계 구축 필요

▸ 도민 사업적합도 평가

구분	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환황해 데이터랩 설립운영	○	○	○	○

* 설문조사결과: 적합도 높음(◎: 70-100) 보통 (○: 40-70) 낮음 (△ : 0-40)

참고자료

[국외 주요 파트너 연구기관]

- ERINA : 환동해경제연구소(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 동아시아 경제분야에 관한 정보수집·연구
  - 동아시아 지역 간 경제통합 및 발전에 공헌을 목표
  - 중앙·지방정부, 대학, 민간기업이 공동출자 및 운영
  - 환황해 데이터랩 조직 구축 시 참고 가능 사례

- 산둥성 사회과학원 환황해발전연구센터
  - 2017년 산둥성 사회과학원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한국, 캐나다, 일본 출신 연구원으로 구성
  - 환황해 연구기관 간 연맹 구축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격월간 간행물 출간 예정
  - 충남연구원과 기초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강한 편

ERINA 소개
출처:ERINA홈페이지(https://www.erina.or.jp/en/)

산둥성 사회과학원 소개
출처:산둥성 사회과학원
홈페이지(http://www.sdass.net.cn/)

VI. 집행관리계획

1. 시행사업 재원 조달

1) 재원조달의 구분

▸ 시행계획 재원 조달은 민자(외국, 국내), 재정(정부, 지방)으로 구분

- 민자사업은 국내자본과 국외자본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재정사업은 정부사업과 지방사업으로 구분하되 혼합형으로 추진함
- 일부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나 국제조직의 지원 확보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함

2) 민자조달 및 투자유치

▸ 정책사업의 수익모델을 수립하고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패키지를 탄력적으로 구성하고자 함

-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가시적인 수익모델을 구성함
-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제시함: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3) 국비확보

▸ 사업의 국가적 의의 및 기대효과를 객관화하여 대정부 설득력을 강화함

- 충남 민원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의의가 있음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제안하는 사업
-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준비 필요
- 지방재정사업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실현가능성 제고

2. 시행계획 추진체계

1) 환황해 이니셔티브 추진단 구성

▸ 정책사업 추진은 부서나 조직을 지정하여 추진하되, 전체의 조정과 총괄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함

- 환황해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은 충남의 미래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으로서 계획의 수립과 집행,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가 단장인 '환황해 이니셔티브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함
- 미래정책과가 간사조직으로 기능하여 추진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
- 관련 실과가 추진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2) 실과와 외부의 협조 체계

▸ 사업집행 실과는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원, 외국 파트너정부를 주요 협조 주체로 설정함

- 개별사업의 시행은 개별실과에서 주관하도록 함
- 충남도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기관,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등과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동력 확보
- 외국 파트너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은 외국 파트너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3. 시행계획 평가체계

1) 시행주체와 평가주체의 분리

- 사업의 객관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하여 추진하도록 함
- 시행주체는 사업을 집행하는 관련실과이며, 평가주체는 사업평가 전문기관에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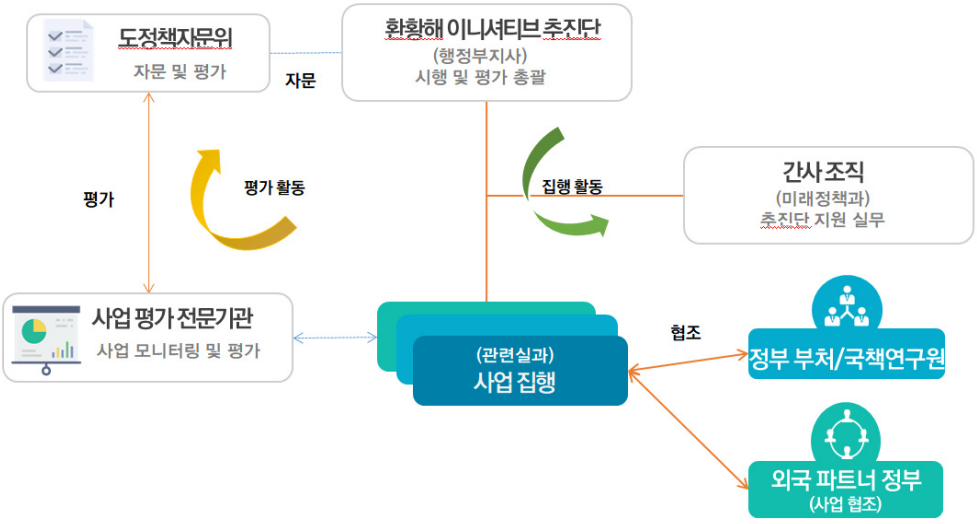
2) 도정책자문위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 사업평가는 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함

- 시행주체가 사업을 자체평가하는 방식은 지양하며, 추진단의 요청을 받아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진 사업을 평가하도록 함
- 평가주기는 5년이나 3년차에 중간 평가를 실시함

▸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문 평가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 개별사업 평가와 관련된 실과의 사업을 평가함
- 3년차에 중간평가, 5년차에 사업 전체를 평가하도록 함



4. 사업집행계획

1) 사업집행계획 총괄

▸ 2040년까지 국비, 지방비를 포함 총 사업비 15.5조원을 투자

- 단기 5년간은 337억원, 중기 7년간 11.9조원, 장기 10년간 3.5조원 투자
- 목표별로는 친환경 경제 구축사업에 총 1조 8천원억, 초국경지역공간 조성사업에 총 13조 6천억원, 환황해 커뮤니티창출 사업에 총 1,132억원 소요
- 재원별로는 국비 13.8조원, 지방비 8천억원, 민자 7천억원 소요

<표 6-1> 기간별 사업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목표	계	단기 (2019-2023)	중기 (2024-2030)	장기 (2031-2040)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1. 친환경 경제 구축	1,812,410	11,500	680,910	1,120,000	1,016,000	288,540	4,870	403,000
2. 초국경지역공간 조성	13,603,590	6,740	11,204,500	2,392,450	12,747,450	522,140	34,000	300,000
3.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113,275	15,475	88,200	9,600	60,100	45,625	3,550	4,000
계	15,529,275 (100.0%)	33,715 (0.22%)	11,973,610 (77.1%)	3,522,050 (22.7%)	13,823,550	856,305	42,420	707,000

2) 목표별 집행계획

(1) 목표1. 상생협력을 선도할 친환경 경제구축

- 환경협력선도를 위한 정책사업 4개, 친환경선진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8개 총 2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기 115억원, 중기 6,809억원, 장기 1조 1,200억원이 소요

<표 6-2> 목표1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전략	정책사업	사업비				재원조달			
		계	단기 (2019-2023)	중기 (2024-2030)	장기 (2031-204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환경 협력 선도	1-1) 국제해양환경 메카 조성	1,600	1,600				1,600		
	1-2) 환경 공동 모니터링	2,160	900	1260			2,160		
	1-3) 황해갯벌보존 네트워크 구축	2,040	600	1,440			2,040		
	1-4) 환황해 에코 파트너십	1,210	300	910			860	350	
친환경 선진 산업 육성	1-5) 충남 레저휴양 국제화	1,240	640	600			920	320	
	1-6) 중소 MICE산업 육성	5,800	3,000	2,800			2,900	2,900	
	1-7) 체류 관광권 조성	960	360	600			660	300	
	1-8) 전통식품산업 육성	1,200	500	700			1,200		
	1-9) 동아시아그린바이오산업육성	780,600	600	560,000	220,000	560,000	600		220,000
	1-10) 국제창업네트워크 허브 조성	14,600	2,500	12,100		6,000	4,600	1,000	3,000
	1-11) 차세대 동력산업클러스터 조성	600,500	500	200,000	400,000	250,000	150,500		100,000
	1-12)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400,500		500	400,000	200,000	120,500		80,000
총계		1,812,410	11,500	680,910	1,120,000	1,016,000	288,540	4,870	403,000

(2) 목표2. 초국경 연결을 위한 지역공간 조성

- 초국경교통연결을 위한 정책사업 5개, 교역거점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4개 총 1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기 67억원, 중기 11조 2천억원, 장기 2조 3천억원 소요

<표 6-3> 목표2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전략	정책사업	사업비				재원조달			
		계	단기 (2019-2023)	중기 (2024-2030)	장기 (2031-204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초국경 교통 연결	2-1) 충남 대북 직통로 개통	4,000,900	900	4,000,000		4,000,000	900		
	2-2) 황해횡단교통망 구상 한중 협력	1,240	1,240				1,240		
	2-3) 중부권동서횡단 철도 건설	3,701,000	500	3,700,000		3,700,000	500		
	2-4) 충청문화산업철도 건설	1,876,500	500	1,876,000		1,876,000	500		
	2-5)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	50,500		500	50,000	50,000	500		
교역 거점 조성	2-6) 국외 충남비즈니스센터 설립	12,500	2,100	4,400	6,000		12,500		
	2-7) 대산항환황해 거점 항만 조성	3,000,500	500	1,500,000	1,500,000				
	2-8) 충청경협지원센터 설립	4,500	1,000	3,500		2,250,000	450,500		300,000
	2-9) 크루즈 항만 조성	956,450		120,000	856,450	871,450	51,000	34,000	
총계		13,603,090	6,740	11,205,000	2,392,450	12,747,450	522,140	34,000	300,000

(3) 목표3. 사람과 지혜가 만나는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 교류협력심화를 위한 정책사업 5개, 포용사회촉진을 위한 정책사업 6개 총 1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기 154억원, 중기 882억원, 장기 96억원 소요

<표 6-4> 목표3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전략	정책사업	사업비				재원조달			
		계	단기 (2019-2023)	중기 (2024-2030)	장기 (2031-204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교류협력심화	3-1) 충남 우수정책 수출	1,200	600	600		100	600	500	
	3-2) 환황해포럼 고도화	8,300	1,500	2,800	4,000		8,300		
	3-3) 환황해 협동교육과정 운영	4,500	500	2,000	2,000		500		4,000
	3-4) 전략 파트너십 시범사업	1,200	400	800			1,200		
	3-5)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6,000	2,500	3,500			6,000		
포용사회촉진	3-6) 외국인주민 더불어살이	8,100	2,500	5,600			8,100		
	3-7) 국제 청소년교류 확대	5,475	1,325	4,150			3,725	1,750	
	3-8) 황해문명교류길 조성	61,600	600	61,000		60,000	1,600		
	3-9) 충청유교문화 국제화	6,500	3250	3250			6,500		
	3-10)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	2,600	1,300	1,300			1,300	1,300	
	3-11) 장애인 친화 지역 조성	7,800	1,000	3,200	3,600		7,800		
총 계		113,275	15,475	88,200	9,600	60,100	45,625	3,550	4,000

3) 선도사업 집행계획

• 선도사업은 목표별 총 9개 정책사업이며, 단기 139억원이 소요됨

<표 6-5> 선도사업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목표	선도사업	사업비				재원조달			
		계	단기 (2019-2023)	중기 (2024-2030)	장기 (2031-204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친환경 경제 구축	1-1) 국제해양환경 메카 조성	1600	1600				1,600		
	1-2) 중소 MICE산업 육성	5,800	3,000	2,800			2,900	2,900	
	1-3) 국제창업 네트워크 허브 조성	14,600	2,500	12,100		6,000	4,600	1,000	3,000
초국경 지역 공간 조성	2-1) 충남 대북 직통로 개통	4,000,600	600	40,000,000		4,000,000	900		
	2-2) 황해횡단교통망 구상 한중 협력	1,240	1,240				1,240		
	2-3) 국외 충남비즈니스센터 설립	12,500	2,100	4,400	6,000		12,500		
환황해 커뮤니티 창출	2-4) 충남 우수정책 수출	1,200	600	600		100	600	500	
	2-5) 환황해포럼 고도화	8,300	1,500	2,800	4,000		8,300		
	2-6) 환황해 데이터센터 설립	4,000	500	3,500			6,000		
총계		4,050,140	13,940	4,026,200	10,000	4,006,100	38,640	4,400	3,000

부록:

1. 환황해 이니셔티브 후보 사업군 목록
2. 시행사업 검토 설문조사 결과
3. 전문가 워크숍 개최결과
4. 도민아이디어 제안서
5. 충남도 및 시군 국제교류담당자 워크숍 개최결과
6. 해외파트너(중국, 일본) 기관방문 결과보고서

부록 1. 환황해 이니셔티브 후보사업군 목록

1) 기존 사업 선별목록

- 충남도 환황해전략관련 선행연구 : 환황해글로벌화전략(2017), 환황해미래전략연구(2016),
- 환황해전략 관련 중장기 계획 검토: 경제비전2030(2016), 서해안비전(2014), 해양수산발전계획(2015), 내포광역도시계획(2015)
- 사업선별(내부연구진 대상) : 총 275개 사업 → 128개 사업(연관성 선별) → 최종 67개(중복성 고려)

[표 1] 기존사업 선별 목록

구 분	번 호	사 업 명	사업범주
농수산	1	수산연구기반 및 미래 해양수산전문인력 육성	서해안비전
	2	수산물 수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해양수산발전계획
	3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서해안비전
	4	국제수산기자재 산업단지 조성	해양수산발전계획
	5	농업6차산업안테나숍 개설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6	쌀 문화 페스티벌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7	동아시아 실버푸드 박람회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8	해양수산 IoT 클러스터 조성	해양수산발전계획
	9	해삼융복합양식클러스터 구축	경제비전2030
에너지	10	친환경 에너지산업 벨트 조성	경제비전2030
	11	미래에너지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경제비전2030
	12	수소에너지 자립항구 시범사업	경제비전2030
	13	신재생바이오 에너지산업 육성전략	서해안비전
환경	14	갯벌어장 복원	해양수산발전계획
	15	황해 갯벌 지방정부 네트워크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16	서해안 연안환경 보전·관리체계 구축	서해안비전
	17	연안 습지 환경개선 및 생태가치 제고	해양수산발전계획
	18	연안하구 정밀조사 및 생태복원	해양수산발전계획
	19	유무인도서의 해양생태환경 관리 및 보전	서해안비전
	20	태안국제 환경상 제정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21	환황해 해양환경 모니터링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22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진화	해양수산발전계획
투자 창업 산업	23	창업 및 중소기업 아시아 시장 개척 지원	경제비전2030
	24	국제창업지구 공동 창설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25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26	아시아연합 지식재산청 설립	환황해미래전략연구
	27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조성	경제비전2030
	28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조성	경제비전2030
	29	해양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비전
	30	해양레저용 선박 건조산업 육성	해양수산발전계획
	31	4차산업혁명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환황해미래전략연구

[표 1] 기존사업 선별 목록(계속)

구 분	번호	사 업 명	사업범주
대외 인프라	32	한중 천연가스관라인 선점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33	격렬비열도의 전략자원화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대내 인프라	34	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 3대 특화항만 조성	경제비전2030
	35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서해안비전
	36	크루즈 항만 개발	서해안비전
	37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서해안비전
	38	내륙산단 물동량 및 교통망을 연계한 항만네트워크 구축	서해안비전
	39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확충	서해안비전
	40	한중일 해저터널 이니셔티브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대내 관광	41	충남 해양관광브랜드 구축	해양수산발전계획
	42	해양헬스케어(관광의료) 시범단지 조성	경제비전2030
	43	서해 휴먼투어랜드 조성	서해안비전
	44	서해안-금강 L자형 생태휴양관광벨트 조성	경제비전2030
	45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서해안비전
	46	내포문화+해안관광을 통한 체류형 관광 유도	내포 광역도시계획
대외 관광	47	특화 항만연합 결성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48	대산항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외국인 수용태세 정비	해양수산발전계획
	49	한중일 의료관광네트워크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50	(천안) 바이오/문화, K-뷰티테마파크 조성	경제비전2030
	51	동아시아 낚시인 친선대회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52	여행플래너 상호 파견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역사교류	53	동아시아 문명교류길 조성	경제비전2030
	54	환황해 유교로드 구축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55	황해 전통마을 네트워크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56	전통문양국제공모전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57	귀화성씨 박물관 건립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58	안흥 스토리텔링형 중국 역사자원 발굴	해양수산발전계획
국제교류-민간	59	무장애 도시 상호 모니터링 교류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60	외국인의 눈에 비친 충남'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61	대학 간 교과과정 학점 및 인증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62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국제교류-공공	63	대북 교류협력 시범사업 추진	경제비전2030
	64	환황해연구원 설립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65	환황해포럼 진화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66	국제지역정책연수프로그램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67	아시아신공업지역연합	환황해글로벌화 전략

2) 신규사업 목록

- 신규 아이디어발굴 전문가 워크숍(산업경제/농업농촌/역사/한중문화/교통SOC/환경/교류 분야) : 32건
-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 8건
- 충남도·시·군 국제교류담당자 워크숍 : 6건

[표 2] 전문가 제안 신규아이디어(32건)

번호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1	국제교류	환황해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구축사업	충남도, 강소성 진출 기업 및 민간단체의 3각 동맹을 기반으로 장수성과의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2	환경협력	충남과 강소성의 환경협력사업	강소성정부, 환경민간단체 간 상시적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사업
3	국제교류	신라방 역사재현사업	신라의 당나라 뱃길과 신라방의 재현 – 강소성정부, 화이안시정부, 강소성민간단체, 충남도, 당진시
4	국제교류	중국 대학생/대학원생 유치사업	중국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유학생 유치와 상호학위 수여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5	경제협력	4차산업에 맞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한중일 지방정부간 4차산업에 따른 기술사업화 경제협의체 구축 마련을 통한 기술적 제휴
6	역사문화, 관광, 교육	환황해 KCJ 인력 양성사업	환황해 리더육성을 통한 이니셔티브 중장기적 기반구축으로 권역내 대학간 교류, 해당국 체재(관광), 환황해 콘텐츠 교육 추진
7	역사문화, 관광, 교육	환황해 플랫폼 개발	언어번역서비스(해당지역 정보), 교육프로그램, 숙박 등 예약시스템(네트워크)
8	경제협력	도시간 FTA 충남 거점 육성 · 추진	한중FTA 및 한중일 FTA에서 도시간 FTA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어 충남도 상응하는 거점 조성 필요
9	경제협력	FTA확대가 충남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중일FTA 협상을 대비하여 충남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이를 토대로 전략방안 마련
10	경제협력	환황해 지역의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방안	환황해 지역의 지방정부 및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마련 – 중국, 홍콩, 마카오간 체결된 서비스분야 협력 협정참고
11	경제협력	한중일 수산식품 교류활성화 사업	상품화된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호교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
12	국제교류	충청남도 국제화 역량강화 기초 조사	충남도 국제화 역량강화 및 도민 마인드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국제화 관련 실적검토, 제도개선점, 타 시도 현황 검토, 국제화 역량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 사업실시
13	국제교류	환황해 역사기반 민간 교류 진흥사업	환황해 중심의 역사를 교류 콘텐츠 공급원으로 삼고 민간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선정된 프로그램을 지원 (백제문화 네트워크, 백제부흥운동 네트워크, 조선통신사 네트워크, 도자문화 네트워크, 귀화성씨 교류 네트워크)
14	국제교류	백제 축제를 활용한 환황해 네트워크 구축	공주부여 백제문화제와 오사카의 왓소축제, 가라츠의 무령왕탄생제, 히라카타의 백제페스티벌과의 직접적 교류와 후원을 통한 교류활성화
15	공공외교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남북경제협력특구 개발사업 등 북한교류협력에 대한 선제적 신사업 발굴 필요
16	환경협력	한중 국제 미세먼지 연구소 유치	미세먼지 관련 국제기구(연구소) 유치(중국과 연합 또는 국제기구급)
17	인프라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로서 해미공항 활성화	해미공항을 동아시아 경비행기 허브공항으로 육성. 태안반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추가 인프라 투자 없으며 성장가능성 있음
18	국제역량 강화	국제협력 관련 도내 인력양성	충남도내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의 국제통상, 국제외교 등 국제협력 관련 인력양성체계 재정비 및 기반강화
19	인프라	환황해 내륙화물기지 구축 (IoT기반)	환황해 교류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주요항만(당진항, 보령신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확보
20	인프라	타분야 사업을 고려한 패키지 사업(개발사업+배후종합교통	인프라는 각종 개별사업의 연관성이 되는 분야로서 국제관광루트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한 이니셔티브 사업 발굴

번호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망) 구상	
21	인프라	원스톱 국제복합센터 조성	국제교통환승+쇼핑+레저
22	환경협력	대기 및 수질오염 공동연구 및 실증단지	환경 관련 연구단지 조성
23	관광. 인프라	외국인 친화적 교통안내시스템 구축	중일영 안내, 표지판, 키오스크 언어지원서비스
24	국제 네트워크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4차산업혁명시대 청년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실제 구체적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 장터 제공; 벤처창원지원위원회
25	국제 네트워크	동아시아 문명 교류길 조성	동아시아 문명교류 기반이 되는 도시와 정부 간 교류길 조성 및 상호순례
26	국제 네트워크	환황해연구원 설립	정부차원의 환황해권역 연구지원 플랫폼 충남에 설립
27	문화교류	중국과 청소년 체육교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국과 체육교류를 통해 도 내 스포츠 활성화
28	문화교류	충남 스토리텔링 발굴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역사적 공통분모를 통한 스토리텔링 발굴(ex: 논산 궐리사 공자상)
29	관광의료	충남 힐링의료 단지 조성	중국은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수요를 타겟팅하여 충남 도내 힐링의료단지 조성 – 환자들에게 좋은 공기와 쉴 수 있는 재활치료 단지 조성
30	관광	체험형 충남 팸투어	보여주기 식 관광이 아니라 체험형 관광으로 집중화 (ex: 템플스테이, 둘레길, 수목원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쇼핑에 중점
31	환경협력	한중일 환경포럼	3국의 공통관심사항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환경포럼으로 발전
32	인재	국제발전대학 유치사업	화력발전입지의 기회요소로서 상생발전의 시각으로 중국동해안에 밀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연구교류 추진

[표 3]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제안(8건)

번호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1	환경협력	환황해권 연계 탄소배출권 확보 구축사업	중국 동남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탄소배출 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경경제 연합체 구성
2	환경협력	환황해권 어족자원 고갈방지 정책 공유방안	어족자원 고갈방지 우수 정책사례를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환경협력	환황해권 해양쓰레기 처치 정책 공유방안	환황해권 내 3구 지방정부간, 해양 쓰레기 처치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도록 하여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확신시키는 장을 마련
4	문화	마음으로 보는 한중일 전시회	3국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회 설치 – 손끝으로 보는 조각전
5	민간교류	한중일 장애인 행복나라 교류 촉진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화장실 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비품에 촉지판을 부착하고 세면대에 비품위치 안내 점자 부착 – 한중일 모범 사례 확산유도
6	국제교류	공공민간 인적교류 분야 국제화역량 강화	환황해권 탈지방정부 간 인적교류 상호 교환 시행
7	농수산,문화	한중일 와글와글 지방엑스포 개최	지방 특산품과 토속기업들의 물품을 서로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방 정부간 상생공동 발전 도모
8	농수산	충남 농축산물의 가공유통의 비단길	충남권내 농수산물 환황해지역 맞춤유통 채널 구축

[표 4] 시군 워크숍 신규제안(6건)

번호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1	민간교류	한국어(중국어) 말하기 대회	자매우도도시 대학생 대상 한국어(중국어)말하기 대회 개최를 통한 교류확산
2	역사교류	백제유민 고고유적 조사사업	중국 낙양시 북망산 백제유민 유지 고고유적 합동조사를 통한 지방정부간 공통문화유산 발췌로 교류사업 확대운영
3	국제교류	꿈나무들의 희망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모여라 충남으로	2040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캠프 개최
4	경제협력	충남 중소기업 수출홍보관 설립	중소기업 지원제도 원스톱 안내시스템, 홍보 홈페이지, 제품 홍보공간 마련
5	환경협력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공동체 형성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6	국제교류	공공행정 인적교류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각 국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타국기관의 이해에 도움

[표 5] 연구진 제안 신규 아이디어

번호	구분	사업명
1	농수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2	경제산업	연료전지 지게차
3	환경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도립공원 지정
4	투자창업산업	수입 자동차 콤플렉스 조성
5	투자창업산업	중국산 수입차량 물류센터
6	투자창업산업	첨단 자동차 콤플렉스
7	투자창업산업	동아시아 그린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8	대외인프라	태안반도-인천공항 해저터널
9	대내인프라	충남-산동성간 철도 페리
10	대내관광	온천 건강검진 孝 패키지
11	국제교류	2030년 충청아시안게임 유치
12	국제교류	청년 교육 농장 아카데미

부록 2.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조사목적 및 기간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 및 공무원을 포함한 충남도민들의 시행사업안에 대한 세부의견 수렴

▌조사대상 및 규모

○ 충남도에 거주하는 도민 남녀 317명(제11기 도민평가단, 제4기 정책자문위원단 포함)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설문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표본추출방법)

○ 제11기 도민평가단, 제4기 정책자문위원단 포함 충남거주자 중 성, 연령, 소속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조사기간

○ 11월 26일 ~ 11월 30일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리

▌조사내용

○ 환황해이니셔티브 실현전략별 세부사업 적합도 조사(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 **부합성**: 제시한 실현전략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 **파급력**: 사업의 결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
* **시급성**: 사업의 단기(2019–2023), 중기(2024–2030), 장기(2031–2040) 구분에 대한 적합도
* **실현가능성**: 기술, 경제, 제도, 사회적 측면에서 추진의 현실성 검토

항 목	세부 내용
환경협력 선도	▪ 국제 해양환경 메카조성(환경상제정, 해양NGO육성, 환경오염 체험관 건립) ▪ 환경 공동 모니터링(해양쓰레기공동조사, 미세먼지 모니터링) ▪ 황해갯벌보존 네트워크 구축(갯벌보존네트워크 구성, 뉴스레터발간,세계자연유산지정) ▪ 환황해 에코 파트너십(충남 에코마일리지 실시, 환황해 에코파트너십 결성)
친환경 산업육성	▪ 충남 레저휴양 국제화(지역레저휴양 국제화, 동아시아레저휴양 페스티벌) ▪ 중소MICE산업 육성(천안아산/서해안MICE산업 육성) ▪ 체류관광권 조성(대산항 외국인 체류 관광권조성, 체류관광권 조성사업) ▪ 아시아전통식품산업 육성(전통발효식품 개발사업, 전통주 국제화사업) ▪ 동아시아그린바이오산업육성(농축산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 ▪ 국제창업네트워크(국제창업위크,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국제창업지구 조성) ▪ 차세대 동력산업클러스터 조성(선박, 항공기용연료전지팩 개발실증, Mobility&Power Park 조성) ▪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초국경교통연결	▪ 당진인천해주 고속도 건설(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근거 마련, 정부 국책과제화) ▪ 한중해저터널 이니셔티브(기초조사 수행, 이니셔티브 공론화)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공론화 사업, 일본·러시아 지역협력기반 구축) ▪ 동아시아 경비행장 허브 조성(타당성 근거 마련, 관련기능유치, 서비스체제 개선)
교역거점조성	▪ 중소기업 국외시장(거점조성*,거점 설립 및 확대(충남 비지니스센터 설립) ▪ 대산항 환황해 거점항만 조성(대산항 기반시설 확충과 고도화, 항만배후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보령선 철도 건설) ▪ 대북 교역거점 조성(남북 경협기반 구축/대산-해주항 통항) ▪ 크루즈 항만 조성(크루즈 터미널 조성, 항만배후단지 조성) ▪ FTA지방협력기반 조성(제도기반 구축, 파트너십 구축)
교류협력심화	▪ 충남 정책외교 본격화(기재부KSP참여/공무원황해연수/충남지역정책사발간) ▪ 환황해포럼 개선 ▪ 환황해 온라인교육과정 운영 ▪ 전략 파트너십 시범사업(협력의제 공동발굴, 사업실시 및 개선) ▪ 환황해데이터랩(DataLab)설립(공동연구 시범사업, 데이터랩 설립)
포용사회촉진	▪ 외국인주민 더불어살이(외국주민페스티벌, 용선축제 개최) ▪ 국제 청소년교류 확대(황해 청소년캠프, 청소년홈스테이) ▪ 황해문명교류길 조성(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환황해문명교류관 건립, 환황해유교센터 설치) ▪ 국제화 도시 시범사업(시범도시 선정, 사업실시 및 확대) ▪ 장애인 친화 지역 조성(무장애통행 구축, 국제 장애인미술관 설립)

▌응답자 특성

구분		사 례 수(명)	비 율(%)
전 체		317	100
성 별	남자	212	66.9
	여자	105	33.1
연령별	20대	2	0.6
	30대	15	4.7
	40대	91	28.7
	50대	165	52.1
	60대 이상	44	13.9
소속별	공무원	55	17.4
	전문가	104	32.8
	도민(단체)	158	49.8

2) 조사결과

2.1) 상생협력을 선도할 친환경 경제구축 사업적합도 검토

▌ 사업선호도

세부사업명	응답자	
	빈도	비율
해양쓰레기공동조사	(97)	30.6%
미세먼지 모니터링	(80)	25.2%
환황해 에코파트너십 결성	(72)	22.7%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68)	21.5%
갯벌보존 네트워크 구성 운영	(67)	21.1%
지역 레저휴양 국제화	(58)	18.3%
체류관광권 조성사업	(52)	16.4%
환경오염 체험관 건립	(43)	13.6%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	(41)	12.9%
갯벌 세계자연유산지정	(40)	12.6%
충남 에코마일리지 실시	(37)	11.7%
동아시아레저휴양페스티벌	(32)	10.1%
대산항 외국인 체류 관광권조성 사업	(30)	9.5%
해양NGO육성	(29)	9.1%
서해안MICE기지 조성	(28)	8.8%
천안아산MICE기지조성	(26)	8.2%
갯벌보존 뉴스레터/백서 발간	(25)	7.9%
국제 창업위크	(22)	6.9%
클러스터 기획 및 조성	(21)	6.6%
국제창업지구 조성	(16)	5.0%
환경상 제정	(15)	4.7%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14)	4.4%
아시아 전통발효식품 개발사업	(13)	4.1%
선박,항공기용 연료전지팩 개발실증	(12)	3.8%
전통주 국제화 사업	(10)	3.2%
Mobility&Power Park 조성	(3)	0.9%

▌ 사업 적합도(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부합성 적합도		파급력 적합도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83.8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75.0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	80.5	선박,항공기용 연료전지팩 개발실증	75.0
환황해 에코파트너십 결성	79.2	서해안MICE기지 조성	71.4
문제해결형 발명대회	78.6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	70.7
갯벌보존 네트워크 구성 운영	77.6	환황해 에코파트너십 결성	68.1
시급성 적합도		실현가능성 적합도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해양쓰레기공동조사	61.9	갯벌보존 뉴스레터/백서 발간	56.0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57.4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52.9
충남 에코마일리지 실시	56.8	갯벌보존 네트워크 구성 운영	52.2
미세먼지 모니터링	56.3	해양NGO육성	51.7
해양NGO육성	55.2	환경오염 체험관 건립	51.2

2.2) 초국경 지역공간 조성 사업적합도 검토

▌사업선호도

세부사업명	응답자	
	빈도	비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115)	36.3%
대산항 기반시설 확충과 고도화	(99)	31.2%
한중해저터널	(98)	30.9%
남북 경협기반 구축	(98)	30.9%
거점 설립 및 확대(충남 비지니스센터 설립)	(97)	30.6%
항만배후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71)	22.4%
당진인천해주 고속도로	(70)	22.1%
크루즈 터미널 조성	(65)	20.5%
대산-해주항 통항	(55)	17.4%
보령선 철도 건설	(49)	15.5%
타당성 근거 마련, 관련기능유치, 서비스체제 개선	(41)	12.9%
항만배후단지 조성	(35)	11.0%
FTA지방협력 제도기반 구축	(33)	10.4%
FTA지방협력 파트너십 구축	(25)	7.9%

▌사업 적합도(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부합성 적합도		파급력 적합도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대산항 기반시설 확충과 고도화	77.8	당진인천해주 고속도로	67.1
남북 경협기반 구축	71.4	남북 경협기반 구축	69.4
당진인천해주 고속도로	68.6	대산-해주항 통항	65.5
한중해저터널 이니셔티브	67.3	크루즈 터미널 조성	61.5
대산-해주항 통항	67.3	중부권동서횡단철도	60.0
시급성 적합도		실현가능성 적합도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크루즈 터미널 조성	56.9	당진인천해주 고속도로	52.9
항만배후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56.3	FTA지방협력 파트너십 구축	52.0
항만배후단지 조성	54.3	대산항 기반시설 확충과 고도화	47.5
대산항 기반시설 확충과 고도화	53.5	거점 설립 및 확대(충남 비지니스센터 설립)	46.4
한중해저터널 이니셔티브	48.0	크루즈 터미널 조성	46.2

2.3) 환황해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적합도 검토

▌ 사업선호도

세부사업명	응답자	
	빈도	비율
전략적파트너십 시범사업	(128)	40.4%
환황해포럼 개선	(101)	31.9%
환황해 데이터랩 설립	(95)	30.0%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90)	28.4%
황해 청소년캠프	(85)	26.8%
국제화도시 시범사업	(72)	22.7%
환황해문명교류관 건립	(68)	21.5%
환황해온라인교육과정 설립운영	(63)	19.9%
외국주민페스티벌	(44)	13.9%
충남지역정책사발간	(32)	10.1%
환황해유교센터 설치	(32)	10.1%
공무원황해연수	(31)	9.8%
청소년홈스테이	(29)	9.1%
기재부KSP참여	(28)	8.8%
용선축제 개최	(27)	8.5%
무장애통행 구축	(22)	6.9%
국제 장애인미술관 설립	(4)	1.3%

▌ 사업 적합도(부합성, 파급력, 시급성, 실현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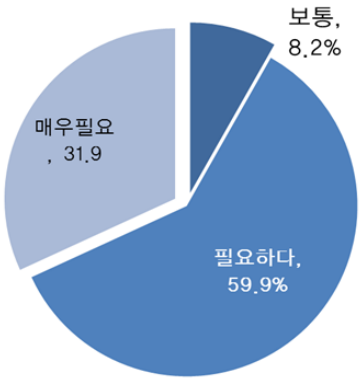
부합성 적합도		파급력 적합도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국제 장애인미술관 설립	75.0	국제화 시범도시 사업	68.1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74.4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65.6
국제화도시 시범사업	72.2	용선축제 개최	59.3
황해 청소년캠프	71.8	무장애통행 구축	59.1
환황해온라인교육과정 설립운영	69.8	환황해포럼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57.4
시급성 적합도		실현가능성 적합도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세부사업명	선택비율
국제 장애인미술관 설립	75.0	국제화 시범도시 사업	62.5
공무원황해연수	64.5	전략적파트너십 시범사업	56.3
협력의제 공동발굴, 사업실시 및 개선	60.2	황해 청소년캠프	55.3
무장애통행 구축	59.1	환황해포럼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54.5
기재부KSP참여	57.1	역사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52.2

2.4) 충남도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에 대한 필요성 인식

보통이다(8.2%) < 필요하다(91.8%)

*** 매우 필요하다(31.9%)**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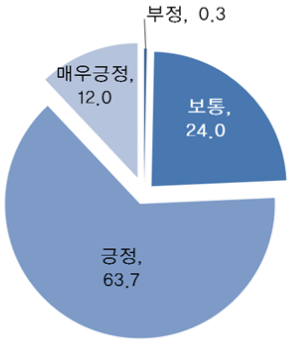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	5점척도 평균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공무원	55	4.13	0	0	12.7	61.8	25.5
전문가	104	4.22	0	0	10.6	56.7	32.7
도민	158	4.28	0	0	5.1	61.4	33.5
합계(평균)	317	4.21	0	0	9.5	60.0	30.6

2.5) 충남도 환황해 이니셔티브 비전체계(안) 긍정도

보통이다(24.0%) < 긍정적이다(75.7%)

*** 매우 긍정적이다(12.0%)**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5점척도 평균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공무원	55	3.67	0	1.8	36.4	54.5	7.3
전문가	104	3.89	0	0	22.1	66.3	11.5
도민	158	3.93	0	0	20.9	65.2	13.9
합계(평균)	317	3.83	0	1.8	26.5	62.0	10.9

부록 3. 전문가워크숍 개최결과

제1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과

'18. 7. 5.(목)

〈 워크숍 개요 〉

◇ 때 · 곳 : 2018. 7. 5.(목) 14:00~16:00 / 충남연구원
◇ 참 석 : 총 12명
- (도) 환황해팀 3명,
- (전문가) 남수중(공주대), 박종영(충남벤처협회), 양재원(보령영어조합법인), 양광호(한국영상대), 박윤철(호서대), 윤용혁(공주대) 6명
- (충남연) 홍원표(연구책임), 송영현, 강수현 3명

◇ 안 건 : 충남 국제교류현황 및 사업제안 아이디어 공유

□ 주요내용

①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소개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마련과 관련된 주요내용, 본 워크숍의 취지 및 목적 전문가에게 소개

② 본 과업에 대한 전체의견

○ 본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충남도의 역할 정립 필요

- 환황해이니셔티브를 왜 충남도가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며 충남도의 역할과 향후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명목 필요

○ 공간범위의 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 현재 설정하고 있는 공간범위의 중국, 일본 등은 한국에 우호적인 지역임에는 틀림없으나, 더 세부적으로 전략적 지역범위의 설정이 필요함

○ 본 과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분야로 인재, 인력양성 부문의 고민 필요

- 충남도의 새로운 도전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과업의 전체틀을 위해 도입해야 하는 분야로 가장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사람, 리더양성 부문이라 여겨짐(충남벤처협회에서 글로벌마케터 양성과정 시행중)
-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로서 2040년을 설정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될 변수가 4차산업혁명임. 미래 충남지역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지 산업, 노동 분야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 과거 역사공동체로 통했던 한·중·일 삼국이 이제는 경제공동체로 협력하기 위해 지방도시간 교류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줘야 할 것임

○ 한국 중에서도 충남이 환황해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야 하는 논리적 정당성을 반

드시 제시해 줘야 함

③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 관련 신규 사업 아이디어 제안

○ **(문화역사)** 과거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주역이었던 '백제'문화 콘텐츠의 활용 필요

- 충남도가 환황해 이니셔티브를 가지기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서 정신적, 철학적 의미로 사회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 필요
- 한국(충남),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백제부흥운동, 역사적 콘텐츠 활용사업이 필요함
- 충남도 당진을 거점으로 신라방, 신라소 등 과거 역사를 통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제안

○ **(산업경제-중소기업)** 충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쟁력 확보방안 필요

- 대기업 성장중심의 충남은 불균형적인 발전단계의 문제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를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현 시대는 제품판매가 아니라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술판매로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조성의 장 마련이 필요
- 지역식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선식품의 유통기간(포장기술 및 유통경로 단축) 문제해결이 농산물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상공인폐업의 주요원인은 판로개척의 미비임. 사업자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반적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산업경제-대외무역)** 본 과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않은 FTA활용가능성 제안

- 충남은 대중교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서 FTA효과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이미 체결된 한중FTA 이외 한일FTA, 한중일FTA가 활발하게 논의 중임
- KOTRA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중 지방간 무역협정 체결 등 FTA의 특별규정으로서 시범지역운영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간 무역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현재 인천과 중국 위해시 간 서비스무역자유지역협정을 체결 및 시행 중임
-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 및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산업경제-수산물)** 충남 수산물의 내실화 있는 경쟁력 방안 필요

- 충남 수산물은 전국 최대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공(식품화), 3차 서비스화가 취약하여 경쟁력 부분에서는 항상 배제됨(원료는 충남에서 공급하고 가공이 통영에서 이루어진다면 식품의 원산지는 통영으로 표기됨)
- 충남도에서 수산식품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마련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여겨짐. 충남은 통합적, 포괄적 지원시스템이 미비함(지원대상자 선정방식, 대외거래 시 비자, 외교문제 등)
- 본 과업을 고려할 시, 대외로 충남의 식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수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언어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스마트 농업기술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한국은 삼국 중 양식기술이 최하위인 국가로 사업자들이 양식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함. 농업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간척지부지를 양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것임

○ **(관광)** 삼국의 과거 역사문화의 공통인식 아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광프로

그램 개발 필요

- 선도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삼국의 공통관심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 일정시간 체재하며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함

제2차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과

'18. 7. 12.(목) | 충남연구원

〈 워크숍 개요 〉

◇ 때 · 곳 : 2018. 7. 12.(목) 14:00~16:00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참 석 : 총 17명
- (도) 환황해팀 2명,
- (전문가) 김경석(공주대), 고용석(국토연구원), 양갑용(성균관중국연구소), 채준병(보령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석민(아주경제), 이상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7명
- (충남연) 홍원표(연구책임), 정종관, 윤종주, 김원철, 김형철, 박경철, 송영현, 강수현 8명

◇ 안 건 : 환황해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분야별 사업 아이디어 제안

□ 주요내용

①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소개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마련과 관련된 주요내용, 본 워크숍의 취지 및 목적 전문가에게 소개

② 본 과업에 대한 전체의견

❍ 지방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로서 과제자체의 의미는 큼

- 현 정권에서 주창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대북교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주도성 확보가 필요할 것임
- 고민의 중심은 국제영향력제고, 도민 사람의질 제고, 남북협력을 통한 충남역할 확립 등이 될 수 있음

❍ 충남도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당위성을 위한 비교우위 정립 필요

- 환황해 지역에서 한국이 중국 · 일본과 비교했을시, 또한 한국에서도 충남이 환황해권 타 지자체들보다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내용과 역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한국은 부동산, 투자, 인건비 등 산업여건에서 모두 비교열위에 속함. 충남의 특화된 장점을 명시해야 함)
- 충남이라는 지역을 떠올렸을때 환황해라는 인식도는 없는 상태임. 이미지브랜딩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브랜드로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는 컨텐츠사업들이 필요함

❍ 충남도 의제에서 국가급 의제로 격상시켜 지사의 노력으로 중앙의제화 하는 작업 필요

- 충남의 아젠다를 국가 아젠다로 제안하여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방안이 시행성이 높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충남도에서 환황해 이니셔티브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의 공론화를 조장하여 정부의 지원 아래 진행 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
- 환황해포럼의 경우 국가급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고 환황해연구원 역시 국가급 싱크탱크로 격상하는 논리 필요
- 충남도에 한정되지 않는 여타 시도와 협력을 요구하는 사안은 지역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함께 추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입안, 설계, 실행, 평가 단계마다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필요

- 도에서는 거시적인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은 직접 주민과 해당 이해당사들의 의견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함
- 행사위주의 일몰성 사업의 경우 도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보이며 도는 플랫폼 역할이 필요

○ 기존 검토사업의 위계설정 및 재구조화 필요

- 교통 · SOC부문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타 사업과의 연계속에서 수단이 되어야 하기에 분야별 사업간 연계를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함
- 사업(node)과 이들을 연결할 교통망(link) 설정하여 missing link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인프라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지도에 표시하여 중첩되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함

③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 관련 신규 사업 아이디어 제안

○ (교통·SOC) 환황해 거점 물류단지 '환황해 내륙화물기지 구축(IoT기반)' 프로젝트 제안

- 공급지 중심의 물류체계가 소비지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반제품 상태의 교류가 활발해짐. 반제품을 조립 · 가공 · 라벨링 할 수 있는 환황해 거점의 물류단지 구축을 제안함
- 환황해권 교류를 지원하는 내륙화물기지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충남에서는 천안 · 아산 지역만이 가능함.
- 서산공항을 물류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가능

○ (교통·SOC) 서산비행장의 민간자가용 비행장 활용방안 제안

-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국제항로 개설 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국 민간인들이 자가비행기로 왕래할 수 있는 특화된 비행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 부족한 국제여객수요를 채우려는 접근에서 벗어나 공항시설을 최소화하고도 특화된 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필요
- 충남의 항만(당진항 · 대산항 · 보령항)특화도 마찬가지로 한가지 항만을 선택하여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환경) 본 과업에서 누락되어 있는 환경-대기분야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 제안

- 화력발전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에서 학습 모니터링을 통한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임. 중

국 동해안의 화력발전사와 공동연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임

- 화력발전과 지역의 상생효과를 위해 산학연계로서 발전분야의 전공신설이 필요함. 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함
- 제시되어 있는 사업 중 해양쓰레기 처리 선진화는 환황해 공동상생 협력 프로그램으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함

○ **(교류)**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을 관할 할 수 있는 환황해연구원 설립 필요

- 환황해 지역에 대한 연구, 교육, 협력의 기능으로 충남을 뛰어넘어 국제적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이는 충남도에서 환황해 지역 연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가에 제안하여 환황해연구원을 충남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으로 실현가능

○ **(교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필요

- 교류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성'과 '연계성'임. 정치적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류협력 프로세스가 필요함.
- 외국인들에게 충남지역을 홍보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 생각함
- 누락된 분야로서 체육교류분야를 제안함. 체육교류는 문화, 관광, 교류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야임. 산동성 골프대회는 서울, 나주등에서 개최되었으며 100개팀이 참여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효과는 상당함.

○ **(교류)**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제안

- 4차산업혁명 시대 청년 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환황해권 청년창업 교류회 제안
- 공청단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중일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유 및 사업화 실천 가능

○ **(기타의견)**

- 원스톱 국제복합센터 조성(국제교통환승+쇼핑+레저)
- 대기 및 수질오염 공동연구 및 실증단지(교통관련 연구단지 조성)
- 외국인 친화적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중 · 일 · 영 안내 표지판 및 키오스크)
-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명칭 변경 건의
  ('서해안철도' –> '환황해철도')

제3차 워크숍 개최 결과

'18. 7. 26.(목) | 충남연구원

〈 워크숍 개요 〉

◇ 때 · 곳 : 2018. 7. 26.(목) 14:00~16:00 / 충남연구원 2층 회의실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김현철(충남북부상공회의소), 맹부영(한서대학교), 윤병환(前충청남도), 김정호(충남지식재산센터)
- (충남연) 홍원표(연구책임), 송영현, 강수현 3명

◇ 안 건 : 환황해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비전체계안 검토

□ 주요내용

①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소개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마련과 관련된 주요내용, 본 워크숍의 취지 및 목적 소개

② 본 과업에 대한 전체의견

❍ 이니셔티브의 의미를 제한이 큰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필요

- 환황해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대응방향 제안
- 환황해권 지역 국제화 선도 방향

❍ 국제경쟁력과 국내에서의 주도권 확보 필요

- 충남이라는 지역을 떠올렸을때 환황해라는 인식도는 없는 상태임. 이미지브랜딩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브랜드로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는 컨텐츠사업들이 필요함

❍ 파트너 선정의 필요

- 현재 공간범위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중국, 일본 지방정부에 대한 파트너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전략적파트너를 선정하고 다수의 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선도성 필요
- 충남의 전략적파트너는 오랜시간 교류해온 산동성이 적합함(심대평 지사시절 환황해 사업 논의가 가장 활발하였음)

❍ 지방정부의 제한과 권한 고려 필요

- 산업, 인프라에서 주도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구조로서, 수출지원이 주력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외무역관의 부활이 필요함

③ 환황해 이니셔티브 우위분야

○ **(해양)** 환황해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해양부문임

- 대륙위주의 중국은 해양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뒤쳐지는 상황
- 환황해라는 과제 이름에 맞게 해양중심의 전략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 환황해권 교류를 지원하는 내륙화물기지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충남에서는 천안 · 아산 지역만이 가능함.
- 서산공항을 물류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가능

○ **(수소에너지)** 친환경동력장치 산업이 아니라 '수소'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기를 제안함

-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분야로서 충남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
-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방안책으로서 신산업 분야의 수소에너지를 충남의 이니셔티브로 가져갔으면 함
- 소형 이차전지와 대형 선박, 비행기 분야의 수소동력 장치로 산업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음

○ **(식품산업)** 지방정부에서 상생의 인식으로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식품산업임

- 각 지방정부의 지역특산품을 서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국제창업)**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을 관할 할 수 있는 환황해연구원 설립 필요

- 환황해 지역에 대한 연구, 교육, 협력의 기능으로 충남을 뛰어넘어 국제적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이는 충남도에서 환황해 지역 연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가에 제안하여 환황해연구원을 충남지역에 설립하는 방안으로 실현가능

○ **(교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필요

- 교류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성' 과 '연계성' 임. 정치적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류협력 프로세스가 필요함.
- 외국인들에게 충남지역을 홍보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일이라 생각함
- 누락된 분야로서 체육교류분야를 제안함. 체육교류는 문화, 관광, 교류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야임. 산동성 골프대회는 서울, 나주등에서 개최되었으며 100개팀이 참여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효과는 상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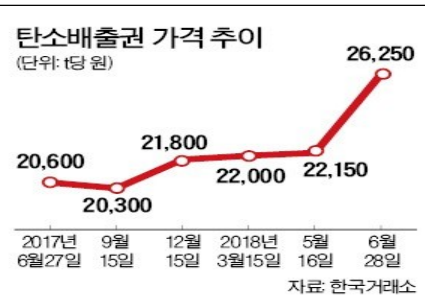
○ **(교류)** 청년창업 국제 교류회 제안

- 4차산업혁명 시대 청년 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환황해권 청년창업 교류회 제안
- 공청단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중일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유 및 사업화 실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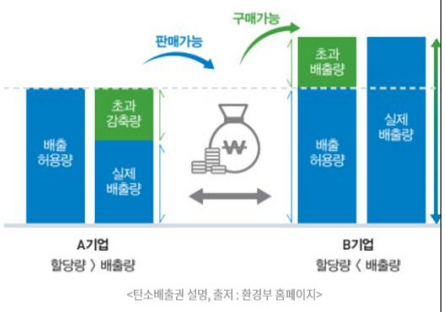
○ **(기타의견)**

- 신규사업 분야에서 신산업 분야가 없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추가로 진행하여 다양한 자문을 받았으면 함
- 환황해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
- 그동안 진행된 환황해포럼 참가지역과 발표주제 등을 참고하여 본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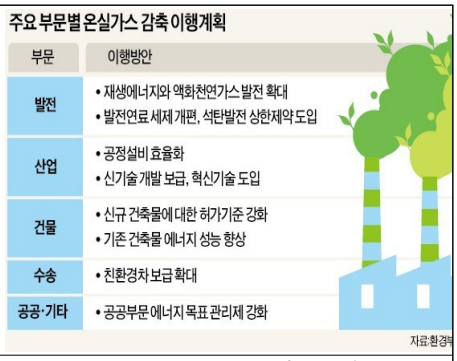
부록 4. 도민아이디어 제안서(5)

사업명	1. 환황해권 연계 탄소배출권 확보 구축사업	제안자	천안시 조00
분 야	환경 협력		
개 요	▶ 국내 산업계가 떠안아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벌써부터 배출권 가격이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음. 배출권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임. 배출권을 사야 하는 기업들이 짊어지는 비용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짐. 2018년 6월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탄소배출권은 전날 대비 9.83% 오른 t당 2만6250원에 거래됨. 탄소배출권 가격은 이날 정부의 '2030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이미 요동쳤다. 올 들어 줄곧 2만2000원 전후에 머물렀던 가격은 지난 26일 이후 급등세로 돌아서 최근 3일간 19.5% 올랐음.  탄소배출권 가경 추이 변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례 ▶ 충청남도의 경우 '화력발전소(전국 최대 밀집지역)', '현대제철', '현대오일뱅크' 등 탄소저감 대상 산업이 밀집해 있어 이들 기업이 동남아 국가 등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하지만 탄소배출권의 경우 기업 단독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등과 함께 연대하여 해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임. ▶ 충청남도와 산하기간(충남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탄소배출권 대상 기업들과의 협의체 구성 후, 중국 및 동남아 일대를 포함하는 환황해권 탄소배출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 전개를 제안하는 바임. ▶ 우리지역의 대기업 집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렇게 연결된 협의체를 환황해권의 상호 상생 모델이 탄소배출권 거래의 새 모델을 사업화할 수 있음.		
아이디어 제안배경	▶ 현재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공익적 성격과 비정부기구, UN 등이 포함된 글로벌 개념의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임. ▶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해외 많은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역의 대기업과 동남아 일대를 연결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연계사업을 다양한 추진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국내 기업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례 신문기사 사례 ◀] 삼표시멘트는 탄소배출권 확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저개발 국가의 탄소 배출저감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고 2018년 6월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삼표시멘트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단체들과도 협업관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삼표시멘트는 지난 4일 미얀마에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환경부 등과 협약식을 갖고 '고효율 쿡스토브' 9만대를 5년에 걸쳐 보급하기로 했다. 쿡스토브는 점토와 시멘트를 섞어 제작한 곤로 형태의 취사도구로 열효율을 44% 향상시켜 탄소배출량 및 나무땔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시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쿡스토브가 보급되는 미얀마 중북부 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과 사막화로 거주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은 상황으로 삼표시멘트는 열효율이 높은 신형 쿡스토브 보급을 통해 나무땔감 사용량을 줄여 '해외 상쇄 배출권' 형식으로 상당량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해외 상쇄 배출권'이란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및 기술을 제공,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이 감축량을 자국으로 가져 오도록 하여 세계 탄소배출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삼표그룹 송석훈 상무는 "삼표시멘트는 전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기후변화대응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번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과 같이 UN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 일정(안) 1.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충남연구원 등) 사전 스터디(2018년 12월) 2. 충청남도 내 대기업 중 탄소배출권 확보 기업 사전 조사 3.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사업(안) 공유 및 의견교환(2019년 5월) 4. 사업을 추진을 위한 추가 조직 및 기관 설립 인가(2019년 9월) 5.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및 환황해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19년 12월) 6. 참여 기업 펀드 투자 및 확보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 확보 7. 환경부 산하 탄소배출 거래서 등록 및 수익사업 연계(2020년 3월)
기대효과	1.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 구성 및 배출(신규 일자리 창출) 2. 기존 화력발전소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변화 기회 제공 - 화력발전세를 통한 향후 지속적 지방세 확보 사업화 연계 3. 지역 대기업들의 공통 애로사항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4. 관련 기업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공동 사업화 5. 충남의 “발전, 정유, 건설, 철강 분야 등”은 산업 특성반영 사업 6. 정부의 핵심 지표를 지자체의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연계 7. 중국, 동남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탄소배출 거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경·경제 연합체 구성 8. 배출권 거래 ‘전문 딜러’ 등 새로운 직업군 탄생(지역 특화) 9. 환경부, UN, 글보벌 NGO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가능 10. 탄소 관련 환황해권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



환경부 탄소배출권 거래 모델



환경부 제공 온실가스 감축 이행(안)

사업명	2. 환황해권 어족자원 고발방지 정책 공유방안	제안자	계룡시 원00
분 야	환경협력		
개 요	▶ 필요성 : 각국 지방정부 설정과 특성을 살린 독특하고 실효성 있는, 어족자원 고갈방지 우수 정책 사례를 환황해권 지방정부끼리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내용 : 환황해권에 입지한 한중일 지방정부의 어족자원 고갈방지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시키는 장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상생·공동 발전 도모 ▸ 협력대상 : 충남도를 비롯한 국내 광역자치단체,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상하이성, 저장성, 오키나와, 구마모토현, 시즈오카 현 등→중국과 일본 지방정부의 경우 충남과 자매·우호교류 관계를 맺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충남과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징과 문제를 지닌 지역을 협력대상으로 선정 ▸ 추진주체 : 각국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충남, 산둥, 허베이,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시즈오카, 구마모토, 오키나와현 등 환황해권 내 다양한 한중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매년 어족자원 고갈방지 정책 콘테스트 개최 : 매년 각국 순회 형식으로 실시/주최는 3년에 1회/2회는 참석 ▸ 정책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지방정부를 다양한 콘테스트 참여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검토사항 : 어족자원 고갈방지 정책 필요성 및 벤치마킹 가능한 정책분야 선정에 대한 한중일 지방정부 간 협의: 우선적으로 진행(필요)		
기대효과	▸ 한중일 지방정부의 어족자원 고갈방지를 위한 정보공유를 통한 충남도정 발전 및 어민 소득 증대 ▸ 기존 국제교류 사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방정부 공무원이 중심이 된, 초국경 인프라 건설 활동이며 이를 통해 한중일 지방정부 정책 입안자 간의 내실화된 국제교류 가능할 것(기대)		

사업명	3. 환황해권 해양 쓰레기 처치 정책 공유방안	제안자	계룡시 원00
분 야	환경협력		
개 요	▸ 필요성 : 각국 지방정부 설정과 특성을 살린 독특하고 실효성 있는, 어족자원 고갈방지 우수 정책 사례를 환황해권 지방정부끼리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내용 : 환황해권에 입지한 한중일 지방정부의 해양 쓰레기 처치를 위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확산시키는 장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상생·공동 발전 도모 ▸ 협력대상 : 충남도를 비롯한 국내 광역자치단체,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상하이성, 저장성, 오키나와, 구마모토현, 시즈오카 현 등→중국과 일본 지방정부의 경우 충남과 자매·우호교류 관계를 맺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충남과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징과 문제를 지닌 지역을 협력대상으로 선정 ▸ 추진주체 : 각국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충남, 산둥, 허베이,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시즈오카, 구마모토, 오키나와현 등 환황해권 내 다양한 한중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매년 어족자원 고갈방지 정책 콘테스트 개최 : 매년 각국 순회 형식으로 실시/ 3년에 1회 주최/2회는 참석 ▸ 정책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지방정부를 다양한 콘테스트 참여자들이 직접 방문하고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검토사항 : 해양 쓰레기 수거 정책 필요성 및 벤치마킹 가능한 정책분야 선정에 대한 한중일 지방정부 간 협의: 우선적으로 진행(필요)		
기대효과	▸ 한중일 지방정부의 해양 쓰레기 수거정책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한 충남도정 발전 및 국제 환경미화 ▸ 기존 국제교류 사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방정부 공무원이 중심이 된, 초국경 인프라 건설 활동이며 이를 통해 한중일 지방정부 정책 입안자 간의 내실화된 국제교류 가능할 것(기대)		

사업명	4. 마음으로 보는 한중일 전시회	제안자	공주시 김00
분 야	민간교류 촉진		
개 요	▸ 한국,중국,일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회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아이디어 제안배경	▸ 대부분 미술관에선 전시 작품을 만지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한국,중국,일본에서는 '손끝으로 보는 조각전'시설하여 만져야 하는 전시회을 상시 열었으면 합니다.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한국,중국,일본에 시각장애 어린이가 손으로 작품을 만져보며 감상 할 수 있게 작품들에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눈'이 되고자 하는 작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었으면 합니다. 전시장에는 유도블록이 설치돼 있고, 각 작품 옆에는 점자로 설명이 적혀 있었으면 하고요. 조각 작품들도 일렬로 나란히 전시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 한국,중국,일본에서 이런 뜻깊은 전시회를 유치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시회가 한번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술관 한켠에 시각장애인들이 만질 수 있는 미술품을 구비한 '손으로 보는 방' 같은 섹션을 마련하고 유도블럭과 점자를 통한 상세한 설명과 체험 공간을 마련 상시 운영한다면 한,중,일 뿐 아니라 다른나라 시각장애아들에게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업명	5. 한중일 장애인 행복나라 교류촉진	제안자	공주시 김00
분 야	민간교류 촉진		
개 요	▸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화장실 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비품에 촉지판을 부착하고 세면대에 비품위치 안내점자 부착		
아이디어 제안배경	▸ 화장실 비품에 시작장애인을 위한 촉지판이 없어 이용에 불편함 ▸ 세면대를 기준으로 비품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점자 안내판이 필요함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화장실 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내 화장실 비품에 촉지판 부착(한중일에 모범을 보여 확산 유도) 물 나오는 곳 표시 / 핸드드라이 표시 / 비누 표시 ▸ 세면대에 화장실 비품 위치 점자안내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용 또는 비장애인용 화장실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부록 5. 충남도 및 시군 국제교류담당자 워크숍 개최결과

제1차 충남도 및 시·군 합동워크숍 개최 결과

'18. 6. 22(금)

〈 워크숍 개요 〉

◇ 때 · 곳 : 2018. 6. 22.(금) 14:00~16:00 / 충남연구원
◇ 참 석 : 16명(미래정책과장 주재)
- (도) 미래정책과장, 환황해팀장 등 5명
- (시·군)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 부여군, 홍성군 등 8명
- (충남연) 홍원표, 송영현 등 3명

◇ 안 건 : 충남 국제교류현황 및 사업제안 아이디어 공유

□ 주요내용

①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소개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마련과 관련된 주요내용, 본 워크숍의 취지 시·군 관계자에게 소개

② 시·군별 국제교류현황

❍ 워크숍 참석한 8개 시·군이 교류 현황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실시

- 국제교류 지역, 내용, 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 용역과 관련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

❍ 시·군별 주요 교류국가는 중국과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교류내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 공주, 부여, 예산 등은 일본과의 교류 중점적으로 진행 중이며 천안, 홍성 등은 중국과의 교류에 방점
- 보령은 중일 모두와 적극적인 교류 실시 중이며 아산의 경우 중일 외에도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와 교류 중
- 경제교류 외에도 청소년 교류, 문화 교류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 외 민간 차원의 교류에 대한 관심 증가

❍ 그러나 대부분 시군이 통상, 관광 등 경제측면의 교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협력 파트너인 중국 지방정부 역시 경제교류 우선시

③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 관련 신규 사업 아이디어 제안

❍ 아산시의 경우「꿈나무들의 희망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모여라~ 충남으로」를 제안

- 충남 15개 시 · 군의 환황해권 자매도시와 충남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 캠프 개최를 제안

❍ 당진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국어(중국어) 말하기 대회」개최를 제안

- 현대 당진시는 매년 중국 일조시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 중이며 대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 높다고 설명
- 사업을 충남도 차원에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

❍ 부여군은 부여와 중국 낙양시가 공동으로 「백제유민 고고유적 조사사업」실시할 것을 제안

- 부여와 낙양이 공동으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백제사를 조명하는 일이 역사 · 문화적으로 상당히 의의 있다 설명

❍ 홍성군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홍보관」설립을 제안

- 충남도 해외수출에 직 · 간접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홍보관 마련 필요하다 설명

❍ 워크숍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계룡시의 경우「공공행정 인적교류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을 제안

- 환황해권 주요 지방정부 공무원 간 인적교류 실시하여 각국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 습득하고 타국기관 행정방식에 대한 이해 도모

제2차 시·군 합동워크숍 개최 결과

'18. 11. 26(월)

〈 워크숍 개요 〉

◇ 때 · 곳 : 2018. 11. 26.(금) 10:30~18:00 / 리솜스파캐슬
◇ 참 석 : 50명
- (도) 미래성장본부장, 미래정책과장, 환황해팀장 등
- (시·군)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등
- (충남연) 홍원표, 강수현

◇ 안 건 : 환황해 이니셔티브 세부사업 검토

주요 내용

□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 검토

○ 충남도 실과 및 시군의 사업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

▲ (환경)환경협력선도(10)
▲ (교통)초국경교통연결(4)
▲ (교류)교류협력심화(9)
▲ (경제)친환경 선진산업 육성(16)
▲ (인프라)교역거점조성(10)
▲ (인재)포용사회촉진(12)

○ (환경) 태안 해양환경메카조성 관련

- 재원조달이 민감한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세부검토 요청
-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대통령 및 충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동력확보 가능)
- 환경오염 체험관 건립의 경우, 현재 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교육과 설립과 연계하여 추진고려(이미 운영 중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활성화 차원의 접근방법도 고려)

○ (경제) 대북 교역거점 조성 관련

-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응한 충남도 차원의 추진전략으로서 남북 경협기반 구축(남북경협지원센터 운영) 필요
- 향후 북한의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남북경협 희망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과 지역산업 활성화 기대
- 본 사업에 대한 법적 제약은 없으나 도민 공감대와 설립 근거(관련 조례 등) 마련 후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인프라)** 대산항 배후단지조성 관련

- 대산항은 대중국 교류를 위한 수출거점지로서 항만기본계획(국가계획)에도 내용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물동량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항만물류단지개발은 2030년까지 개발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향후 물동량 수요 발생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및 배후단지개발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논리확보 노력이 필요함

○ **(인프라)** 대산-해주항 통항 관련

-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경제교류 확대 시 해운 및 항만물류 수요확대를 예상하는 노선으로서 남북협의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예상할 수 있음.
- 대산항과 해주항 간 연계가능한 물동량 및 항만시설 처리능력 등에 대한 여건분석이 우선 필요한 상황임

○ **(관광 및 교류)**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추진체계 연계

- 환황해포럼 기획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등 국제교류사업 관련 협조체계 구축

부록 6. 해외파트너(중국, 일본) 기관방문 결과보고서

1) 제1차 일본국외출장

(1) 공무국외 여행 개요

○ 기간: 2018년 8월 1일(수) ~ 8월 4일(토), 3박4일

○ 여행자: 홍원표(미래전략연구단 미래연구팀장), 김종화(행정복지연구부 부장)

○ 여행국: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 방문기관: 후쿠오카현청, 나가사키현청, 큐슈경제연합회,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나가사키현립대학

○ 주요 일정:

일정	활동	내용
8.1.(수)	이동(김해→후쿠오카)	
8.2.(목)	큐슈경제연합회 방문	큐슈경제연합회 활동 파악, 큐슈지역 현의 환황해권 협력 상황 파악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방문	현지 파트너 역할 가능성 모색
8.3.(금)	나가사키현청 방문	국제교류 현황 파악 및 환황해 교류협력 인식 조사
	후쿠오카현청 방문	국제교류 현황 파악 및 환황해 교류협력 인식 조사, 환황해포럼 초청 건
	나가사키현립대학 인터뷰	큐슈지역 파트너 선정 관련 자문의견 청취
8.4.(토)	이동(후쿠오카→김해)	

(2) 주요여행 활동 내역

■ 큐슈지역 지자체의 환황해협력 관련 인식 조사

■ 충남의 현지파트너 물색

■ 올해 『환황해포럼』 초청 관련 사전 협의

>> 큐슈지역 지자체의 환황해 교류협력 관련 인식 조사

○ 큐슈경제연합회의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 조사

– 큐슈경제연합회는 큐슈지역경제단체 및 지자체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서 한중일 환황해 기술경제회의 및 한일(큐슈)시도현지사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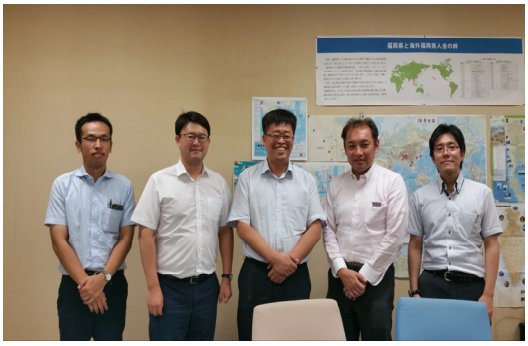
- 큐슈경제연합회는 큐수지역은 환황해권의 일원으로서 인식이 있으며,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각 현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힘들다는 반응

○ 나가사키현청의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 조사

- 나가사키현은 현재 한일(큐슈)시도현지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상하이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교류관계가 있음
- 그러나 한중일을 아우르는 환황해권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한 바 없으며, 공통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인식이 없음

  ※ 나가사키현은 국제교류협력의 중점이 ASEAN에 있으며, 중국, 한국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 이는 일본의 국제화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해양환경보호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바 없음
-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차원에서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음
- 국제 창업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졸업후 현지에 정착하게 하는 노력이 있으나 이와 관련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있지 않음
- 관광 관련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주요거점인 후쿠오카공항으로부터 2시간 넘게 떨어져 있어서 애로가 있음. 크루즈항의 경우 큐슈지역에서 하카타항(후쿠오카항) 다음으로 나가사키(사세보 등)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많은 상황임
- 농산물의 해외수출은 주로 홍콩, 싱가폴 쪽으로 일어나고 있음.

[사진] 나가사키현청 회의 참석자



[사진] 후쿠오카현청 회의 참석자

[사진] 큐슈경제연합회 회의 참석자

[사진] 후쿠오카현청 회의 장면

○ 후쿠오카현청의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 조사

- 후쿠오카현은 큐슈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 방면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큐슈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로서 한중일을 아우르는 환황해권 교류협력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은 없으나, '황해'를 공통언어로 하는 협력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심이 있음
- 나가사키현과 마찬가지로 국제교류협력은 주로 ASEAN에 집중되어 있음. 후쿠오카현은 일본의 ASEAN 교류협력의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해양환경보호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NGO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음
- 재생에너지 관련하여 현 차원보다는 키타큐슈시 등 산하 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 창업 관련하여 현 차원보다는 후쿠오카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음. 창업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후쿠오카시는 Growth Next 정책이나 『Hukuoka Gloabl Center』 등을 설립하여 국제적 범위에서 창취업을 장려하고 있음
- 하카타항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크루즈항 기항지이며 한국, 중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임. 후쿠오카 공항은 큐슈지역의 대표적 관문임. 그러나 후쿠오카공항도 아직 적자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심에 입지한 공항으로서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임

구분	큐슈경제연합회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환황해권 소속감	강함	약함	보통
한중일 교류협력 필요성	강함	약함	약함
국제교류협력 중점	ASEAN	ASEAN	ASEAN
한국과 협력 관심분야	관광, 농수산	관광(역사교류)	관광
중국과 협력 관심분야	미상	관광, 농수산	관광, 재생에너지

>> 큐슈지역 지자체 환황해 교류협력 인식조사의 시사점

○ 첫째, 한중일 협력 관련 충남의 위상을 일본 큐슈지역과 중국의 북부(산동성 이북)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

- 큐슈지역은 일본과 ASEAN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과의 교류협력도 대부분 남방(홍콩, 상하이 등)에 집중
- 큐슈지역 국제교류협력은 대부분 관광, 농산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주요 지역은 ASEAN 이외에 중국의 남방, 한국 등임
- 충남의 농산물 수출도 큐슈지역과 유사하게 주로 싱가폴, 홍콩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임
- 충남은 향후 중국의 북부와 일본의 큐슈를 연결하는 거점이 된다면, 일본 큐슈지역과 중국의 북부에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상황임
- 이는 향후 충남에 건설될 공항과 항만의 특화 전략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환황해 교류협력 파트너는 분야와 지역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등 큐슈지역의 주요 지자체가 환황해권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

  ※비록 큐슈경제연합회는 환황해권에 대한 유대감이 있으나 이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행사주관기관으로서의 입장이 투영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ASEAN과의 연계가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됨

- 큐슈지역과의 종합적인 교류협력보다는 분야 및 사안에 따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후쿠오카현을 핵심 파트너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충남도의 국제교류협력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충남도의 일본지역 교류협력은 쿠마모토현(큐슈), 나라현, 시즈오카현인바, 쿠마모토를 제외하면 모두 혼슈지역의 지자체로서 환황해권과는 거리가 멈

- [농산물 교역]의 경우 후쿠오카공항보다는 키타큐슈 공항, 사세보 공항이 24시간 통관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으로 파악됨
- [관광 교역]의 경우 크루즈여행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충남의 보령신항은 하카타항을 우선 고려하되, 나가사키항과의 연결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임
- [국제창업]의 경우 후쿠오카시가 이미 국제창업 관련 움직임이 있음을 고려, 충남의 천안아산지역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 [해양환경 보호]의 경우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임. 현재 일본, 한국, 중국 모두 해양쓰레기 관련한 NGO가 조직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충남은 이와 관련한 NGO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NGO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충남연구원 현지 파트너 물색

○ 잠재적 파트너로서 큐슈경제조사협회,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 등 3개 조직(기구)가 물망에 오르고 있음

- 큐슈경제조사협회는 큐수,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광역공익재단법인으로서 1946년 설립되어 7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는 국립대학에 설립된 유일한 한국연구센터로서 현재 활동은 미약하나, 큐슈대학이 설립준비중인 큐슈대학국제교육기구는 큐수대학출신자의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내년 4월경 출범예정임
-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는 후쿠오카시가 세운 연구소로서 현재 한국의 지자체 정책연구기관 대부분이 이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큐슈경제조사협회는 큐슈,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초광역(sub-national) 수준의 기구로서 경제분야 특화 기관임

- 큐슈경제조사협회는 지역적으로 큐슈뿐 아니라,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조사연구 기관임
- 내용적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외 분야에서는 강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현 수준인 충남의 파트너가 되기보다는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위상을 갖고 있음. 충청권 상생협의회 수준에서 대응가능하나, 상생협의회의 조직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그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는 충남과 인연이 깊으나 조직역량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 한국연구센터는 이번 출장에서 방문하여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한 바, 현재 센터는 센터장 포함 4인이 상근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센터운영위원에서 결정함.
- 현 체제에서는 큐슈대학의 강력한 지원을 받거나 큐슈대학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현재 주로 역사·인문과학 쪽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이는 주로 센터장, 부센터장의

개인적 관심분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향후 관광, 문화교류방면에 관심 많음

– 향후 큐슈대학 차원에서 '아시아교육연구기구'를 설립할 구상을 갖고 있는데 내년 4월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한국연구센터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구분	큐슈경제조사협회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
조직성격	공익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조직목표	경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일양국관계 근현사 및 당대 문제 연구	후쿠오카시 도시조성에 대한 기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협력과 공헌
설립년도	1946	1999	2004(전신인 후쿠오카도시과학연구소는 1988년, 아시아태평양센터는 1992년 설립)
출자금	미상	미상	3000만엔(후쿠오카시 출자)
회원	기업, 지자체, 대학 등 약600개 단체	대학 부설기관	시 출연 연구재단
종사인원	55명	15명(전임 3명)	27명
조직구성	총무부, 기획부, 조사연구부, 사업개발부,	센터장, 부센터장, 겸임교원, 협력교원, 특임교원 등	조사연구그룹(조사연구, 정보전략, 아시아교류팀), 총무그룹
주요 활동	·정기간행물 발행(큐슈경제조사월보, 도해큐슈경제, 데이터큐슈,, 큐조협뉴스레터 등) ·BIZCOU(경제도서관) 운영 ·정책제안(큐슈경제백서, 연구보고출판, 특별조사보고서) ·공동연구·파견(국제공동조사, 조사연구보고회 개최, 강사 파견)	·한일관계사 자료 연구 ·교육(세계한국연구컨소시엄, 한국근현사차세대청년연구자세미나,한국국제교류재단펠로우십, 아시아태평양컬리지, 센터교원 수업) ·간행물발간(센터연보, 센터총서, 소장자료목록,아카이브) 소장문고(森田芳夫文庫, 辛基秀文庫, 梁三永文庫)	조사연구(과제발견연구, 지역사회연구, 과제즉응연구, 아시아 도시정책연구 등) 정보수집·발신(기초사회 데이터, 도시정책연구 발간, 도시세미나 개최 등) 인재육성(시민연구원 수용, 젊은연구자 연구활동 장려, 회원연구원 수용) 네트워크 형성(아시아교류플랫폼 형성, 국제시찰·연수)
특기사항	큐슈지역 7개현 및 오키나와, 야마구치를 아우르는 초광역(sub-national)기구 종합연구소라기보다는 경제분야에 특화되어 있음	일본 국립대학 유일의 한국연구센터 1998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재일동포성금으로 개설, 박진도 전원장 제1회교환교수로 근무 현재 역사분야 연구에 치중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구성원(부산, 경남, 광주, 제주, 울산연구원; 아시아성장연구소, 큐슈경제조사협회, ㈜나가사키경제연구소, 사가대학산학지역연계기구 등 포함) 아시아교류네트워크협정체결기관(부산, 경남, 대전, 호치민, 아시아해비타트, 중국사회과학원노년과학연구소, 흑룡강사회과학원 등)
홈페이지	http://www.kerc.or.jp/	http://rcks.kyushu-u.ac.jp/	http://urc.or.jp/

>> 파트너 물색 관련 시사점 및 조치 사항

○ 일본 쪽 현지 파트너 물색 활동을 본격화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함

- 출장 결과 현지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있음을 확인함
- 이번 출장을 통해 확보한 연락창구를 통해 큐슈대학한국연구센터 등 후보 조직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자료 확보 필요
- 용역의 결과물인 선도사업 그리고 올해 환황해포럼 등 손에 잡히는 교류협력 계기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음

○ 2차 출장에서 큐슈경제조사협회와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파트너로서 가능성 확인 필요

- 일본 지역 2차 출장이 11월 중 예정되어 있음
- 큐슈경제조사협회와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파트너로서 잠재력과 의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장 전 두 기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2) 제1차 중국국외출장

(1) 공무국외 여행 개요

○ 기 간: 2018년 8월 28일(수) ~ 8월 31일(토), 3박4일

○ 방문자: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 박사, 송영현 박사, 강수현 연구원

○ 방문국: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제남시)

○ 방문기관: 산동성사회과학원, 산동성사회과학원 환황해발전연구센터, 산동성교통과학연구원, 웨이하이지방협력자유무역시범구

○ 주요일정:

일자	주요일정	내용
8월28일(화) (웨이하이)	· 이동(인천→웨이하이)	
8월29일(수) (지난)	· 웨이하이 한중지방협력자유무역시범구 방문 · 이동(웨이하이 → 지난)	· 웨이하이시 환황해권 협력 상황 파악 · FTA시범지구의 사업가능성 모색
8월30일(목) (지난)	· 산동성사회과학원 방문 · 산동성사회과학원 환황해발전연구센터장 인터뷰	· 현지 파트너 역할 가능성 모색 · 국제교류 현황 파악 및 환황해 교류협력 인식 조사 · 환황해포럼 초청 건
8월31일(금)	· 산동성교통과학연구원 방문 · 이동(지난→인천)	· 한중 초국경 연결망 구축 가능성 모색(해저터널, 열차페리 등)

(2) 주요 활동내역

■ 산둥성 정부의 지방차원 교류협력에 관한 및 관심사항 파악

■ 본 연구 핵심사업에 대한 의향 타진 및 사업추진 창구 마련

■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의 협력 가능성 모색

■ 올해 『환황해포럼』 초청 관련 사전 협의

■ 한중 초국경 연결망 구축 가능성 모색과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 산동성 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합작·협조 판공실 출장 결과

○ 면담자 : 웨이하이 중한FTA지방경제합작·협조 판공실 부국장, 중한FTA지방경제협력 초진센터 프로젝트촉진부장, 투자촉진센터 한국부장

○ 웨이하이시와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

- 웨이하이시는 2015년 체결된 한중 FTA 협정 제17장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
- 한국과의 협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큰 지역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시의 주요발전전략으로 삼음
- 90년대 인천과 통항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현재 시 전체 무역액의 60%, 외자의 80%가 한국으로부터 발생
- 2018년 현재 8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웨이하이에 입지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장 왕성했던 2010년 이전에는 3,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입지
- 인천과의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묶인 만큼, 10여 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협력정책 추진 중이며 중국 상무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성원으로 참여 중

○ 자유무역시험구, 한중산업단지 등과의 차별성 및 주요정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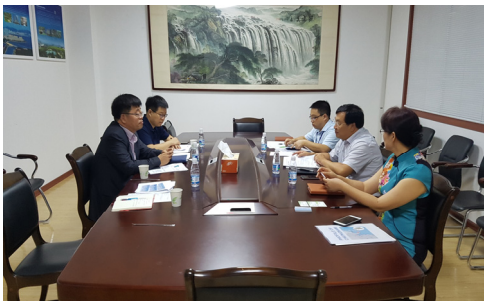
- 현재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 한중 FTA에서 제시된 또 하나의 한중협력기제인 한중산업단지에 비해 협력내용이 보다 포괄적이라는 장점 존재

  ※ 웨이하이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산업, 금융, 과학기술, 관광, 문화, 체육, 의료, 위생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
- 그러나 중국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에 비해 웨이하이시가 한중 FTA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특별한 지원은 많지 않은 상황
- 2015-18년까지 시 차원에서 매년 한중 지방경제협력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편
-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산둥성 내 칭다오시, 옌타이시 항구보다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점, 통관속도가 약간 빠르다는 점 등 장점 있으나 웨이하이시 만의 특별한 장점은 없는 상황
- 전반적으로 볼 때, 웨이하이시와 인천시 간 실체화된 경제협력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한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방향 및 향후 비전

- 전자상거래, 서비스 무역 분야 위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 건설을 위해 노력 중
- 웨이하이시는 중국 내 서비스무역 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3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 중. 이에 따라 상기 2개 분야를 대외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시도
- 실제 한국과의 전자상거래 무역액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 웨이하이시의 수출액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적은 편
-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에 있어 웨이하이시는 인천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예정
- 충남과 웨이하이시의 경우,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경제협력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
- 단, 스마트팜, 농업관광 등 현대화된 농업 분야, 각종 해양분야의 협력 의지는 상당히 높은 편

- 웨이하이시는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 비중이 30% 이상으로 해외 농업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 높은 편이며, 경제의 대외의존도 높은 연해지역인 만큼 해양산업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 높은 편
- 한편,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웨이하이시는 한중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4-5가지의 미래 발전방향을 고민 중
- 인천, 웨이하이,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한 · 중 · 일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무역을 위한 상호 도시 주민 간 비자면제 등 제도 시행, 환황해 해양도시 연맹 구축, 통관 속도 증대 방안 마련 등이 주 내용임



[사진] 웨이하이중한FTA지방경제협력 사무국

>> 산동성 사회과학원 출장 결과

○ 면담자 : 산동성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장, 환황해연구센터장,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외사판공실 주임

○ 산둥성 환황해 교류협력 현황

- 환황해에 대한 인식은 8,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논의 진행
-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환황해에 대한 논의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진행 중→그러나 환황해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 확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 환황해라는 어휘의 활용에 대해 반감 없으며 오히려 국제화된 이미지를 주는 단어라는 점에 공감→유사 어휘로 환발해라는 단어가 있으나 이는 중국 국내 연해지역을 지칭한다는 인식 강함
- 한편, 산둥성은 환황해권 지방정부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진행 중이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연구원인 산둥성 사회과학원 차원에서 파악하기에 한계
  → 단, 산둥성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향후 산둥성 정부 외사판공실과의 연계에 적극 협조할 예정
- 일대일로 정책을 한국까지 확장하기 위한 근거지로 산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있으며 여전히 한국이 산둥의 가장 중요한 무역 · 투자 대상국이라는 인식 강한 편
- 2,3년 전부터 성 정부 산하에 환황해전략연구원 만든다는 계획 알려진 바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 산둥성의 환황해 교류협력 관심사항

- 산둥성은 해양산업 GDP가 성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며 과학기술 역량의 1/3이 해양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양 관련 사항에 대한 교류협력 의지 강한 편
- 현재 산둥성 사회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 관 협력 잘 이뤄지고 있으며 2017년 11월 황해(중국 측 동중국해) 연구기관 간 연맹을 만들고 운영 중
- 한 · 중, 한 · 중 · 일 국제창업에 대한 관심 높은 편이며 청년 뿐 아니라 고령자 간의 창업활동에도 관심
- 단, 국제 창업 관련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산둥성 내 산업원구, 보세가공구, 종합보세구 등에 기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
- 생태보상, 해안선 회복 등 해양환경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협력도 관심 있으나 민감한 문제보다는 정책적 차원의 협력에 보다 관심 있는 편

  ※생태보상 : 생태 및 환경보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보상

○ 환황해발전연구센터 현황 및 발전계획, 충남과의 협력가능 분야

- 환황해발전연구센터는 2017년 6월 창립되었으며 산둥성 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설립
- 한국, 캐나다, 일본 출신 연구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
- 단, 2017년 황해 연구기관 간 연맹 구축을 주도 하였으며 2달에 한 번씩 간행물을 출간할 예정
- 충남, 또는 충남연구원과 환황해 관련 협력 가능하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한 만큼, 상호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사업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

[사진] 산동성사회과학원 회의장면

>> 산동성 교통과학연구원 출장결과

○ 면담자 : 산동성교통과학연구원장, 종합교통발전연구실 주임, 교통빅데이터연구센터 주임

○ 초국경교통망 관련 중국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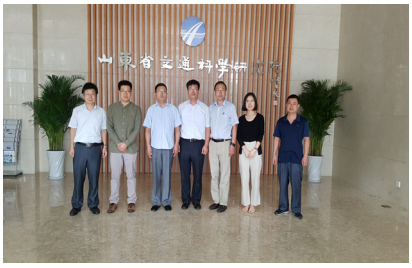
- 한중 초국경교통망과 관련하여 논의는 있었으나 한중 지방정부 간의 별도의 공동연구는 없었음→단, 국제 교통세미나, 한국 측 연구관련 자문에는 비교적 활발히 참여
- 특히 2016년 경기도 평택항과 산둥성 옌타이항 간의 열차페리 연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비교적 깊게 이해
- 한편, 중국 내에서도 민간항공기 운항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으며 산둥성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그러나 국경 간 민간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외교, 국방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 미비
- 또한 여객 크루즈에 대한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한중해저터널 관련 논의

- 한중 물류량, 여객량이 점차 감소 또는 더딘 증가세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정책, 기술, 터널 관련 표준 차이가 크다는 점, 기존 해상운수체계의 진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중 해저터널의 성공 가능성 다소 낮다고 설명
- 다롄과 옌타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도 2010년 국무원 비준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 없는 상황
- 르자오, 옌타이, 칭다오 등 산둥성 주요 항구들은 이미 관련 시설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해저터널 보다는 열차페리에 대한 관심 높음
-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고 정치적 불안정성 문제가 해소될 경우 산둥성 입장에서 훨씬 더 넓은 배후시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관심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협력사업 발굴

- 한중해저터널, 한중열차페리 등에 대한 산둥성교통과학원과 충남연구원의 기초 협력연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한중 양측에서 정밀한 여건분석, 미래 시나리오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 언급
- 양질의 연구결과 도출 시, 산둥성 정부 산하기관인 교통과학연구원 측에서 성정부에 정책제안 가능



[사진] 산동성교통과학연구원 회의장면

>> 시사점

○ 산둥성의 경우 환황해권 소속이라는 인식도 높은 편으로 향후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 관련한 주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

- 환황해라는 어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하며, 환황해권 타 지역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중요시
- 중국 내 타 발달지역과 달리, 국가나 인근 경제발전 지역으로부터의 경제적 스필오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특성 강하게 반영→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
- 성 정부 차원에서 환황해 관련 기구 마련에 대한 의지 있는 편 : 환황해발전연구센터 설립하였으며 환황해전략연구원 설립 검토 중

○ 한중 초국경교통연결망에 대한 기초 공동연구 필요

- 한중해저터널, 열차페리, 여객 크루즈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교통연결망 구축 가능성에 대한 충남-산둥 간 공동연구 필요
- 정확한 여건분석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형태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파트너 지역 소속 연구기관인 산둥성 교통과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해양, 농업, 환경 등에 대한 충남-산둥성 간 정책교류 강화

- 다양한 해양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양과 관련된 전방위적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기회 활용 필요
-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경우 현대화된 농업에 대한 관심 많으므로 지역농업발전과 관련하여 충남의 우수정책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많을 것으로 예상
- 산둥성 측은 환경분야 협력의 경우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문제보다는, 서로의 우수정책 사례를 교환하는 형태의 교류를 희망
- 따라서 기존에 비해 심화된 형태의 정책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환황해발전연구센터를 주요 파트너 기관으로 활용

-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기능과 인력 수준이 충분치 않으나, 한국에 대한 이해도 높은 센터장이 향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코자 기획 중
- 현재 국내에서 지방차원의 파트너 기관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충남도 또는 충남연구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협력의사 타진할 필요

○ 기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창업 사업 실시

- 충남이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아직 활용도가 낮은 한중산업단지, 종합보세구 등 기 구축된 플랫폼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사드갈등 해빙 무드가 강화됨에 따라 한중산업단지 활용에 대한 양국의 관심 고조되고 있는 바, 한중산업단지의 적극적 활용방안 검토 필요

3) 제2차 일본국외출장

(1) 공무국외여행 개요

○ 방문기간: 2018년 11월 20일(화) ~ 23일(금) / 총 3박 4일

○ 방문지역: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 방문인원: 농촌농업연구부 유학열박사, 산업경제연구부 이민정박사, 행정복지연구부 김종화박사, 충남도 미래정책과 신현배팀장,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박사

○ 주요일정

날짜	세 부 사 항	비고
11/20 (화)	• 이동: 인천 ⇒ 일본 후쿠오카 • 후쿠오카시 창업지원센터 방문 • 후쿠오카 Growth Next 방문	
11/21 (수)	• 큐슈경제조사협회 (후쿠오카시) • 후쿠오카시 글로벌 센터 방문 • 환황해 국제교류관련 자료 수집	
11/22 (목)	• 현지 창업자 인터뷰 • 현지 세미나 준비 • 현지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자 : 홍원표(연구전반), 유학열(농업농촌), 김종화(해양수산), 이민정(경제산업) - 자문 : 강문헌, 야마시타 코지(후쿠오카大) 야마카와 토시카즈(시모노세키시립大)	홍원표 박사 합류
11/23 (금)	• 카와바타 상점가 견학 • 이동: 후쿠오카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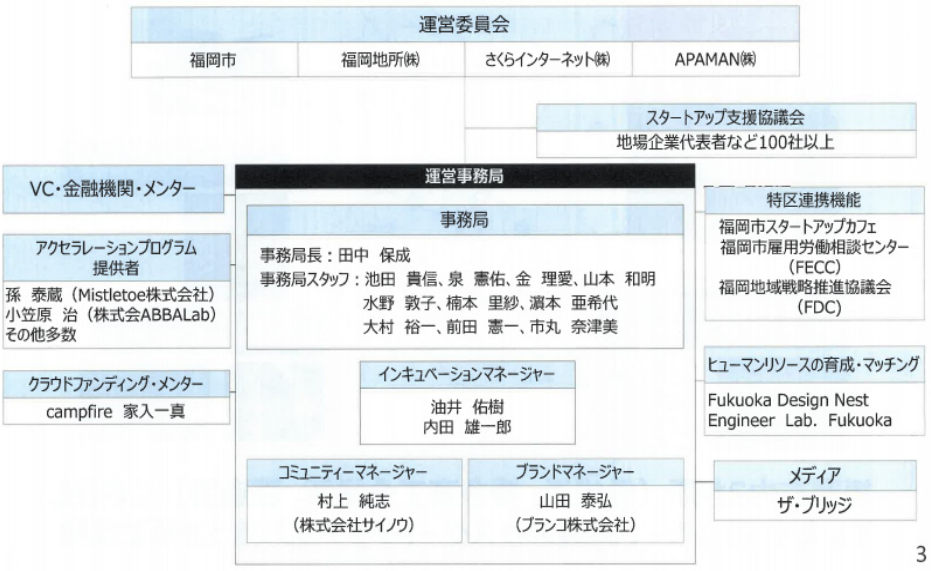
(2) 일정별 주요 방문지 및 내용

>> 후쿠오카 Growth Next

○ 도심의 폐교를 활용한 창업보육시설

- 다이묘(大名) 초등학교는 1873년 개교한 유서있는 학교였지만, 도심 거주인구 감소로 인해 2014년 폐교
- 창업보육시설 선정시, 높은 중심성, 마을만들기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폐교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공청회 등의 의견반영
- 성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전 아동체형, 교육용으로 맞춰졌던 설비 (공조, 인터넷, 급탕, 화장실 등)는 개조
- 2017년 4월 개소

○ 관민공동형



- 현 후쿠오카시장 첫취임(2010년~)부터 창업분위기 조성 중요성 강조.
  2012년 스타트업 0.0(스타트업도시 후쿠오카 선언) → 2014년 스타트업 1.0(국가전략특구 지정) → 2017년 스타트업 2.0(관민공동형 스타트업지원시설 개소)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흐름 만들어나감
- 운영자 : 후쿠오카시, 후쿠오카 지쇼(地所), 사쿠라인터넷, APAMAN
- 협력사 : Mistletoe, ABBALab, 브랑코, 사이노
- 시는 보조금 지원, 회사는 인력지원 (인건비는 회사가 지급), 협력사는 프로그램 지원
- 행정이 앞에서, 민간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나간다는 이미지. 행정이 함께 함으로 인해 지속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장점
- 당초 1년반 사업(2019년 3월말까지)을 목표로 진행했지만 성공적 운영으로 연장되어 이후 10년간 운영자 모집중

○ 동참하는 기업의 목적

- 운영사 : 본 시설이 스타트업들이 향후 이들 운영건물의 입주자가 될 수 있다는 장래성에 투자
- 협력사 & 스타트업 지원협의회(지역기업 130여개사) :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 계획 발표시 지원협의회 기업에서 결정권 있는 사람이 와서 이런 기획들이 금방 제품화로 연결 가능성에 협력

○ 시설 내 다양한 네트워크

- 스타트업 카페 : 13명의 컨시어지(상담사)가 상주하며 스타트업 상담에 대응. 운영은 츠타야 (후쿠오카시 위탁)
- FECC (후쿠오카 고용노동상담센터) : 사전에 문제발생 방지 목적(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안함). 예를 들어, “이 계약서로 고용을 진행해도 될지?” 와 같은 사전대응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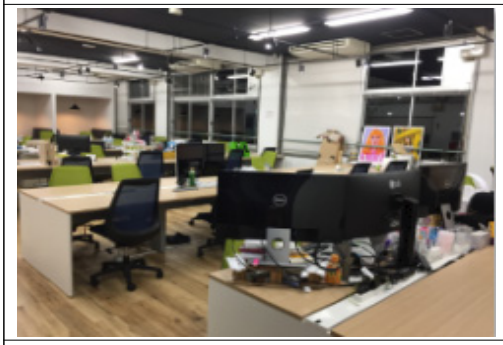
한 상담센터. 국가보조금으로 운영 (특구지정)
- FDC (후쿠오카지역전략추진협의회)
- 인재매칭센터 : 2016년 3월부터 시작

○ 해외연계

- 스타트업비자 접수창구 : 예) 대만 스타트업(Golface사) 비자취득 지원
-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부산, 타이페이와 MOU 체결하여 후쿠오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 향후과제

- 창업가(앙트레프레너)가 혼자 고민하는 환경 변화
- "독자적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앙트레프레너-디자이너-엔지니어가 한팀으로 움직이는 모델 구현

Growth Next 전경	스타트업 카페
	
쉐어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설명회 모습

■ 시사점

○ '지역자원'(폐교)을 지역의 미래성과 결부시킨 활용

- 도심 한가운데 발생한 폐교를 현재의 부동산적 가치로만 접근하여 이를 없애고 새로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닌, 지역재생 나아가 지역의 미래문제에 함께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 단순히 스타트업으로 공간채우기에 끝내는 것이 아닌, "지원시스템" 안에서 스타트업이 "졸업"해 갈 수 있도록 시설 내에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기관을 설치
- 외국인도 스타트업 하기 쉬운 환경조성을 위해 비자취득 지원, 센터 활용 등을 병행

>> 공익재단법인 큐슈경제조사협회

○ 동 협회는 큐슈, 오키나와, 야마구치의 지역경제산업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 정책입안, 관련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산학관 연계로 1946년 설립, 2013년4월부터 내각부인증의 공익재단법인으로 재출발 (원래는 문부과학성 인가의 특정공익증진법인)
- 지역에 있는 싱크탱크 규모로는 가장 오래됨
- 대표자는 FFG 시바토 회장, 약 600여개 회원으로부터 연간회비수입 1억5천만엔, 수탁 조사수입 2억5천만엔 규모 (스폰서가 정부가 아닌, 기업과 행정이라는 점이 특징)
- 큐슈, 오키나와, 야마구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에 관한 조사연구, 통계, 조사 연구보고서, 기관지 발행

○ 교류기관

- 2010년부터 한국 동남권 지자체와 MOU 체결 (부산, 제주, 울산, 경남, 광주)
- 2014년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내 일본연구센터와 MOU 체결

○ 프로그램 "지역정책 디자이너"

- 동 협회, 큐슈대학, 경제연합회 등 7개 기관이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실시하는 강좌
- 올해로 9년째로 매년 5월~11월 개최. 298명 수료
- 사회인,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총 35명 정도
- 지역이 고민하는 점을 지역주민이 지역의 시점으로 정책만들자는 취지
- 졸업생은 졸업증 수여, 보고서는 내용에 따라 정책화 반영 (예. 1기생의 후쿠오카 BRT 아이디어)

○ 회원제 도서관 "비즈콜리"

- 도서관이지만 교류, 커뮤니케이션 장소, 세미나, 강연회 등에 활용
- 즉, "모일수 있는 장치" 를 기획

■ 시사점

○ 협회는 현재 MOU 맺고 있는 지자체와 교류를 우선시 희망

○ "비즈콜리"에서 제공하는 서적에는 큐슈, 야마구치, 오키나와 관련된 서적의 코너가 별도로 있어 지역정책, 역사, 지역관련 레포트 등을 찾아보기 쉬웠음

○ "지역정책 디자이너"처럼 지역거점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주민간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흥미로움

– 졸업생 중에는 시의원, 시장,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 공익재단법인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 도시계획과 아시아교류 의 2개 축을 중심으로 구성

– 도시과학연구소(1988년 설립. 후쿠오카공항정비를 위한 시설, 하드웨어 중심)과 아시아태평양센터(1992년 설립. 아시아태평양 박람회 계기로 설립)의 합병(2004년 4월)

– 후쿠오카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곳. "후쿠오카 방식" 의 교훈을 아시아 각국에 전하는 공헌

– 지자체 행정자료, 아시아중심의 통계연감 등 정보수집

– 인재육성 및 네트워크 형성 목적

○ 운영

– 후쿠오카시 전액 출자기관. 연 4~5개 수탁연구 수행

– 후쿠오카는 정령지정도시 중 유일하게 市立대학이 없어 싱크탱크 필요

- 코디네이터 역할 병행 (공무원 업무이동으로 업무연속성 없을 때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역할)
- 총 인원 30명 내외
- 조사연구그룹(조사연구팀, 정보전략팀, 아시아교류팀), 총무그룹(총무팀, 산학관민연계팀)

○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 1994년 한일해협권에 위치한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학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양지역 발전과 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설치
- 올해로 25회 협의회 개최
-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참가연구기관 10개 (아시아성장연구소, 후쿠오카아시아도시연구소, 큐슈경제조사협회, 나가사키경제연구소, 사가대학 산학·지역연계기구, 부산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경남연구원, 제주연구원, 울산연구원)
- 연회비 10만엔. 주관기관이 비용부담
- 비행기 및 숙박비 자부담 으로 운영

○ 아시아교류네트워크 구축

- NPO, 기업인, 마을만들기 컨설턴트, 아시아지역내 연구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적 정보 교류
- 아시아도시경관상, 연구기관교류, 국제시찰사업
- MOU체결 연구소 : 부산연구소, 경남연구소, 대전연구소, 호치민시 개발연구소(베트남), 아시아해비타트협회(홍콩), 중국사회과학원 노년과학연구센터, 흑룡강성사회과학원 (중국)

○ 환황해 관련연구

- 후쿠오카 부산권의 일상교류권 형성에 관한 연구 (2007~08년), , 일중 경제교류 인재 플랫폼 형성에 관한 연구(2008~09년)
- 후쿠오카-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연계사회형성에 관한 조사연구(2009년)
- 후쿠오카시가 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기업(2010년), 아시아의 후쿠오카 비즈니스권 형성에 관해(2010~11년)
- 후쿠오카-부산 초광역경제권의 인재육성, 활용에 관한 연구(2016년)

■ 시사점

○ 한일해협권 협의회의 경우, 많은 지역과의 일회성 교류가 아닌 정말 관계를 맺고 싶은 적은 지역과 정례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 발굴

○ 후쿠오카 경제권을 테마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물 발간

- '연계사회형성' '일상교류권' '인재플랫폼' '전략적으로 유치할 기업' '아시아내 비즈니스권 형성' 등

○ 금번 한번의 방문으로 당장 교류를 시작하기는 어렵겠지만, 공통적 문제에 관한 공동연구, 시찰 등을 통한 발판만들기 중요

>> 외국인 창업사례 (Growth Next내 (주)Global connect Fukuoka)

○ 현재 인재사업, 소셜미디어 사업 등 운영 중

○ 스타트업 카페

- 후쿠오카 창업특구 연구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스타트업 카페"
- 스타트업카페 사례는 대만 → 후쿠오카 → 부산 으로 벤치마킹되어 전파됨

○ 후쿠오카 창업특구

- 일본국내 7개 특구 중 유일한 창업특구
- 외국인 창업시스템 특화 : 시청내 전담부서, 외국 6개국과 MOU 체결
- 외국인 스타트업비자 따로 있음(6개월). 창업특구 내에서만 가능

* 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00만엔 자본금, 종업원 2명이상 고용, 사무실 증명 등 있어야 하는데, 후쿠오카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예

- 시내에 창업학과가 속속 만들어져 인재육성, 산학관 연계 가능성 제고

○ 후쿠오카현내 유학생 1만5천명. 시에는 1만명 정도 있음

- 2020년까지 일본전체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이중 3.5%만 취업된다고 함
- 후쿠오카현 유학생 서포트센터
- 센터에서는 초창기 생활상담, 이후 취업상담. 2016년부터는 창업상담도 해줌

– 신문사에서 큐슈 이민에 대한 특집기사를 연재할만큼 오픈된 지역분위기도 있음

○ 일본내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변화

– 몇 년전부터 “다문화 공생”에서 “다문화 공창”이라는 표현의 변화에서 읽을 수 있듯이 외국인이 단순히 같이 산다는 존재를 넘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 (총무성 다문화공창 2.0)
– 총무성 산하의 인권존중협의회가 지역에서 활동
– 이런 분위기 확산 및 계몽에 함께 해야하는 것이 지역미디어

■ 시사점

○ 교류거점으로 FDC (후쿠오카지역전략추진협의회)도 시야에 넣어도 좋을 것이라는 추천

○ 환황해 추진사업 내 유학생창업특구의 경우, 도 차원에서 작게 추진하는 것보다 국가적 특구로 역제안을 통한 드라이브 고려 가능

– 창업을 쉽게 하는 특혜(자본금, 종업원, 사무소 증빙 면제) 및 특히, 관련비자는 도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사안이 있음.

>> 현지세미나

위치	Growth Next 회의실
참가자	후쿠오카대 야마시타 코지 교수 후쿠오카대 강문헌 교수 시모노세키시립대 야마카와 토시카즈 교수 충남연구원 유학열, 이민정, 김종화, 홍원표 충남도청 신현배 팀장

○ 본 연구의 문제의식

– 지금까지의 충남의 성장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환황해를 둘러싼 큰 환경이 2013년부터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생겼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충남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 지금까지는 도지사급 왕래를 통한 교류가 많았음

- 금번 연구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할 경우, 각국 각지역의 창구가 될 기관, 네트워크만들기
- 국가간 교류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교류
- 충남은 오랫동안 쿠마모토와 자매도시이지만, 교류내용 등의 확대를 위해 큐슈지역으로 무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거점으로 후쿠오카를 고려 중

〈환황해 및 교류관련〉

- 후쿠오카에서는 "황해"에 대한 인식이 낮음
- 부산에서는 20년전부터 큐슈와의 교류에 힘을 실어왔음. 지리적으로 근접한 큐슈와 다양한 면에서 교류하면서 부산의 경제사회 활성화 도모
- 단, 개별대학, 기업의 개별적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잘 진행되지는 않았음.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데 불확실성이 높음)
- 정부차원에서 수년전 "3+1" (한국대학 3년, 일본대학 1년. 일본에서 취업)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본에서 약 30여개교가 흥미를 보인다고 함.
- 큐슈지역 중 나가사키현이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해외와의 연계 통해 타개책 구해야 하
- 해저터널 이야기는 후쿠오카-부산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동안은 논의되지 않을 것. JR큐슈에서 100년전에 세웠던 계획에 바탕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실현되기 어려움

〈 국제창업지구 사업 관련〉

- 후쿠오카대학은 벤처에 관한 역사가 긴 대학
- 창업, 벤처가 굉장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 하는게 아닌 보통사람도 정열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풍토조성 중요
- 혹시 실패해도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

〈FTA 등 국제무역 관련〉

- 한일 FTA는 없지만 한중 FTA는 있는 상황. 효과는 어떤지,
- 도시간 FTA 구상을 제안했는데 어떤 모델사례가 있는지
- FTA은 어떤 국가간 산업분업구조, 도시간 분업으로 생각해야 할지

〈환경 관련〉

-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업은 매우 약한 느낌
- 신재생으로 옮겨가기 위해 충남이 하고 있는 노력

〈답변〉

- 도시간 FTA구상은 FTA에 관한 도시간 협력으로 이해하는 게 나음
- 본 연구내용이 국가에 역제안 하는 것인지, 지방정부 레벨에서 하겠다는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느낌

〈기타〉

- 크루즈는 조금 늦은 감이 있음
- 환경기술 면에서는 키타큐슈가 유명(일본 평균적 환경기술이 1일 때, 키타큐슈는 1.1)
- 행정, 대학이 모두 연계해서 함께 활성화시키자는 논의는 많지만 실체는 없음. 단, 작은 규모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진행되야한다고 생각. (큰 이야기는 듣기는 좋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힘듦)
- 큰 플랜을 내걸지만 결국 작은 움직임이 많아야 함
- 지역활성화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많고 이런 작은 수준의 연계협력이 중요
  (예. 일본의 어느 교수가 전라도에서 김치담는 법을 배워 야마구치현 시골마을에 이를 전하고 상품화 한 사례)
- 브랜드화, 일본인대상-한국인대상 등 작은 사업 가능
  (예. 사업 중 '아시아식품개발사업' 관련하여 적용 가능)

4) 제2차 중국국외출장

(1) 공무국외 여행 개요

○ 기 간 : 2018년 11월 26일(월) ~ 11월 29일(목), 3박4일

○ 여행자 : 환경생태연구부 정종관 박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윤종주 박사, 미래전략연구단 송영현 박사

○ 방문국: 중국 (장쑤성 난징시, 상하이시)

○ 방문기관 : 장쑤성사회과학원, 난징 Youth Space(청년창업공간), 상하이 해양환경 NGO 단체 렌두

○ 주요 일정:

일자	일자	주요활동
1일차	11월26일(월) (난징)	출국(인천 → 난징)
2일차	11월27일(화) (난징)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난징 Youth space 회의
3일차	11월28일(수) (난징, 상하이)	이동(난징 → 상하이) 상하이 환경 NGO 렌두 회의
4일차	11월29일(목) (상하이, 인천)	복귀(상하이 → 인천)

>> 주요 활동내역

○ 장쑤성 정부의 지방차원 교류협력에 관한 인식 및 관심 사항 파악

○ 본 연구 핵심사업에 대한 의향 타진 및 사업추진 창구 마련

○ 장쑤성의 국제창업 동향 파악 및 충남 국제창업 활동의 해외거점 확보

○ 지방정부 간 초국경 환경협력 방안 모색 및 향후 지속논의를 위한 대상 확보

>>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결과

■ 면담자 : 장쑤성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장, 세계경제연구소장, 과학연구처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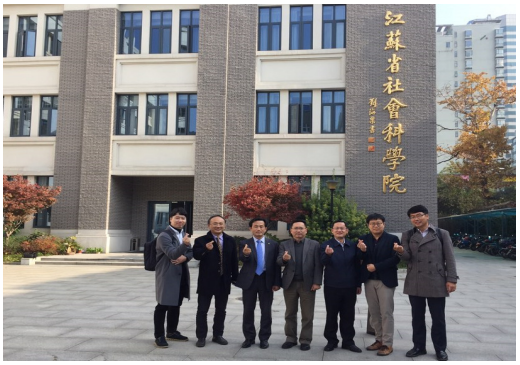
■ 주요내용

- 충남연구원, 장쑤성 사회과학원 상호 간에 기관 소개 실시함
  - ▸장쑤성 사회과학원은 충남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쑤성 정부의 싱크탱크 기관임
  - ▸연구원 산하 12개 연구소에서 220명의 연구원이 복무 중이며 연구분야는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등으로 다양함
  - ▸2017년 실시된 중국 31개 지방정부 사회과학원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함
  - ▸국제학술교류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교류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학교, 전북연구원과 교류 진행 중임
  - ▸국제학술교류는 학술토론회, 방문학자 제도, 공동연구 3분야로 나누어 실시 중임
  - – 이어서 장쑤성의 경제, 환경, 농어업 분야 특징에 대한 설명 및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관련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 실시함
  - – 장쑤성의 경우 한국과 깊은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옌청(鹽城, 장쑤성 산하 지급시)에 있는 한중 산업단지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입지하여 매년 약 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 중임
  - ▸이 밖에 한국, 특히 충남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역시 장쑤성으로의 수출량 많은 편임
  - ▸상기 품목들은 중간재 형태로 수출되며 최종재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장쑤성 쑤저우 시에 중점적으로 입지되어 있는 상황임
  - ▸향후 위 품목에 대한 중국 내 수요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의 대중국 FDI(외국인 직접투자)규모를 유지 ·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국제창업 관련하여 지방차원보다는 만인계획, 천인계획 등으로 명명되는 중앙차원의 정책이 많은 편이며, 이들은 대부분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인력을 모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 한편, 장쑤성의 환경 관련 특징 및 충남과의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음. 장쑤성은 산업시설의 집단입지 유도, 오염총량 배출제 등을 통해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시 중임
  - ▸또한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비록 재생에너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 ▸해외 천연가스 채굴 및 원료 수입을 추진 중이며 수입된 가스의 정제기술 등에 있어 충남이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협력 가능하다고 설명함. 이미 홍콩, 싱가폴 등과는 협력관계 구축함
  - ▸장쑤성은 태양열 발전(전국 생산량의 절반) 규모가 크고 태양열의 전기에너지 전환 기술이 좋은 편임. 이 분야에서도 충남과 기술적 · 정책적 협력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임
  - ▸한편, 장쑤성은 환황해권 갯벌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보다는, 갯벌지역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공동협력을 실시하고자 함
  - ▸갯벌지역에 중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이 밖에 미세먼지 분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정책적 노력 외에도 국가나 지방정부 행사 시 행정명령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임
  - ▸미세먼지 분야의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는 낮은 편임. 미세먼지는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임. 관련하여 충남-장쑤성 간 공동연구, 데이터 축적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임

– 마지막으로 장쑤성 농어업분야 특징 및 충남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장쑤성은 화학비료 및 비닐제품 사용량 절감, 해양양식장 규모 감소 및 양식기술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즉, 농어업 분야에서 역시 환경 관련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이촌향도 문제, 농어촌의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 역시 충남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나, 장쑤성은 문제가 덜 심각한 편임. 중국 특유의 호구제, 지역발전 단계의 차이 등이 이유일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분야 협력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농어업 분야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장쑤성은 농업 분야 협력과 관련하여 특화작물 육성 및 6차 산업분야에 대한 협력의지 있음



[사진]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참석자 사진

[사진] 장쑤성 사회과학원 회의 사진

>> 난징시 Youth Space 회의 결과

■ 면담자: 난징시 Youth Spca CEO, 품질운영부 주임

■ 주요내용

– 장쑤성의 청년창업정책, Youth Space 운영현황,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관련 협력분야를 논의함

– 장쑤성의 청년창업 정책은 다음과 같음. 장쑤성은 2018년 2대 창업분야(創業(창업)과 創新(혁신))정책을 적극 실시하며 창업과 기술혁신의 인재를 끌어 모으기 위해 노력 중임

▸ 노력의 일환으로 우수인재들에게 인민폐 50-500만 위안에 이르는 창업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 중임

▸ 국제창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많은 편은 아님.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쑤성의 모든 창업지원정책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국적과 관계없이 정책이 펼쳐지는 경우 다수임

– Youth Space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Youth Space는 기본적으로 민간 플랫폼이나 장쑤성, 난징시, 구러우구(鼓樓區) 등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창업

플랫폼임

- ▸난징 외에도 상하이, 톈진, 항저우에 Youth Space가 있으며 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함
- ▸2016년 쑤닝(蘇寧, 중국 최대의 전자제품 유통회사)의 자회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7년 상하이에서 운영되던 유사 창업 플랫폼인 Coco Space를 인수합병하며 플랫폼 규모 확장함
- ▸난징 Youth Space에는 현재 3개 스타트업 50여 명의 직원이 공간을 임대하여 근무하고 있음
- ▸Youth Space의 장소 임대료는 난징시와 구러우구에서 전액 부담 중이며, 상기 기관들이 실내 인테리어비 1/3도 지원 중임
- ▸장수성과 난징시의 상무국, 공업정보화국 등에서 청년 창업관련 정책을 펼칠 때 Youth Space가 정책실행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스타트업의 초반 인큐베이팅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플랫폼이므로 초반 인큐베이팅 기간(6개월)이 지나면 실제 수익창출 성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 수익창출 실적이 없을 경우 기업을 퇴출시킴
- ▸IT창업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기관인 우전(郵電)대학 근처에 입지하여 해당분야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
- ▸국제창업에 대한 의지 높은 편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한중일 합작기업을 인큐베이팅 한 바 있음. 현재 KOTRA와도 협력 관계 유지 중임

–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의지 높은 편이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함

- ▸충남이 청년 창업대회, 발명대회 등을 추진할 시 인력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 이전 단계에서 공동 브랜드 마련 및 명패 교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함

[사진] 난징 Youth Space 회의 참석자 사진

[사진] 난징 Youth Space 전경

>> 상하이 해양환경 NGO 단체 렌두(공식명칭 : 상하이해양공익발전중심 렌두)

■ 면담자 : 상하이해양공익발전중심 렌두 소장

■ 주요내용

– 렌두 소개, 중국의 해양환경 NGO, 지방정부의 국제 해양환경사업 참여 현황,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에의 참여 가능성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인터뷰 실시함

– 중국 유일의 해양쓰레기 관련 NGO 단체인 렌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중임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업무는 미국 특정 기업과 협력하여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었음

▸현재 렌두는 해양 쓰레기 줍기,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연구, 해양환경 교육, 해양환경보호 NGO 협력 추진의 4가지 업무를 수행 중임

▸앞의 3가지 업무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나 해양환경보호 NGO 협력은 중국 전역 및 해외 주요 국가를 포괄하는 것임

– 렌두 및 중국 지방정부의 국제 해양환경사업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음

▸렌두는 국제 해양쓰레기 업무의 중국 협조기구이며 국제연안정화의 날(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ICC) 활동에 참여 중임

▸또한 한, 중, 일, 러 등 국가로 구성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에도 참여 중임

▸환경분야에서 다양한 국제 협력활동 실행 중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활동이 이뤄지는 것은 아님.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임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방 간 초국경 해양환경협력 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위주로 이뤄지는 편임

▸웨이하이, 샤먼, 샌프란시스코, 뉴욕 간의 해양 쓰레기 처리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한, 중, 일, 러가 참여 중인 GPML(해양쓰레기 지구 파트너쉽, 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의 산하기구 DINRAC(데이터 및 정보 네트워크 지역 활동 센터, Data and Information Network Regional Activity Center)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함

▸DINRAC 베이징 데이터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양쓰레기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으므로, 해양쓰레기 데이터와 관련된 국제협력 방안 모색 시 해당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 모색 필요함

– 렌두 및 중국 지방정부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 참여 가능성,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함

▸렌두의 경우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초국경 협력에 대한 의지 강한 편임. 그러나 중국의 모든 NGO는 국제 협력 활동에 있어 경외(境外)NGO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이러한 점은 다소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상하이시, 장쑤성과 같은 지방정부 역시 국제 환경협력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긴 하나,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무리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렌두 또는 상하이시, 장쑤성 등 지방정부가 충남과 함께 해양환경 협력 관련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와 이견이 없고 사업의 목표가 분명한 사업일 경우 동일 기간, 동일 방법 등 공통표준에 의한 공동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국제환경상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재 중국은 독일, 유럽의 환경상에 참여 중임. 렌두 역시 마찬가지임. 국제환경상 참여를 통해 기관 홍보가 가능하며 수상할 경우 조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충남이 국제환경상을 마련할 시 대외홍보를 적절히 실시하여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할 것임
- 시상자 선정 과정의 합리성, 개방성 확보를 위해 충남 인사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의 관련 인사가 시상자(단체, 지역) 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사진] 상하이 렌두 회의 사진

[사진] 상하이 렌두 회의 참석자 사진

>> 시사점 도출

- 장쑤성, 상하이시의 경우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 충분한 편임
- 농어업, 환경, 국제창업 등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농어업 6차 산업 육성, 국제창업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서 참여 의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상기 분야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도 작지 않으나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등 민감사항에 대한 협력은 초반부터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관련분야 정책공유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 환경상에 대한 참여 의지 역시 높은 편임.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상자·지역·단체 선정 과정의 합리성, 개방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참여연구진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연구책임 : 홍원표 책임연구원

홍 원 표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송 두 범	미래전략연구단장
정 종 관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 학 열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김 경 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연구위원
김 원 철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김 형 철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
박 경 철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김 종 화	행정복지연구부장
이 민 정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윤 종 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송 영 현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이 상 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유교특성화추진단장
전 춘 복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강 수 현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